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濟州道의 佛教와 佛教美術 考察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배 연 이

2015年 2月

濟州道의 佛教와 佛教美術 考察

指導教授 임영애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5年 2月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文化財學科

배연이

배연이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查委員長 임영애 印

審查委員 강봉원 印

審查委員 양희제 印

慶州大學校 一般大學院

2015年 2月

목 차

I . 머리말	1
II . 제주도의 불교 유입과 성행	3
1. 제주도의 불교 유입	3
2. 제주도의 불교 성행	11
1) 고려시대	11
2) 조선시대	15
3) 근대	23
III . 제주도의 사찰과 불교미술	33
1. 사찰	33
1) 고대사찰	33
2) 현존사찰	42
2. 탑파	49
1)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49
2) 존자암지 세존사리탑	51

3. 불상	60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60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66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69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76
5) 월정사 소조여래좌상	80
6)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82
7)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83
8)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88
9)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94
10)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96
11)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98
12) 월정사 목조보살입상	99
IV. 제주도 불교와 불교미술의 특징	102
V. 맷음말	116
참고문헌	118

< 표 > 목 차

<표 1> 제주도 사찰 현황	43
<표 2> 지역별 문화재 현황	43
<표 3> 종단별 문화재 현황	44
<표 4> 사찰소장 문화재의 유형별 현황	44
<표 5> 시대별 문화재 현황	44
<표 6> 사찰·유형별 통계	45
<표 7> 제주도의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	48
<표 8> 性還의 불상 작품	92
<표 9> 道性 관련 자료	92
<표 10> 進悅의 불상작품	93
<표 11> 시대별·전 소재지별 불상	101
<표 12> 시대별·전 소재지별 불상 통계	101

[圖] 목 차

[圖 1] 산방배작	20
[圖 2] 탐라순력도	20
[圖 3] 법화사지 발굴지	36
[圖 4] 법화사지 출토 운봉문 기와	36
[圖 5] 법화사 전경(현재 대웅전)	36
[圖 6] 존자암지	39
[圖 7] 존자암지 전경(현재 대웅전)	39
[圖 8]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49
[圖 9] 제주 불탑사 탑신상륜부	49
[圖 10]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탑신부	49
[圖 11] 감실 및 기장 면석 문양	49
[圖 12] 존자암지 세존사리탑	52
[圖 13] 존자암지 사리탑 발굴 사진	52
[圖 14]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60
[圖 15]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66
[圖 16]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66

[圖 17]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69
[圖 18]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76
[圖 19]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좌측면	76
[圖 20] 월정사 소조여래좌상	81
[圖 21]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82
[圖 22]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83
[圖 23]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저부	83
[圖 24]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복장출토 발원문	86
[圖 25]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복장출토 다라니경	87
[圖 26]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89
[圖 27]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95
[圖 28]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저부	95
[圖 29]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97
[圖 30]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98
[圖 31] 월정사 목조보살입상	99
[圖 32] 동자복 미륵	111
[圖 33] 서자복 미륵	111

I. 머리말

제주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영산인 한라산을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육지와는 전혀 다른 지형과 기후를 보이는 최대 규모의 화산섬이다. 이러한 독특한 자연환경은 제주도의 풍속과 풍토에 큰 영향을 미쳐 ‘절 오백, 당 오백’이라는 말이 생긴 것처럼 불교와 민간신앙이 공존하는 특이한 형태의 신앙모습을 형성해왔다.

제주도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어 사찰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2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이 존재하고 있으며 종단의 성격도 다양하다.¹⁾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람이 많고, 태풍과 큰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무속, 조상 등과 같은 재래신앙에 의지하는 경향이 커던 만큼 사찰에서도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면을 엿볼 수 있다.

불교가 삼국시대에 전래된 이후로 각 시대별 불교의 특징과 불교미술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방법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지만, 제주도와 같은 독특한 자연·생활환경 속에서 꽂피운 제주도 지역의 불교와 불교미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불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주도의 근대불교사에 집중되어 왔으며,²⁾ 불교미술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사찰에 소장된 불교문화재 현황을 파악하고 소개한 자료집의

1) 제주도의 사찰은 총 204개소이며 조계종 62개소, 태고종 80개소, 기타종단 62개소를 구성하고 있다.(『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2008, 부록 참조) 지역별로 구체적인 종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주시 조계종 45개소, 태고종 45개소, 기타 26개소(법화종, 일봉선교종, 원화종, 천태종, 관음종, 원효종, 총화종, 일승종, 용화종, 미륵종)이며 서귀포시 조계종 17개소, 태고종 35개소, 기타 36개소(법화종, 일봉선교종, 원효종, 천태종, 아미타종)이다.

2)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2002.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출간³⁾과 함께 제주도의 불교미술품 가운데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는 불상에 대한 개별 작품 분석 및 종합적 고찰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된 유래와 그 성행시기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피어난 불교미술을 고찰하여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I 장에서 제주도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경로에 대해 문헌기록을 통해 검토하고, 이후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근대까지의 제주도의 불교 모습과 발전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제주도의 사찰과 불교미술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III 장에서는 제주도에 처음 건립되었던 고대 사찰과 현재 제주도에 현존하는 지역별 사찰 현황을 살펴보고, 사찰에 소장된 불교미술품 가운데 주요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탑파, 불상 등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IV 장에서는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깊게 뿌리내린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에 대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기초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하며, 향후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 미술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2003. 제주특별자치도·제주문화 예술재단, 『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2008.

4) 최인선, 「제주도 서산사의 목조보살좌상과 복장물」, 『순천대박물관지』 제3호, 순천 대학교박물관, 2001. 최인선, 「제주도 정방사소장 순천 대홍사 석조여래좌상과 복장 물」, 『문화사학』 23호, 한국문화사학회, 2005. 김창화, 「조선시대 제주도 불상연구-기념명 불상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II. 제주도의 불교 유입과 성행

1. 제주도의 불교 유입

제주도의 신앙형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제주에는 절 오백, 당 오백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교와 민간신앙이 공존하였던 제주도의 신앙형태를 보여주는 문구이다. 제주도의 불교에 관해서는 조선시대 문현기록에서 일부 찾아볼 수 있는데, 1520년 제주도에 유배 왔던 김정(金淨)이 『濟州風土錄』에서 “음사와 함께, 부처에 기울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 절과 당이 공존하는 제주도의 신앙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⁵⁾ 채제공이 쓴 『萬德傳』을 통해서도 제주도에는 당시 불교문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 문현상으로 확인되는 고려시대 사찰 이름은 대여섯 곳에 불과하고 폐사지까지 포함해서 유적으로 남은 것도 대여섯 곳 정도이다. 조선초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사찰이름도 열 곳이 안 되는 것으로 봐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불교의 전통과 함께 민간신앙이 널리 확산되어있던 실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제주도에 불교가 언제 어떻게 전래되었고 사찰은 언제부터 건립되었는지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지금까지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된 것과 관련해 의견들이 있어 이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자적인 문화를 갖고 있던 탐라국은 결국 고대왕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탐라는 우선 고대국가로 성장할 만한 물적·인적 토대가 약했다. 육지에서 삼국이 고대국가로 발전하고 영토 확장을 꾀할 때 탐라국이 찾은 독자

5) 한금순, 「제주불교 신앙형태의 역사적 고찰」, 『불교학연구회 2010년 겨울워크숍 자료집』, 2010, p.15.

적 생존방식은 조공외교였다.

『삼국사기』 백제 문주왕2년(476)조를 보면 “탐라국에서 방물을 바치니 왕은 기뻐하며 사자에게 은솔(恩率)이라는 벼슬을 내렸다.”고 했다.⁶⁾ 탐라는 백제 멸망 때까지 조공관계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비호를 받은 탐라는 신라로부터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었다. 신라 선덕여왕이 자장율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645년에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고 각 층에 신라가 물리칠 외적을 상징할 때 1층 일본, 2층 중화, 3층 오월에 이어 4층을 탐라로 지목했다.(5층은 응유, 6층은 말갈, 7층은 거란, 8층은 여진, 9층은 예맥이다.)

그러나 백제 멸망 이후에는 통일신라와 조공관계를 맺는다. 『삼국사기』를 보면 “660년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자 백제에 신속(臣屬)하던 탐라국 주(耽羅國主) 도동음률이 신라에 내항(來降)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통일신라 멸망 이후에는 다시 고려에 조공했다. 『고려사』 태조21년(938)에 “탐라국 태자 말로가 와서 알현하니 성주와 왕자에게 작위를 내려주었다”고 하였다.

탐라국이 조공관계에서 완전히 육지부의 한반도 역사 속에 편입된 것은 숙종10년(1105)이다. 이때 탐라국은 고려의 지방행정구역의 하나인 탐라군(耽羅郡)으로 바뀌면서 독립적 지위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고종 원년(1214)에 탐라군을 제주군이라고 고쳐 부르면서 탐라는 제주를 일컫는 옛 지명이 되었다.

『삼국사기』에는 476년 탐라의 왕이 백제의 문주왕에게 방물을 바치고 은솔의 관직을 하사받았으며, 동성왕 20년(498)에는 공물을 바치지 않는

6) 『三國史記』 百濟本記, 文周王2(476년) 4月條. 三年 春二月 重修宮室 夏四月 拜王弟昆支爲內臣佐平 封長子三斤爲太子 五月 黑龍見熊津 秋七月 內臣佐平昆支卒

탐라에 대해 왕이 직접 친정을 실시하려하자 탐라가 사신을 파견하여 사죄한 바 있다⁷⁾고 전한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탐라는 삼국 중 백제와의 교류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당회요(唐會要, 665년)에서 탐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탐라에는 오직 귀신만 섬긴다’⁸⁾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때까지는 불교가 유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불교 유입 시기는 탐라가 본격적으로 국제무대에 등장하게 된 660년대 이후 어느 시기로 추정할 수 있다. 661년에 탐라에서 당으로 조공사를 보내고,⁹⁾ 태산의 봉선의식에 참가하고(665년),¹⁰⁾ 일본으로 왕자의 내왕이 있은 이후일 것이다. 백제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완전히 신라에 예속되었던 문무왕 19년(679)¹¹⁾ 이후 탐라지배층은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선진문화도 받아들여 큰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탐라는 476년 백제 문주왕2년에 처음으로 백제와 방물(方物)을 바치는 관계를 맺은 기록을 남겼다. 문주왕은 탐라인에게 백제의 세 번째 관직인 은솔(恩率)을 하사하였고, 후에는 제1관등인 좌평(佐平)을 받은 탐라인도 있었다. 이후 탐라는 고구려에 방물을 바치는 관계를 맺었다가 662년에 신라와 관계를 맺었다. 661년 이후에는 일본과 자유롭게 교류하였으며, 665년에는 당나라의 국가의례에 참석하는 등 중국지역과도 교류하였다.

7) 『三國史記』 百濟本記, 東城王20(498년) 8月條. 二十年 設熊津橋 秋七月 築沙井城 以扞率毗陁鎮之 八月 王以耽羅不修貢賦 親征至武珍州 耽羅聞之 遣使乞罪 乃止(耽羅卽耽牟羅)

8) 『唐會要』 卷100, 耽羅國條(665년). 耽羅, 在新羅 武州海上, 居山島上, 周迴並接於海, 北去百濟可五日行, 其王姓儒李, 名都羅. 無城隍, 分作五部落, 其屋宇爲圓牆, 以草蓋之, 戶口有八千, 有弓刀楯矟, 無文記, 唯事鬼神, 常役屬百濟.

9) 『舊唐書』 東夷傳, 耽羅條(661년).

10) 『唐會要』 卷100, 耽羅國條(665년).

11) 『三國史記』 新羅本記, 文武王19(679년) 2月條. 發使略耽羅國 重修宮闈 頗極壯麗

이러한 기록들은 제주도가 육지에서 떨어진 변방이라는 인식의 폭을 넓히게 하는 기록들이다. 당시 이미 중국과 고구려 그리고 일본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또한 백제가 멸망하자 그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경우를 생각하면 제주도로 건너온 백제인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탐라가 백제와 처음 교류를 할 무렵 백제는 이미 불교문화가 꽂을 피우기 시작한 이후였으며, 고구려·신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탐라의 활동을 고려해본다면 삼국시대에는 이미 제주도에도 불교가 전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고고학적 발굴성과를 통해 절터에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와 질그릇, 청자편 등이 출토되어 삼국시대에 제주도에서도 불교가 신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된다.¹²⁾

예를 들어 제주 법화사(法華寺)는 통일신라시대 장보고(張保皐, ?~846)에 의한 창건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법화사 인근의 옛 지명 당포(唐浦)가 당나라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추측도 동반되고 있다.¹³⁾

그러나 삼국시대 전래설이 구체적 문헌으로 증명되어있지는 않고, 출토 유물들도 시기적 편차가 커서 전래시기를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앞서 살펴본 기록들과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삼국시대에는 이미 제주에도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이 충분히 짐작된다. 한편 한반도로부터 직접 유입이 아닌, 고대 인도에서 직접 수입되었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이것은 조선 시대부터 여러 사람들의 글에 의해 전해져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풀려났던 홍유손(洪裕孫, 1431~1529)의 『소총유고(遡叢遺稿)』 중

12) 『법화사지』, 서귀포시, 2006.

13) 김숙희, 「완도 장보고축제의 문화원형 활용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8. p31

「존자암개구유인문(尊者庵改構誘引文)」에서 이러한 내용이 전한다.

“존자암은 삼성(三姓)이 처음 일어났을 때 만들어져서 삼읍(三邑)이 정립된 후까지 오래도록 전해졌다.”

삼성은 탐라를 개국한 고을나(高乙那), 양을나(良乙那), 부을나(夫乙那)를 일컬으며 삼읍은 제주도의 행정구역이었던 제주목(濟州牧), 정의현(旌義縣), 대정현(大靜縣)의 세 곳을 말한다. 옛날 제주도에 세 명의 신인(神人)이 삼성혈(三姓穴)에서 숫아나왔다. 또 오곡의 종자와 송아지 등의 가축과 세 명의 처녀가 담긴 상자가 동쪽 바닷가에 흘러 들어왔다. 서로 짹을 지어 결혼하고 오곡을 뿌리고 소와 말을 길러 풍요롭게 살았다. 탐라의 개국신화인 삼성신화이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탐라국의 개국은 대략 AD 300~400년 무렵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 인용한 홍유손의 글에 의하면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탐라의 개국, AD 300~400년 이었다는 의미가 된다.

고려대장경에 당나라 현장(玄奘, 602~664) 스님이 645년에 번역한 『대아라한난제밀다라소설법주기(大阿羅漢難提蜜多羅所說法住記)』¹⁴⁾의 기록을 들어 이능화(李能和, 1869~1934)는 『조선불교통사(朝鮮佛教通史)』에서 “16나한이 각각 사는 곳이 있었는데, 여섯 번째 발타라존자(跋陀羅尊者)는 900아라한과 더불어 탐몰라주(耽沒羅州)에 나누어 살았다. 예로부터 전하기를 탐몰라주는 곧 탐라를 말하는 것으로 지금의 제주다.”라고 하여 남방으로부터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를 추측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주장은 난제밀다라에 의해 탐몰라주가 언급된 시기가 AD 344년

14) 『法住記』라고 흔히 부르는 것으로 불법이 세계 각처로 전파되게 된 배경을 기록한 것이다. 아라한인 난제밀다라가 설법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처님의 제자들이 불법을 전해 받고 수호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부처님 열반 후 800년 뒤, 곧 서기 344년에 사자국(獅子國, 지금의 스리랑카)의 대아라한 난제밀다라는 죽음을 앞두고 여러 제자들에게 앞으로 정법을 호지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할 열여섯 명의 대아라한에 대해 설법한다.

이니까 탐라국의 활동연대와 맞아떨어지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도 있다.

이은상(李殷相, 1903~1982)도 『탐라기행』(1937년)에서 『법주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6발타라존자의 상주처인 영실(靈室)에는 한라산의 만물상으로 오백장군이라는 돌나한이 있다. 법주기에 의하면 16나한 중 여섯 번째 발타라존자는 오백나한을 데리고 탐몰라주에 상주한다. 이 기록으로부터 오백나한과 수행동과 아울러 존자암이라는 이름이 기원한다.”¹⁵⁾

3세기 무렵 제주도 사람들은 한반도 사람들과 생김새나 풍속이 달랐고, 머리를 깎았으며 언어도 같지 않았다는 중국측 기록인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을 비롯하여 『속일본기(續日本記)』에서 제주음악에 관한 내용, 3~6세기 무렵 『북사(北史)』의 수나라의 탐라 묘사, 『당회요(唐會要)』의 661년 탐라 조공사(朝貢使) 기록, 『구당서(舊唐書)』에 나오는 665년 당나라 국가의례에 참석했던 탐라의 기록,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나오는 661년 이후 탐라와 일본의 전복 및 철제 실생 활도구의 교류 등에서 탐라의 활동을 짐작해낼 수 있다.¹⁶⁾

이러한 기록들로 미루어보면 삼국을 통하지 않고도 제주도가 중국·일본과 교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주도의 불교가 삼국으로부터 유입되지 않고도 중국이나 그밖에 다른 곳에서 전래되어 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의견은 문헌적 자료근거가 미약하고 유물출토를 통해 증명되지는 않아서 가능성만 짐작할 뿐이다.

제주도에서 불교에 관한 문헌기록이 확인되는 시기는 고려시대부터이다. 고려 정종 즉위년(1034)에 탐라국에서 팔관회에 참석하였다는 기록을 찾

15)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16)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을 수 있다.

“팔관회를 설치하고 神鳳樓에 거동하여 관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저녁에는 法王寺에 행차하였다. 다음날 대회에 또한 잔치를 베풀고 연주회를 관람하니 동서 2정과 동북양로의 병마사 및 사도호·팔목이 각각 표를 올려 하례하였으며, 송의 商客과 東西蕃 및 탐라국도 또한 방물을 바치니 자리를 내주어 의례를 관람하게 하였고, 이후로는 상례로 삼았다.”¹⁷⁾

또한 문종 11년(1057)에 육지부의 사찰 창건을 위한 탐라민이 별목과 조영에 동원되었던 일¹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탐라국이 육지부의 불교 행사 및 사찰 조영에 참여한 사실을 보여준다.

고려 충렬왕 때 승려 혜일은 탐라의 妙蓮寺, 逝川庵, 普門寺, 法華寺 등에 대한 찬시를 남겼고¹⁹⁾ 충혜왕 4년(1343)에는 왕사를 역임했던 흑선,²⁰⁾ 충목왕 4년(1348)에는 승려 종범이 탐라에 유배되었다²¹⁾는 것을 문헌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천해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탐라의 아름다운 사찰의 존재와 더불어 불교가 번창하였던 고려시대에 본토와 마찬가지로 탐라에서도 불교의 번성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유배되어 온 승려에 의해 본토의 불교를 전파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주도는 1034년(정종1)부터 국가의례인 팔관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탐라는 태조(太祖, 재위 918~943)대 이후 고려에 14회 정도의 방물을 바친 기록이 남아있으며, 945년(정종1) 이후는 국가의례마다 상례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개경으로 올라가는 탐라민 일행은 80여

17) 『高麗史』卷6, 世家, 正宗元年 11月條.

18) 『高麗史』卷8, 世家, 文宗12年 8月條.

19) 『新增東國輿地勝覽』

20) 『高麗史』卷36, 世家, 忠惠王4年 4月條.

21) 『高麗史』卷37, 世家, 忠穆王4年 12月條.

명에서 200여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였다. 또한 1057년(문종11)에는 한반도 육지부의 사찰 창건을 위한 별목과 조영에 탐라민이 동원된 적도 있다. 이렇게 왕성하게 고려와 교류를 가졌음으로 미루어 탐라의 불교를 그려볼 수 있다.²²⁾

이와 같이 팔관회의 참여 등 고려 조정과의 교류, 수정사(水精寺)의 창건시기로 보는 9~10세기 무렵의 초기청자인 해무리굽 청자편이 출토되는 점²³⁾ 등을 볼 때 고려시대에는 제주도에 불교가 신앙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고려시대에 들어 불교가 제주에 전래되었다기보다는 이미 제주불교는 고려불교와 같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제주도의 불교전래설에 대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었던 삼국시대에 그 전래루트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제주도에도 불교가 전래되어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팔관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 개경까지 왕래를 할 만큼 융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22)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23) 『수정사지』,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2. 제주도의 불교 성행

1) 고려시대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되어 불교가 융성했던 때는 고려시대에 화려하게 꽂피웠던 불교문화와 같은 맥락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의 제주도의 상황을 살펴보면,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려 태조 20년에 태자 말로(末老)가 와서 조회하자 신라에서 성주 왕자의 작위(爵位)를 주었다. 숙종 10년에 탐라(毛羅)로 이름을 고쳐서 탐라군(耽羅郡)으로 만들었고 의종 때에 강등하여 현령관(懸令官)으로 삼았다. 원종 11년에 김통정(金通精)이 삼별초(三別抄)를 거느리고 제주도 땅으로 들어가 고려와 원나라에 항거했지만 김방경(金方慶)이 평정했다. 충렬왕 3년에 원나라에서 말을 기르는 목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충렬왕 20년에 왕이 원나라에 조회하고 탐라를 돌려주기를 청하자 원나라 승상 완택(完澤)이 황제에게 아뢴 뒤 다시 고려에 예속시켰다. 이듬해에 이름을 제주로 고쳐 비로소 판비서성사(判秘書省事) 최서(崔瑞)를 목사로 삼았다. 26년에 원나라 황태후가 또 그 땅에 말을 방목하다가 31년에 다시 고려에 돌려주었다. 충숙왕 5년에 초적(草賊) 사용(土用)과 엄복(嚴卜)이 군사를 일으켜 난을 일으켰다. 그때 지방 사람인 문공제(文公濟)가 군사를 일으켜 난을 평정하고 원나라에 보고하여 다시 관리를 두었다. 공민왕 11년에 원나라에 예속시키기를 청하자 원나라에서 부추(副樞) 문아단불화(文阿但不花)로 하여금 탐라만호(耽羅萬戶)를 삼았다. 충숙왕 19년에 원나라가 제주를 다시 우리나라에 예속시켰다. 이때에 원나라 목자(牧子)들이 광폭하여 여러 번 국가에서 보낸 목사(牧使)와 만호(萬戶)를 죽이고 반기(叛旗)를

들었다. 김유(金庾)를 시켜 토벌하게 하자 목자들이 원나라에 호소하여 만호부를 두기를 청했다. 왕이 아뢰어 우리나라에서 새로 관리를 임명하고 목자들이 기른 말을 가리어 바치기를 전례와 같이 하기를 청하자 원나라 황제가 그대로 싐았다. 그 뒤 원나라 목자 하치가 마음대로 날뛰어 관리를 살해하자 6년 뒤에 임금이 최영(崔瑩)을 보내어 하치를 쳐서 멸하고 다시 관리를 두었다.²⁴⁾

제주도는 삼별초의 난 이후 대략 100여 년 동안 본토와 마찬가지로 원나라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았다. 그때 원나라의 언어와 풍습 등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시대의 탐라는 불교행사로서 국가의례인 팔관회에 상례적으로 참석하였는데, 1034년(정종1)부터 팔관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였다. 탐라는 태조(太祖, 재위 918~943)대 이후 고려에 14회 정도의 방물을 바친 기록이 남아있으며, 945년(정종1) 이후는 국가의례마다 상례적으로 참석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개경으로 올라가는 탐라민 일행은 80여명에서 200여명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였다.

문종 11년(1057)에는 육지부의 사찰 창건을 위한 탐라민이 별목과 조영에 동원되었던 것을 볼 때,²⁵⁾ 탐라국이 육지부의 불교 행사 및 사찰 조영에 참여함으로써 그 영향관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충렬왕 때 승려 혜일은 탐라의 妙蓮寺, 逝川庵, 普門寺, 法華寺 등을 다녀간 후 찬시를 남겼고²⁶⁾ 충혜왕 4년(1343)에는 후선,²⁷⁾ 충목왕 4년(1348)에는 종범이 탐라에 유배되었던 사실²⁸⁾을 통해 고려의 중심부 권력층의

24) 『新增東國輿地勝覽』,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25) 『高麗史』 卷8, 世家, 文宗12年 8月條.

26) 『新增東國輿地勝覽』

27) 『高麗史』 卷36, 世家, 忠惠王4年 4月條.

28) 『高麗史』 卷37, 世家, 忠穆王4年 12月條.

불교문화가 탐라에 유입되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제주도에는 고려시대의 비보사찰로 알려진 법화사와 수정사, 존자암이 있었다. 법화사는 조선 태종 때까지도 노비 280명을 거느린 제주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찰이었다.²⁹⁾ 고려 1269년부터 10년 동안 국가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법화사에는 원나라 양공이 만든 미타삼존동불이 봉안되어있었고 이 불상을 조선시대에 와서 명에서 요구하여 옮겨졌다는 기록도 확인된다.³⁰⁾

존자암은 조선시대 16세기 초까지 나라에서 경비를 지급받아 국성재를 지내던 비보사찰이다.³¹⁾ 원당사는 기황후 전설로 100년간의 원나라 지배 하의 제주불교를 엿보게 한다. 묘련사는 경판을 제작했던 사찰로 제주 묘련사 간행 『金光明經文句』가 현재 전남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있다. 경판 제작기술을 보유한 당시 제주도의 문화적 수준과 행정 및 경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제주불교의 위상을 말해주고 있다.³²⁾ 고려시대에 들어와 제주불교는 고려불교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³³⁾

제주도의 고려시대 불교를 증명해 주는 것은 법화사와 수정사, 존자암, 불탑사 오층석탑의 유적과 일부 문헌기록에 불과하다. 제주도에 관한 역사적 기록의 희귀성과 함께 고려시대 제주불교의 전모를 속 시원히 밝혀

29) 『朝鮮王朝實錄』 태종실록 15권 8년 2월 28일(丁未). 의정부에서 제주도 비보사찰인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 수를 정하다.

30) 『朝鮮王朝實錄』 태종실록 11권 6년 4월 20일(庚辰). 명에서 제주의 동불을 요구.

『朝鮮王朝實錄』 태종실록 12권 6년 7월 22일(己酉). 황엄 등이 동불 3좌를 받들고 경사로 돌아가니 임금이 전송하다.

31) 홍유손, 『(국역) 篓叢遺稿』, 소총유고국역간행위원회, 1997, p.60.

32) 윤봉택, 「13세기 제주 묘련사판 『金光明經文句』의 사실 조명-순천 송광사장 고려판 천순판불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 29권,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33) 한금순, 「제주근대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p.8.

줄 만한 유적 또한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발굴 조사된 사찰들의 규모만으로도 고려시대 제주불교의 전모를 상상하기에는 충분하며, 남겨진 역사적 기록에 의해 법화사와 수정사 그리고 존자암은 고려시대의 비보사찰이었음이 밝혀져 있다.

지방의 비보사찰은 국가지원에 의해 보호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원통제와 관리를 맡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주불교 역시 고려의 조정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성장 발전하였다. 존자암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법화사와 수정사는 원의 지배 이후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한라산 남쪽과 북쪽지역의 사찰들을 관리하는 비보사찰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불교의 형태처럼 제주불교도 국가적 지원 아래 융성한 모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 사찰로는 제주의 비보사찰인 존자암, 법화사, 수정사 등이 있고 또한 원당사 역시 고려시대의 역사가 남아있다. 이외에도 묘련사, 서천암, 보문사 등이 있다. 고려 충렬왕 무렵에 활동한 헤일스님이 이들 사찰에 대한 시를 남기고 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사찰들이 제주도 전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다. 발굴 조사된 고려시대 사찰로는 강림사지, 과지사지, 고내리사지, 금덕리사지, 일파리사지, 해륜사지, 서천암지, 오조리사지, 광령리사지, 성불암지, 상귀리사지, 보문사지, 관음사지, 해안동사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산방굴사를 비롯한 20여개의 사찰에서 고려시대의 기록 또는 유물이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대략 100여 곳의 고려중기에서 조선초기까지의 사찰이 추정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현재 조사되고 있는 폐사지는 80여 곳이다.

고려시대 제주불교는 이와 같이 개경의 팔관회에 참여하였던 점, 법화사·수정사·존자암이 비보사찰이었다는 기록, 발굴조사로 출토된 고려시

대의 유물, 그리고 묘련사·보문사·서천암·산방굴사 등이 고려시대의 사찰로 기록에 남아있는 점, 또 고려시대 유물이 출토되는 폐사지 등으로 보아 고려불교의 전체적 흐름과 마찬가지로 제주불교도 국가적 지원을 받아 가장 융성한 시기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제주불교는 전도에 걸쳐 골고루 퍼져 민간의 일상생활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의 고려시대에 관한 역사적 연구는 미미한 형편이다.

한편 고려시대의 불교유물 가운데 독특한 위상을 간직하고 있는 복신미륵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시대의 미륵불로 추정되고 있는 복신미륵은 제주시내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하나씩 자리하고 있다. 동쪽 건입동에 있는 것을 동자복, 서쪽 용담동의 것을 서자복이라 이름하고 있다.

제주도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불상으로 얼굴모습이나 옷주름 등에서 토속화된 불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복신미륵, 돌미륵, 미륵부처 등으로 불리면서 신앙되어 토속화된 민간의 미륵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 동자복미륵은 만수사(萬壽寺) 경내에, 서자복미륵은 해륜사(海輪寺) 경내에 있었다. 만수사와 해륜사는 1702년 이형상 목사에 의해 헐리고 미륵불만 남았다.³⁴⁾

2) 조선시대

조선시대 태종은 불교탄압정책으로 1406년에 전국의 선교양종 사찰의 수와 토지, 노비의 수를 제한하고 각 지방의 비보사찰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였다. 제주도에서도 1408년 고려의 비보사찰이었던 법화사와 수정사의

34) 현재 서자복미륵이 있는 용화사(龍華寺)는 1939년에 다시 세워졌고, 동자복은 민가 뒤플에 있다. 현재 제주도 민속자료 1-1호와 1-2호로 각각 지정되어있다.

노비를 모두 30명으로 줄임으로써 불교의 세력을 약화시켜 나갔다.

『세종실록』에는 “제주의 승려들은 내놓고 아내를 거느리며 사찰을 자신의 집으로 삼고 제자들에게 일을 시켜 자기 처자를 양육하면서도 관청의 부역도 별로 하지 않고 앉아서 배부르고 따뜻이 입고 지내니 내륙지방의 승려들이 모두 소문들 듣고 깊은 물에 고기떼가 모이듯 모여들어 그 모양을 따른다. 하지만 관에서는 예산일로 알고 금하는 일이 없으니 실로 폐단이 굳어진 바, 청컨대 제주의 승려들을 모두 조사하여 모조리 목자(牧者)로 하거나 군역에 보충하도록 하십시오.”라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사찰에 대한 국가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존자암개구유인문」(1507년)에 보이는 “존자암은 비보소(裨補所)이다. 나라에서 이 암자에 논을 하사하여 벼를 심어 채를 지낼 경비로 삼았다.”³⁵⁾는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조선의 국성재를 지내던 존자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중단은 제주지역의 다른 사찰에 대한 지원도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한다. 국가적 지원이 없어지면서 경제적 여력이 취약한 제주도 내의 사찰들은 급격히 사세가 기울어져갔다.³⁶⁾

사찰은 퇴락하였으나 도민들의 불교신앙은 여전히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어 당시 제주도에 왔던 유학자나 목자들을 곤혹스럽게 할 정도였다.

“정의현의 대족들이 나쁜 병에 많이 걸리는 것이 이 암자를 폐한 뒤부터이고, 비바람 때문에 흉년이 드는 것도 이 암자를 중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민간의 호족들과 관가의 관원으로부터 논밭을 가는 사내와 물을 길는 아낙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이와 초동, 목동들까지도 모두 달려와 이 절을 중수하자고 하소연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중수하는 일이 법에 저촉된다고 하며 아무리 만류하여

35) 홍유손, 「존자암개구유인문」, 『소충유고』(1507).

36) 『존자암지』, 제주도·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도 그들의 마음은 더욱 끓어올라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었다.”

1520년 제주에 유배왔던 김정은 “음사(涇事)와 함께 부처에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없다.”³⁷⁾고 묘사하고 있다. 조선전기에 대사헌, 형조판서 등을 지내며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해 미신 타파에 앞장섰던 김정은 「水精寺重修勸文」을 짓기도 하였는데, 이 중수권문에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신당(神堂)을 열심히 위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유교이념인 인의와 형벌을 위협하여도 막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를 교화하는 방법으로 오직 부처님을 가까이하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으로 살생을 금하여 인연과 업보와 복과 죄의 이치를 알게 하여 대승의 도를 깨닫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사람들은 어리석은 풍속을 고칠 것이다. 그러므로 사찰과 불상을 위엄있게 마련하여 승상한다면 백성들은 이에 귀의하여 병과 액의 득실을 빌며 이에 의지하여 착한 일을 즐거이 하게 되고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김정은 수정사 중수를 권유하여 복구기금을 거두는데 힘을 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하여, 유교가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교화하는 쪽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당시 제주민들의 신앙형태를 엿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 1653년(효종4)에 간행된 이원진의 『耽羅志』에는 당시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도내 20개소의 사찰³⁸⁾이 기재되어 있으며,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15개소의 사찰³⁹⁾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 사찰들은 1702년(숙종28)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에 의해 모두 훼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형상목사가 혁파한 것은 堂 129개소이며, 사찰은 海輪寺와 萬壽

37) 『濟州風土錄』

38) 水精寺, 元堂寺, 法華寺, 尊者庵, 成佛庵, 普問寺, 逝川庵, 窟庵, 妙蓮寺, 靈泉寺, 安心寺, 小林寺, 郭支寺, 月溪寺, 觀音寺, 文殊庵, 賴水庵.

39) 尊者庵, 月溪寺, 水精寺, 妙蓮寺, 文殊庵, 海輪寺, 萬壽寺, 江臨寺, 普問寺, 逝川庵, 觀音寺, 小林寺, 靈泉寺, 成佛庵, 法華寺.

寺 2개소 뿐이었다.⁴⁰⁾ 효종조까지 20여개에 달했던 도내의 사찰은 단지 50년이 지난 후인 이형상 목사 도임 이전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조선시대 제주불교는 억불정책의 흐름 속에서 점차 쇠퇴해갔다. 태종대에 법화사와 수정사 노비를 감축하고 법화사의 미타삼존동불상을 명나라에 돌려주었다. 세종조에는 대처승들을 목자로 만들거나 군대에 보충시키거나 하였다.⁴¹⁾ 15세기 말에 이르러 비보사찰의 국가 제정지원이 중단되고 1530년에는 15개의 사찰이 활동할 정도로 제주불교는 쇠퇴해졌다.⁴²⁾ 18세기 초 이형상 등의 유학자들의 유교의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행적으로 제주불교는 더욱 쇠퇴해갔다.

1703년 제주불교는 제주를 다스리는 목사(牧使)로 부임한 이형상(李衡祥, 1653~1733)에 의해 맥이 끊어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은 이형상 자신이 남긴 다음과 같은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온 섬 500리에 지금은 사찰이나 불상이나 승니도 없고 또한 염불자도 없으니 불도의 액(厄)이라 말할 수 있다. 해륜사와 만수사를 헐어 관가의 건물을 짓도록 했다.”⁴³⁾

“온 고을의 음사(淫祠)와 아울러 불상을 모두 불태웠으니, 이제 무격(巫覡) 두 글자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⁴⁴⁾

제주목사로 내려온 이형상은 유교사상에 걸맞게 제주의 여러 가지 풍속을 바꾸도록 지시하였다. 1년 남짓한 제주목사 재임기간 동안 제주도 내 129개 마을의 129개 신당을 철폐하도록 지시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철폐상황

40) 이형상, 『耽羅巡歷圖』(1703)

41) 『朝鮮王朝實錄』세종실록 36권 9년 6월 10일(丁卯). 제주도 찰방 김위민이 오랫동안 폐단된 일들을 계를 옮겨 아뢰다.

42) 『新增東國輿地勝覽』

43) 이형상, 『南宦博物』(1704)

44) 이형상, 『耽羅巡歷圖』(1703) 序文

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짧은 기간 동안 제주도 전역에 걸친 강압적 행정력은 사람들에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져 실제보다 더 많은 ‘절 오백, 당오백’을 철폐한 인물로 설화가 되어 전해지기도 한다.

이형상 자신도 유교사상을 실현하여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게 한다는 자신의 업적을 자랑스럽게 기록하였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건포배은(巾浦拜恩)’이라는 부기(附記)는 이형상 목사의 선정에 대해 도민들이 감사의 표시로 임금께 절을 올리는 모습과 신당이 불타는 모습을 그려 놓은 것이라고 설명해 놓았고, 후에 그의 지인이 쓴 「병와선생 이공행장」에는 “도민 700여명이 건포에 모였는데 어찌 감히 공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느냐면서 신당 129곳을 불사르고, 두 곳의 사찰을 불사르고, 1000개에 가까운 불상을 바다에 던졌다.”고 기록하였다.

제주의 불교는 부임되어 내려오는 관리들의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형상에 이어 부임한 이희태 목사는 다시 신당을 허락하였다. 유교식 제례를 뿐만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였던 유학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제주도는 1702년 이형상이 기록을 남길 당시까지도 “사명일(四名日:설, 단오, 추석, 동지)에 서로 모여서 예불할 뿐이다.”라고 하여 일년 중 네 명절을 사찰에서 지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사찰은 형편 없게 되었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절에 가서 명절을 지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도록 이어져 오던 신앙을 비롯한 제주사람들의 풍속이 강력한 권위에 얹눌린 것이라 해도 1년여 통치기간 내에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분명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형상이 남긴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⁴⁵⁾의 ‘산방배작(山房盃酌)’

45) 1979년 2월 보물 제652-6호로 지정되었다. 제주목사 겸 병마수군절제사 이형상(李衡祥)이 1702년(숙종 28) 한 해 동안 제주도 각 고을을 순시하며 거행했던 여러 행사 장면을 기록한 채색 화첩이다. 국립제주박물관에 별도로 마련한 탐라순력도실에 전시되어 있다. 이형상의 명령에 따라 화공 김남길(金南吉)이 그렸다. 총 41쪽으로 이루어졌다.

에는 산방굴사 안 불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의관을 갖추고 앉은 인물이 사람들로부터 잔을 받으려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圖 2] 이는 곧 이형상의 모습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약 150년 뒤 쓰인 유학자 이한진의 『매계집』에는 “안치된 불상빛깔은 오래된 두 돌인데”라고 산발굴사에 불상 2위가 모셔져 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도 역시 이후에 불교신앙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1] 산방배작

김남길, 1703년, 55×29.5cm,



[圖 2] 탐라순력도

지본담채, 국립제주박물관

으며, 각각의 폭 하단에 그림에 대한 간결한 설명이 적혀 있다.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것으로 18세기 초 제주도의 관아 건물, 군사 시설, 지형, 풍물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제주도 역사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형상의 후손들이 보관해오다가 1998년 12월부터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다.

추사 김정희(金正喜:1786~1856)와 당대의 대선사 초의 의순(草衣意恂: 1786~1866)스님, 그리고 개화기 외무대신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제주에서의 유배생활에서도 조선말기 제주불교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추사가 1840년부터 1848년까지 9년간 유배되어 제주에 사는 동안 절친한 친구인 초의스님이 제주도로 건너와 6개월간 벗하여 살았는데, 이 시기 산방굴사에서 수도하며 김정희에게 『밀다경(密多經)』을 쓰게 하여 세상에 전하였다고 한다. 이원조(李源祚:1792~1872) 목사는 『탐라지초본』에서 초의스님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시를 받은 기쁨을 전하고 있고, 추사의 제자 이한진은 초의스님과 그의 제자 백운(白雲) 스님과의 인연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당시에 제주도에 내려온 초의스님은 관리나 유림들과 깊은 교분을 맺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한진이 남긴 시 가운데 『사봉낙조(紗峰落照)』 편에서 ‘아득히 먼 절의 종소리 달에서 쏟아지는 듯하다’라고 읊어 사봉에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도 생각된다.⁴⁶⁾

갑오개혁의 김홍집(金弘集) 내각에서 외무대신을 지냈던 김윤식(金允植)은 1898년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이 때 쓴 『속음청사(續陰晴史)』에는 사월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여 등을 매달았고, 제주 유림의 유학자들과 『전등록(傳燈錄)』을 읽었다는 것, 제주 유림 중 한 사람이 정성스레 나한상을 봉안하는 모습, 해인사와 전라남도 강진의 스님이 찾아와 인사를 나누었다는 등의 표현으로 제주의 유림들과 교분을 쌓는 가운데 불교를 신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조선후기의 불교가 침체되었기는 했지만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불교신앙이 민중들의 생활 속에 토착화되어 있었다. 정치적 제도권에서 밀려난 불교는 여러 가지 억압을 받으면서 사상적 측면보다 신앙적 측면이 주를 이루면서 민중들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었다.

46)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p297

제주불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선후기 제주불교는 불교적 소양을 갖춘 유학자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갔다. 제주도로 유배 온 김정희⁴⁷⁾와 김윤식⁴⁸⁾ 등은 제주유림과 교류하

47) 김정희(1786~1856)는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문신·실학자·서화가로 1840~1848년까지 9년간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게 된다. 김정희는 혹독한 고문 끝에 제주도에서 서남쪽으로 80리나 떨어진 대정현에 위리안치되었다. 위리안치(圍離安置)는 유배형 가운데 가장 혹독한 것으로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두는 형벌이다. 현재 남제주군 대정읍 안성리 옛 대정현 현청에 이웃한 김정희의 적거지는 복원된 것으로 유허비와 함께 조그만 유물전시관이 세워져 있다. 김정희는 제주도에서 9년간 귀양살이를 했다. 이 시기 동안 많은 편지를 통해 육지에 있는 지인과 후학들에게 자신의 학문세계를 전했다. 특히 유배 기간 중 부인과 며느리 등과 주고받은 40통에 달하는 한글 편지는 그의 인간적 면모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유배기간 동안 화가이자 제자인 소치 허유(1809~1893)가 세 차례나 제주도로 건너가 수발을 들어준 일은 유명하다. 소치는 충심으로 스승인 추사의 글씨와 그림을 배웠다. 제주도 유배기간을 통해서도 그는 쉬지 않고 붓을 잡아 그리고 쓰는 일에 매진하였다. 최고의 걸작품인 ‘세한도’도 이 시기에 그려졌고, 흔히 추사체라 불리는 그의 독창적인 서체도 이때 완성되었다. 유배 중에 그린 세한도는 김정희의 최고 걸작이자 우리나라 문인화의 최고봉이라 평가받는 그림이다. 1844년 그의 나이 59세에 수제자인 이상직에게 세한도를 그려 주면서 “날이 차가워진 연휴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뒤늦게 시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공자의 글을 발문에 적은 것은 유명하다. 유배 기간 중인 1842년 11월 13일, 유배생활 내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존재였던 아내 예안 이씨가 세상을 떠났다. 1849년 9년간의 유배를 끝으로 마침내 귀양에서 풀려났다. 그 후 서울 용산 한강변에 집을 마련하고 살았는데, 다시 모함을 받아 1851년 북청으로 유배 길에 올랐다. 다행히 귀양은 1년으로 끝났지만, 그는 이제 세상에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칠십 평생 열 개의 벼루 밑을 뚫고, 1천 자루의 붓을 망가뜨릴 정도의 예술혼을 지녔던 김정희는 말년을 경기도 과천에서 지내며 7 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7』, 창비, 2012. pp335-361

48) 김윤식(1835~1922)은 한말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아관파천에 의해 친러파 내각이 성립된 뒤 명성황후 시해의 음모를 사전에 알고서도 방관했다는 죄목으로 제주도로 종신 유배형을 받았다. 김윤식은 적소인 제주에서 시회인 굴원(橘園)을 결성하여 시작 활동을 했다. 육지에서 건너온 사람 5명과 제주도 주민 10여 명으로 결성된 이 모임을 통해 제주도 문화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오경장의 입안자로 참여하는 한편, 일본에 의해 국권이 잠식당하는 굴욕적인 모든 조약이나 조처에 순응하였다. 1896년 2월 아관파천사건이 일어나자 외무대신직에서 면직되었고, 을미사변과 관련해 탄핵을 받아 제주목(濟州牧)으로 종신 정배되었다. 1898년 1월 제주목에 유배되었고 그 뒤 민당(民黨)과 천주교인의 대립으로 민요(民擾)가 일어나자 1901년 6월 다시 지도(智島)

면서 불교 경전을 읽거나 석탄일을 기념하는 등 불교활동에 동참했다. 이들의 활동은 이후 근대 제주불교의 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⁴⁹⁾

3) 근대

20세기 초의 제주불교는 봉려관 스님의 출가와 관음사 창건으로 20세기를 시작했다. 관음사 창건에 앞서 강창규 스님이 1892년에 김석윤 스님이 1894년에 각각 완주 위봉사에서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이들의 은사인 박만하 스님은 근대초기 제주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19세기 말 제주불교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편적 사건들만 알려져 있을 뿐이다.

민간에 스며들어 있던 불교는 생활에 밀접하게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19세기 민족사상과 이어지고 있었다. 오랫동안 제주의 도민과 아픔을 함께 해 온 승려들은 법정사(法井寺) 항일운동과 같은 민족운동으로 외세 저항에 앞장서게 된다. 이러한 신앙형태는 제주불교의 독특한 모습으로 불교지도자들에게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갖게 하였다.

제주의 근현대 불교는 관음사를 모태로 전개된다. 관음사 포교당을 중심으로 한 제주불교협회(1924년 창립)활동을 통한 제주불교의 의례와 신행 형태의 변화, 제주불교연맹(1937년 창립)의 해방 전까지의 활동을 통한 외형적 성장은 물론, 불교의 근본사상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주도에는 90여개의 사찰이 창건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불교계의 포교 열망과 일제의 효율적 관리의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물이었다는 시대적 한계상황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그 결과 1945년

로 이배되었는데, 유배기간 동안 제주도의 유림들과 교우하며 불교 및 학문을 도모하였다. 유홍준, 위의 책.

49) 한금순, 앞의 논문, p.8

제주불교혁신운동으로 친일을 반성하는 움직임이 모아지기도 했으나 제주 4·3사건으로 좌절을 맛보며 불교정화라는 현대사의 아픔을 맞게 되었다.

근대 제주불교는 관음사가 창건되면서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1908년 해월굴에서 기도를 시작한 봉려관 스님은 김석윤 스님과 함께 1909년 초가 법당으로 관음사를 창건하였다. 1910년에는 영봉 스님과 안도월 스님이 통영 용화사(龍華寺)의 불상과 탕화를 모셔다 봉안했다. 1909년 제주도 의병항쟁의 주역인 김석윤 스님은 일제의 감시 하에서도 1911년 관음사의 해월학원 교사를 맡아 다수의 제자들을 길러냈다. 이후 오한일, 장정명, 오이화, 방동화, 이성봉, 마용기의 출가가 이루어졌고, 소림사, 법정사, 불탑사, 화천사, 양진사, 법화사, 법주사 등 7곳의 사찰이 창건되기에 이르렀다.

창건 초기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관음사는 일제의 포교규칙에 의해 1918년 6월 11일 해남 대흥사(大興寺)의 말사로 등록하여 설치허가를 받았다. 이후 1920년 중반까지 대흥사 주지였던 이화담 스님과 백취운 스님이 관음사 포교담당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 시기 관음사의 활동은 중앙교단과는 별개로 제주불교의 자생력에 힘입어 활동하였다.

관음사의 창건을 전후한 시기에 제주도의 30여개의 서당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경축하는 행사를 가지고 있었다. 학부모와 훈장이 참석하여 연등을 켜고 글짓기와 씨름대회를 하며 떡과 술을 준비하였다. 서당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열 수 있는 분위기가 바로 조선시대 후기 제주불교의 모습이며, 또한 유학자들의 불교신앙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관음사의 창건은 이러한 제주도민들의 오랜 기간에 걸친 확고한 신앙의 결집임을 말해주는 것이다.⁵⁰⁾

대흥사 말사로 총독부에 인가를 받기 이전인 1918년에 이미 관음사는

50)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사찰로서의 사격을 갖추고 제주지역에서 이름 있는 사찰로서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음이 김형식의 『혁암산고』 「유관음사기」에서 엿볼 수 있다. 이때 이미 관음사는 제주도 공립보통학교와 제주 구좌보통학교 학생들의 소풍장소가 되거나, 제주도청과 제주교육회 등의 주요 견학처가 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륙의 제주도 탐방인사들의 필수 코스였다. 또한 중앙일간지에서도 「봉려관 스님과 관음사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에 걸쳐 실을 정도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이처럼 관음사가 창건되자마자 사회적 인식이 단기간에 변화된 것은 조선의 암울했던 시기에도 불교가 확고하게 신앙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의 불교는 시대조류에 부흥해 당시 항일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1918년의 법정사(法井寺) 항일운동은 김연일 스님을 비롯하여 강창규·방동화 스님 등 여덟명의 스님이 주도하여 일본인 관리와 상인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법정사의 신도를 비롯한 주민 400여명이 함께 일으킨 항일운동이다. 3·1운동보다 1년 앞서 일어났던 항일 무장항쟁으로 그 의미가 매우 높다.

항일운동은 강창규 스님의 안내로 제주에 온 김연일 스님 등이 산천단 소림사에서 거사를 의논하다가 일제의 감시를 피해 법정사로 장소를 옮기면서 준비된다. 이 과정에서 1913년 방동화 스님은 김연일 스님의 소개로 기림사로 출가하여 1918년에 합류하였다. 사건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연일 스님은 10년형, 강창규 스님은 8년형, 방동화·김상언 스님은 6년형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일제는 제주도에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켜 일대 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일본경찰에 체포된 관련자는 66명, 수형자는 31명, 옥사한 사람이 5명으로 한일합방 이후 처음있는 대규모의 조직적 항일운동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은 1901년 이재수(李在守, 1877~1901)의 난에서 보여준

제주도민의 외세 침탈에 대한 저항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재수의 난은 프랑스 신부의 위세를 등에 업은 천주교도와 봉세관(封稅官)이 결탁하여 온갖 비행을 저지른 외세에 저항한 사건이었다. 법정사 항일운동에서는 그 대상이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바뀐 것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인식하고 일본인 상인과 관리를 축출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법정사 스님들의 항쟁정신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스님들은 주민들의 불만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키고 400여 명의 주민을 조직화하여 직접적 무력투쟁으로 폭발시켰던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일제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외세전반에 대한 저항의식의 발로였다.⁵¹⁾

일제는 법정사 항일항쟁의 여파가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건 이후 적극적으로 제주불교 활동에 참여하였다. 일본인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유지들을 대거 불교활동에 참여시켜 불교활동을 양성화시키고 공론화시킴으로써 제주도 불교를 일제의 관리 하에 두어 감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20년대 제주불교의 주요 관심사는 불교확장이었다. 1923년 관음사 주지 안도월 스님은 불교연구회를 구성하고 2주간에 걸쳐 전도를 순회하며 포교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비로소 제주도 전역에 골고루 사찰이 창건되기 시작하는데, 관음사포교소(대각사)를 시내에 건립한 이후 고관사, 흥장사, 서림사 등 10여개의 사찰이 더 창건되기에 이르렀다. 이어 한 왕성한 활동은 곧 1924년 11월 17일 제주불교협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51) 법정사 항일운동 이후에도 영일 출신 김연일 스님과 정구용 스님은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주로 만주에서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정구용 스님은 포항 보경사에서 모의하여 이루어졌던 청하시장의 만세운동에도 관련되었다. 정구용 스님은 김구(金九) 선생의 임시정부 자금책으로 해방 후 김구 선생이 그의 유족들을 수소문하여 찾을 정도로 중요한 활동가였다. 김찬읍 편저,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1924년 11월 제주불교협회가 탄생되면서 제주불교는 지방의 한계를 벗어나 중앙불교와 연계되어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중앙불교의 중심에 있었던 조선불교 법사 이회명(李晦明, 1866~1952) 스님이 제주에 와서 회장직을 맡고, 도지사를 비롯한 지방 유력인사와 일본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제주불교협회에 힘을 심어주었다. 제주불교협회는 개별적 활동으로 통제가 어려웠던 제주불교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활동을 양성화시킴으로써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려는 의도를 가진 일제와 불교학장에 관심을 둔 불교계의 의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였던 것이다.

1924년 11월 17일 제주불교협회는 “시대 발전에 따라 종교의 관념도 따라 바뀌어야 한다. 불교의 확장은 사회발전상 가장 필요한 것이므로, 불교진흥·심신수양·지방문화 발전을 위해 제주불교협회를 창립한다.” 고 설립취지를 밝혔다. 협회의 활동은 민간신앙과 습합된 신앙의 모습에서 정통 불교신앙의 틀을 갖추기 위해 계단(戒壇)의 설치와 신행 단체의 조직 및 순회 포교 등으로 무속과 습합되어있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던 제주불교의 의례와 신행형태의 변화를 가져왔다. 제주불교협회는 창립되자 몇 달 안에 회원이 수천 명에 달하는 큰 호응을 얻으며 제주사회 전체를 통합해내는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신도들의 대대적 모금활동으로 바로 다음 해인 1925년 4월에 포교당을 신축하였으며 제주불교부인회·제주불교소년단을 결성하였다. 1935년에는 양홍기를 중심으로 불교협회에서 운영하는 중학강습소를 설립하기에 이른다.⁵²⁾

제주불교협회의 활동으로 제주불교는 한국불교라는 큰 범주 안에서 신행과 의례의 변화로 정통 불교신앙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제주불교협회는 제주사회 전체를 통합해내는 단체로서 제주불교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52) 한금순, 「근대 제주 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pp117-129

1920년대 제주불교협회의 활동이 점차 부진해지자 제주도 토착불교세력들이 중심이 되어 다시 한 번 불교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1931년 ‘제주불교임시대회’이다.

이 임시대회는 제주불교협회가 이희명 스님과 제의 협조 하에 활동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관음사의 안도월 스님을 주축으로 하여 제주불교의 자생적 활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주불교는 이제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독자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곧 1930년대 제주불교는 그간의 활동과 세력 확장을 바탕으로 독자적 통합기구로 가는 과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중반에 들어 그 수가 늘어나 모두 25개의 사찰을 헤아렸고, 각 사찰의 염불회 · 부인회 등 의 신도조직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36년 안도월 스님의 열반을 인해 일제의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으로 흡수되고 말았다.⁵³⁾

1936년부터 1938년까지 심전개발운동으로 제주불교계에서는 포교당의 건립 및 봉불식 · 가사불사 등이 활발히 행해지고 염불회 · 부인회 등 신도들의 조직이 활성화되었다. 또한 일반신도를 위한 정기설교와 경전강습이 이루어졌고 재래불교의 미신타파를 위한 불사를 개최하고 법화산림을 설재(設齋)하여 강연과 설교를 하는 한편, 전쟁 참가자를 위한 무운장구 기원제를 거행하기도 하였다. 제주불교계는 상당히 고무된 분위기 속에서 미신성을 타파하고 불교 본래의 사상을 되찾고자 자주적 사찰정화와 불교 발전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다.

제주불교계를 하나로 통합한 활동으로 제주불교연맹이 1939년에 탄생되

53) 일제는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이후 더욱 철저하고 교묘한 식민지 정책으로 주요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였다. 그러면서도 일제는 생활여건이나 교육정책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개선시켜줌으로써 천황에 대한 보은 감사정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1930년대 중반 이후 심전개발운동(心田開發運動)을 실시하였다. 한금순, 위의 논문. pp164-178

었다.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서다 제주에 온 이일선 스님을 비롯하여 오이화·이세진·이성봉 스님 등이 주축이 된 이 연맹의 활동목표는 심전개발운동에 동참하며 제주불교 활동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불교의 대중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었다. 연맹의 활동은 아주 성공적이어서 근대에 들어 가장 대중화되고 활성화된 제주불교계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연맹의 활동으로 해방 전까지 사찰이 31개소가 더 증가하였고, 포교사도 늘어났으며, 신도수도 증가하였다. 외형적 성장은 물론 신앙의 내용면에서도 불교의 근본사상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다양한 활동을 보여주었다.⁵⁴⁾

제주불교는 1940년대에 이르러 다양한 활동이 시도되었다. 이세진의 관음사 승가교육, 신흥연의 선농불교운동, 해방직후 개최된 제주불교 혁신승려대회는 제주불교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4·3사건으로 모두 중단되어버렸다.

한국불교의 총본산 건설운동에 자극받은 제주불교는 자체교구를 건립하였다. 그동안 60~70여개의 사찰들이 관음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나, 각각 소속본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법적구속력은 없으나 제주도의 지리적·인적 관계의 특성상 교구건립은 자연발생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다.

제주불교의 내적발전과 강원(講院) 설립의 발판을 다지고자 통일기구 내의 체계적인 승가교육이 실시되었다. 오이화·이일선·이세진·조희영·이성봉 스님 등이 주축이 되어 관음사포교당인 대각사에서 이루어졌

54) 제주불교연맹은 제주불교를 대중화시키고 활성화시킨 토대였다. 그것도 토착적인 힘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로 통합된 활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제의 통제 아래에서 활동해야했던 점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제주불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전체 사회분야의 공통적인 현실적 한계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맹의 한계성은 대처식육과 유발승려 풍조 등의 과제를 제주불교에 남겨놓았다. 『전통사찰총서21-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pp.311~349.

는데, 50여명의 학인을 배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1941년 비구 수계식을 끝으로 더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 이후 전시체제로 바뀐 정세변화와 유명무실해진 불교연맹이 주요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대의 특이할 만한 일로 이세진·신흥연 스님에 의해 개별적으로 제창된 신불교운동을 들 수 있다. 열악한 시대환경 속에서도 불교의 자립적 활로를 모색했던 대안(代案) 운동으로써 선농(先農) 불교운동이 일어난 것이었다. 내장선원의 백학명 스님의 손상좌로 그 영향을 받은 이세진 스님은 1942년 서관음사를 창건하였다. 산간마을에 법당과 객실을 짓고 그곳에서 나는 흙으로 기와공장을 세워 사찰의 경제적 자주성을 도모한 것이었다. 신흥연 스님은 1934년 11월 백양사 함덕포교당을 창건하고 당시 어려웠던 함덕리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 분으로 알려져 있다. 영농환경이 열악한 함덕리의 지리적 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농사법을 보급하고 비파·시금치·무·호배추 등을 마을에 보급했으며 경내에서 밭을 일구며 농사법을 가르치고 마을의 청년들을 계몽하는데 앞장섰다.

원문상 스님은 혜화전문학교 출신으로 법정사 항일운동에 참가했던 방동화 스님의 민족운동사상을 이어받은 제자이다. 원문상 스님은 1927년부터 서귀포시 하원리에 소년명진회를 조직하고 야학을 실시하여 자력갱생·문맹퇴치·민족정신 등을 고취시키는 계몽운동을 펼쳤으며, 중문중학원에서 교사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또한 1945년 12월에 열린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에서 임시집행부 부의장 및 의장대표를 맡아 대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중앙교무회와의 연계를 추진하는 등 제주교구 설립과 불교혁신운동에 적극 나섰던 인물이다.

하지만 해방 후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제주승려들은 적극적으로 사회상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4·3사건으로 희생되었다.⁵⁵⁾ 이세진 스님은 1948년

55) 4·3사건의 시기는 1947년 3·1절 발포사건으로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죽지역 전면 개방까지이다. 4·3사건 발발 이후 6·25전쟁 휴전 다음해까지 제주에서의

봄 입산하여 무장대로 활약하다 수장(水葬) 당하였으며, 신흥연 스님은 토벌대에게 총살되었고, 원문상 스님은 예비검속되어 처형되었다. 이들 스님들의 희생과 함께 제주불교의 새로운 시도는 모두 좌절되어버렸다.

1945년 해방을 맞이한 제주불교는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자체적으로 친일을 반성하고, 제주불교 교무원을 구성해냄으로써 이후의 활동방향을 결정하였다. 일제강점기를 지내오면서 왜곡된 불교풍토를 정화하고 의식의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불교활동을 펼치겠다는 희망을 승려대회로 모아냈던 것이다.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는 1945년 12월 2일과 2일 관음사 포교당인 대각사에서 개최되어 50여 개 사찰에서 67명이 참가하였다. 제기된 의안으로는 우선 ‘건국정신 진작의 건’으로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하여 제주사회와 함께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고, 둘째로 ‘사찰정화에 관한 건’으로 일본 불교의 영향인 승려의 대처와 육식문제, 내연 화주와의 사찰 내 동거를 절대 금지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밖에 불교강원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 하겠으며 ‘모범 총림’의 창설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의식을 개혁’ 하여 전통불교사상에 걸맞게 정비해나갈 것이며 ‘법려의 품위향상’을 위해 더욱 반성하고 노력할 것도 결의하였다. 승려대회를 통해 제주불교는 그간의 염원을 모두 쏟아내고 있었

4·3사건과 한국전쟁은 길고도 힘든 시기였다. 모스크바삼상회의의 신탁통치나 단독정부수립 등으로 인한 시대적 갈등은 제주에서도 같은 양상으로 나타났다. 외세를 물리치고 자주적 국가를 건설하려했던 움직임들이 3·1절 기념 투쟁을 기점으로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미군정과 우리 정부의 통치의 문제점으로 인해 4·3사건이 발발했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점차 내전의 양상으로 바뀌어, 결국은 좌익과 우익이라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포장되어버리면서 6·25전쟁으로 이어져 큰 피해를 남기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4·3사건을 좌익파의 싸움이었다고 기억한다. 이는 사건발생의 원인을 잊어버리고 사건 전개과정에서 강자에 의한 왜곡된 의도만을 기억하고 있는 결과이다. 『전통사찰총서21-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pp.311~349.

던 것이다.

승려대회로 구성된 제주불교 교무원에는 제주의 병항쟁의 주역인 김석운 스님과 무오 법정사 항일항쟁에 참여한 방동화·오인석 스님 등이 원로로 추대되었고, 이일선·원문상·오이화 스님 등 제주불교의 인물들은 모두 참여하였다.

제주불교는 4·3사건으로 종교활동 자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시련을 겼어야 했다. 제주불교 교무원은 4·3사건의 발발 원인이었던 3·1사건의 희생자 유가족 조위금 모집에 조위금을 모아 기탁하였다. 또한 이일선 스님은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활동을 비롯하여 ‘제주도 민주주의 민족전선’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였고, 이세진 스님은 입산하여 무장대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제주불교는 제주사회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상당한 것이었다. 산간지역이나 인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있었던 사찰은 피해가 더욱 심하였다. 사찰은 거의 대부분 폐허가 되거나 소각되어, 관음사·법화사를 비롯한 제주도 내 주요 사찰이 거의 모두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지거나 철거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소개령에 의해 이전되었던 사찰들은 오랫동안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다른 장소를 구해 이전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래서 고운사·귀이사·백양사 북촌포교소·서관음사·소림사·은수사·호촌봉 암자는 폐사된 이후 현재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있다.

4·3사건으로 제주불교는 불교활동의 가장 기본조건인 사찰과 인물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 근대 이전의 황무지로 되돌아가버렸다.

제주불교사는 곧 제주의 역사이다. 제주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전래되어온 불교는 제주도 사람들의 희망과 어려움을 함께 호흡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긴 여정의 고단함은 곧 제주민의 삶의 애환이었으며 제주불교의 험난함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길고도 험난한 아픔을 이겨낸 제주불교는 현재 250여개 사찰의 활동으로 제주사회의 베품목이 되고 있다.⁵⁶⁾

III. 제주도의 사찰과 불교미술

1. 사찰

1) 고대사찰

조선시대의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제주도의 사찰은 1530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존자암, 월계사, 수정사, 묘련사, 문수암, 만수사, 해륜사, 강림사, 보문사, 서천암, 소림사, 관음사, 영천사, 법화사, 성불암 등 모두 15개이다. 1651년 이원진의 『탐라지』에는 당시 현존하는 16개 사찰과 4개 폐사지를 싣고 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비교해본면 안심사, 원당사, 돈수암, 굴사, 꽈지사 등 5개 사찰이 더 기록되어있다. 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사찰이 더 신축되었다고 보기是很 어렵고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찰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밖의 기록들에서 기준의 사찰의 쇠락한 모습이 간간히 묘사되고 있는데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있다. 존자암의 경우도 중간에 여러 번 세웠다 폐하였다고 『남사록』(1602년)에 전한다. 두타사는 임제가 쓴 『남명소승』(1577년)에만 나오며, 김상현이 들렀다는 성산성에서 이경록 목사 때 지은 『성안의 절』(1597년 전후)도 다른 기록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김상현은 『남사록』에서 영천암과 강림사가 폐사되었으나 초가 몇 칸이 남아있다고 하였는데, 이원진은 『탐라지』(1653년)에서 이들을 잔여 사찰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찰의 규모나 명성 등에 관한 기록자의 관심여부에도 달려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원진은 『탐라

56) 『전통사찰총서21-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pp.311~349.

지』에서 법화사를 폐사로 분류하면서 초암 몇 칸이 남아있다고 기록하였다. 이와 같이 기록자의 보는 시각에 따라 혹은 여행자의 방문지나 사찰 규모에 따라 기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16세기 중반부터 제주불교는 쇠퇴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비보사찰의 폐지 등 국가지원중단과 15세기 이후 경제사정의 어려움, 그리고 목사들의 탄압에 의해 제주의 사찰들은 점차 그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사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 불교중흥을 꾀하던 허옹 보우(虛應普雨, 1509~1565)스님이 1565년 제주로 유배와 어도봉에서 변협(卞協)목사에 의해 장살(杖殺)당하였고, 1565~1568년 사이에 제주에 머물렀던 곽흘(郭屹)목사에 의해 불상과 사찰이 훼철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제주승려들의 삶도 힘들었던 것 같다. 『남사록』에 보면, “머리카락 깎고 승려가 된 자도 관가에서는 승려나 속인이나 불문하고 모두 병역을 치르도록 한다. 대오 가운데는 머리카락 깎은 자가 많다.”고 하였다. 또 이증(李增, 1628~1686)은 『남사일록』(1680년)에서 “연무정시재에 나가 무사를 맵았는데, 입격자는 중군(中軍) 강성좌 이하 출신 6명, 한량(閑良) 86명, 사노(寺奴) 11명, 사노(私奴) 1명, 합 104명이다.”라는 기록을 남겼다. 이로 미루어보아 사찰의 승려와 노비들이 군대의 병력으로 동원되는 어려운 생활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680년에도 사찰이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사찰운영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조선시대 중기 불교는 외형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으나 임진왜란의 국가위기를 이기는데 활약한 승려들의 활동에 힘입어 이후 사찰의 중흥이 일부나마 이루어졌고, 불상과 불화 등의 불교문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존자암을 비롯한 제주도 사찰의 부침도 이러한 시대상황과 같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제주의 고지도를 통해 제주도의 사찰을 살펴보면, 1700년대 무렵에 제작된 『탐라전도(耽羅全圖)』에 강림사, 만수사, 해륜사, 월계사, 서천암, 존자암, 법화사, 성불암, 영천암의 9개 사찰이 실려있다. 『조선강역총도(朝鮮疆域摠圖)』에도 법화사, 영천사, 성불암, 묘련사, 수정사, 소림사, 존자암, 문수사, 만수사, 강림사의 10개 사찰이 표시되어 있다.

1750년 무렵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에 나오는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는 해륜사, 대천사 그리고 존자암 3곳이 기록되어 있다. 더욱이 1800년대 후반 김정호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그릴 때 저본으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여도(東輿圖)』에는 수정사와 수행굴이 표시되어 있다.

1702년 제주 목사를 지낸 이형상은 제주도에 사찰이 없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를 지도를 보면 1700년대 이후에도 제주도에는 몇몇의 사찰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653년 이원진의 『탐라지』에 기록된 15개의 사찰,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1702년 이형상의 기록, 그리고 1750년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에 나타난 10개의 사찰 등, 이러한 기록들 간의 차이는 기록자의 관심도 또는 제작목적 등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 또한 당시의 제주불교의 모습이었던 것이 사실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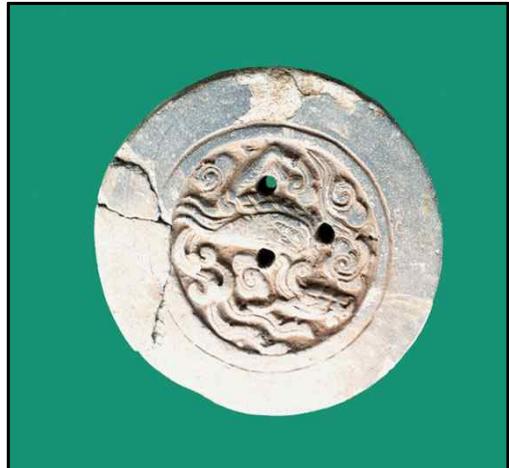
이러한 옛 기록에 나오는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승려는 있으나 사찰은 퇴락하여 겨우 명맥을 잊고 있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 또는 쇠탁한 사찰의 건물만 남아있고 승려가 없는 시기가 있기도 하다. 또한 이형상의 『남한박물』에 나오듯이 승려 없이도 이루어지는 사찰의 예술형태가 전해지기도 한다. 기록상 사찰의 중감은 바로 기록자 당시의 이러한 사찰의 사정에서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부임해 온 관리들의 탄압강도에 따른 활동의 정도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리라 짐작된다. 어쨌거나 조선후기 사찰의 부침은 끊임없었고 그 활동도 아주 어려웠음을 분명하다.

제주도에 있었던 많은 사찰 가운데 기록과 발굴조사를 통해 고대사찰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법화사와 존자암이다.

(1)법화사지⁵⁷⁾



[圖 3] 법화사지 발굴지



[圖 4] 법화사지 출토 운봉문 기와



[圖 5] 법화사 전경(현재 대웅전)

57)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3호(1971.8.26.).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1071. 문화재청

법화사는 12~15세기에 제주도에서 번창했던 절이다. 18세기 전기에 제주목사 이형상이 제주도의 절 3곳을 불태워 없앨 때 완전히 불타버렸으며, 지금의 건물들은 1987년 다시 세운 것이다. 현재의 법당 자리에서 금당지로 보이는 건물터가 발견되었는데, 앞면 5칸·옆면 4칸에 면적이 약 100평인 대규모 건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법화사는 건물 기단의 바닥돌이 2단으로 되어있고, 면석의 기법이 특이하며, 출토된 도자기와 기와조각 등으로 보아 10세기~12세기 경 지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 규모가 매우 큰 절로 제주도 3대 사찰 중 하나인 중요한 유적이다.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법화사(法華寺)가 언제 창건되었다가 또 언제 폐사되었는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대정현 동쪽 45리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조선 태종 6년인 1406년에 ‘명나라 사신이 제주도 법화사 아미타삼존불상을 황제의 칙명으로 요구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당시 명나라 황제는 자기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모실 불상을 구하고 있었다. 그때 신하 중 한 사람이 원나라 때 양공이란 사람의 말에 “제주도 법화사에 있는 불상이 좋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태종은 이 불상을 나주로 옮겼다가 명나라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한다. 그 불상을 담은 감실의 높이와 폭이 각각 7척이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좌대를 제외한 불상의 높이가 6척도 넘었을 것이라 추정된다.

여러 가지 기록들을 기반으로 법화사는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할 당시에 세운 황실의 원찰일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온다. 또는 해상왕 장보고가 중국에 법화사를 세우고서 제주도에도 세웠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⁸⁾

조선 태종 8년인 1408년에 “제주도에 있는 법화사와 수정사의 노비가 각각 280명, 130명으로 다른 절의 예에 비추어 많은 숫자이니 각각 30명

58) 『법화사지』, 서귀포시, 2006.

씩만 두게 하자.” 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효종 4년인 1653년에 이원진이 편찬한 『탐라지』에는 “법화사는 대정현 동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고 실려 있다. 그 기록을 보면 그 이전에 폐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탐라지』에 “그 절의 터와 나한전의 터를 보니 주춧돌과 계단 섬돌을 크고 잘 다듬어진 돌을 사용했다. 전성 시에는 굉장히 절이었음을 상상할 수 있다. 지금은 단지 초가 암자 몇 칸이 있고, 서쪽으로는 물맛이 단 샘물이 있어서 절 앞에 있는 논에 물을 대고 있다”고 실려 있다. 폐허가 되었던 법화사가 다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은 4·3항쟁으로 중산간 일대 마을이 불에 타 윤곽이 드러나면서였다. 1980년부터 발굴을 시작했는데 고려 때 지은 대웅전은 정면 5칸에 측면 4칸의 백 평 규모였고, 건물 앞에 펼쳐진 월대가 개성에 있는 고려 궁전의 만월대(滿月臺)와 비슷했다고 한다. 발굴 당시 발견된 운룡문(雲龍文)이 새겨진 수막새도 만월대의 것과 비슷했다고 하니 그 당시 법화사의 사세(寺勢)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이곳 법화사를 찾았던 혜일(慧日)스님의 시 한 편이 남아 있다.
법화암(法華庵) 가에 물화(物華)가 그윽하다. 대를 끌고 솔을 휘두르며 홀로 스스로 논다. 만일 세상 사이에 항상 머무르는 모양을 묻는다면, 배꽃은 어지럽게 떨어지고 물은 달아나 흐른다. 그의 시에 나오는 ‘법화암반물화유(法華庵灘物華幽)’를 유추하여 절 앞마당을 발굴했다. 그 결과 극락정토를 상징하는 구품연지, 즉 연화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예는 경주의 불국사나 전북 익산의 미륵사지밖에 없다고 한다. 현재는 대웅전과 몇 채의 건물, 그리고 연지가 잘 조성되어 있다.⁵⁹⁾

59) 신정일,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7 : 제주도』, 다음생각, 2012.

(2) 존자암지⁶⁰⁾



[圖 6] 존자암지



[圖 7] 존자암지 전경(현재 대웅전)

『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등의 문헌에 나한을 모셨던 절로 기록되어 있는 절터이다.⁶¹⁾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로 인간의 소원을 빨리 성취시켜 주는 복전(福田)이라 하여 일찍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큰 절에는 대부분 영산전을 두어 석가의 10대 제자를 비롯하여 16나한, 500나한 등을 봉안하고 있으며 나한전이나 응진전을 따로 둔 절도 있다.

1990년대의 발굴조사에서 건물지, 부도, 배수시설과 기와조각, 분청사기 조각, 백자파편들이 발견되었으며, 1998년부터는 복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절을 세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건물지 북쪽에 있는 부도(제주도 유형문화재 제17호)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⁶²⁾

서귀포시 하원동 영실 부근에 위치한 존자암은 『동국여지승람』과

60)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3호(1995.7.13.). 제주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문화재청

61) 『東國輿地勝覽』佛宇, 尊者庵 ‘在漢拏山西嶺其洞有石如僧行道狀設傳修行洞’ .

62) 『尊者庵址』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 1996.

『탐라지』 등의 문헌에 나한을 모셨던 절로 기록되어 있다. 한라산 해발 1280미터 지점 속칭 ‘볼래오름’ 중턱에 터만 남아 있다가 2002년 11월 복원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린 존자암의 기록을 보면, “존자암(尊者庵)은 한라산 서쪽 고개에 있다. 그 골짜기에 돌이 있는데 마치 중이 도를 닦는 모양 같다. 속설에 전하기를 수행동이라고 한다.” 1991년 즈음부터 제주 지역의 불교계와 일부 학자들은 한반도의 불교문화가 제주도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고려대장경』 제30권 ‘법주기’에 실린 아래의 기록이다.

“부처님의 16존자(제자) 가운데 6번째 발타라 존자가 탐몰라주에 머물렀다.” 탐몰라주는 제주의 옛 이름이고, 절터가 남아 있는 존자암은 당시의 사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존자암터는 1993년부터 1994년까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때 건물지.부도.배수시설.기와.편.분청사기편.백자편 등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다.⁶³⁾

존자암에 대해 글을 남긴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조선시대의 문신인 홍유손이 1490년경에 지은 『소총유고』에는 “존자암은 3성이 처음 일어났을 때 만들어져서 3읍이 정립된 후까지 오래 전하여 왔다. 4월에 점을 치고 좋은 날을 택하여 3읍의 수령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이 암자에서 목욕재계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였고, 이를 국성재(國聖齋)라고 한다. 지금은 그 제사를 폐한 지 8, 9년이 된다”라고 실려 있다. 그 뒤를 이어서 이곳을 찾았던 사람이 김상현이다. “존자암은 지붕과 벽이 흙과 기와가 아닌 판잣집이며 9칸 집이다. 존자암 근처에는 20여 명이 들어갈 만한 수행굴이 있고, 옛날의 고승 휴랑이 머물던 곳이라고 한다”고 한 뒤에 “오직 존자암의 스님들만이 쳐를 거느리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남사록』에

63)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 1996.

실린 글을 보면 제주의 다른 절들의 중들이 대부분 처를 거느리고 살았던 것과 달리 이 절은 수행하는 스님들이 머물렀던 절임을 알 수 있다.

제주판관을 지낸 김치(金緻) 글에는 “존자암에서 수정(修淨)스님을 만났다. 영실이 원래 존자암 터다. 영실 동남쪽 산허리에 수행굴이 있는데, 부서진 온돌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구절이 있다. 또한 1694년에 제주목사였던 이영태가 지은 『지영록』에도 “원래는 영실에 있었으나 지금의 자리로 옮겨졌다. 존자암이 있던 폐사지에는 계단과 초석이 아직도 완연하게 남아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지금의 영실휴게소 부근이 존자암의 옛터였을 듯싶다. 이형상 목사는 “대정 지경에 유일하게 존자암이 있는데, 초가 몇 칸만 남아 있고 스님은 살지 않는다. 다만 임금의 명을 받든 사신이 한라산에 오를 때 자고 쉬어갈 뿐이다”고 존자암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제주도에서 유일한 부도라고 알려진 석종형 부도가 절의 맨 위쪽에 있다. 이 절에서는 그 부도를 두고 석가모니 진신사리탑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와 다른 견해도 만만치 않다. 부도의 생김새로 볼 때 조선 전기의 부도로 추정되는 탓이다. 제주 불교의 중심지였다가 파괴되고 황폐화된 뒤 다시금 중창되고 있는 절이 존자암이다. 이 절을 두고 이경역은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다.⁶⁴⁾

“존자암은 유명한 절로 알았더니
이제 보니 황폐하여 쓸쓸한 옛터일세.
한 방은 두어 개 서까래만 남아 있네.
바다 나그네가 지나가는 이 별로 없고,
남쪽 지방 스님은 예불이 어색하다.
가을 하늘의 노인성을 바라보니
속세 생각 이미 사라지네.”

64)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 7 : 제주도』, 다음생각, 2012.

2) 현존사찰

제주도의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에 등록된 사찰 수는 53개 소에 이른다.(2014년 3월)⁶⁵⁾ 제주시에 21개, 북제주군 14개, 서귀포시 11개, 남제주군 7개소이며 제주시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들 사찰은 근현대기에 설립되어 정확한 사력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옛 사지에 현대에 이르러 사찰을 창건하여 옛 사명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크게 조계종과 태고종 소속의 사찰이 주류를 이루고 제주도 내에서 태고종 소속의 사찰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표 1> 제주도 사찰 현황, <표 2> 지역별 문화재 현황 참조)

제주도에 현존하는 사찰 가운데에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38개 소이며 태고종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곳이 많은 편이다.(<표 3> 종단별 문화재 현황)⁶⁶⁾

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의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불상, 불화, 석조품 등 불교미술과 관련된 것들이며 대부분 조선시대와 근대의 것들이며 삼국, 통일신라, 고려시대의 유물은 찾아보기 어렵다.(<표 4> 사찰소장 문화재의 유형별 현황, <표 5> 시대별 문화재 현황 참조)

제주도 전역의 사찰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를 지역별로 그리고, 사찰별로 문화재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현황을 계량화하여 제시하였다.⁶⁷⁾ (<표 6> 사찰·유형별 통계 참조)

65) 『제주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2008. 부록 참조하여 작성한 것임.

66)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문화재청, 2003. 부록 참조

67) 사찰소장의 문화재로 유형별로 분류 및 제시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찰문화재 조사에서 보고 확인된 것이다.

<표 1> 제주도 사찰 현황

지역	종단 조계종	태고종	기타 종단	문화재 보유사찰수 (‘*’)
서귀포시	남국선원, *법화사, *불광사, 월라사, *존자암	*광명사, *구룡사, *선덕사, *원만사, *정방사, 혜광사		8
제주시	*관음사, 관음정사, 보덕사, *불탑사, *원명선원, *월정사, 용화사, *제석사, 죽림정사, 천룡사, 천왕사, 흥룡사	*광명사, *백우정사, *보림사, *사라사, *성광사, *원당사, *정광사, *충혼각, *화천사		14
남제주군	관통사, *서산사	*남안사, *동암사, *복천사, *선풍사, *영산암		6
북제주군	*고관사, *금룡사, 백련사, 불사리탑사, 연봉사, *월성사, *월인사	*개볍사, *금강사, *금봉사, *덕림사, *본원사, *월영사	보문사	10
계	26	26	1	38

<표 2> 지역별 문화재 현황

지역	서귀포시	제주시	남제주군	북제주군	합계
점수	151	245	243	112	751
%	20.1	32.6	32.4	14.9	100

〈표 3〉 종단별 문화재 현황

종단	조계종	태고종	기타	합계
점수	143	607	1	751
%	19.1	80.8	0.1	100

〈표 4〉 사찰소장 문화재의 유형별 현황

유형	조각	불화	공예	탑, 석조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합계
건수	35	12	4	15	0	0	0	8	268
점수	46	12	7	15	0	0	0	9	751
%	6.1	1.6	0.9	2.0	0	0	0	1.2	100

〈표 5〉 시대별 문화재 현황

시대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	근대	기타	합계
점수	0	0	5	628	114	4	751
%	0	0	0.7	83.6	15.2	0.5	100

<표 6> 사찰·유형별 통계

지역	사찰	조각	불화	공예	탑 석조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합계
서귀포	광명사	1								1
	구룡사	1								1
	법화사				4					4
	원만사	1								1
	정방사	1		4						5
	존자암				1					1
소계	6	4	0	4	5	0	0	0	0	13
지역	사찰	조각	불화	공예	탑 석조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합계
제주	관음사	1	1							2
	광명사			1					4	5
	백우정사	1								1
	보림사	1								1
	불탑사		3		1					4
	사라사		1							1
	성광사									0
	원당사	3	1	1	7				1	13
	원명선원	1								1
	월정사	2	2							4
	정광사	1								1
	제석사				1					1
	충혼각	1							2	3
	화천사	5								5
소계	14	16	8	2	9	0	0	0	7	42

지역	사찰	조각	불화	공예	탑 석조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합계
남제 주군	남안사	3								3
	동암사	1								1
	복천사	1		1					2	4
	불광사									0
	서산사	4								4
	선광사	1								1
	영산암	5								5
소계	7	15	0	1	0	0	0	0	2	18

지역	사찰	조각	불화	공예	탑 석조	서예 현판	복식	경판	기타	합계
북제 주군	개볍사	1								1
	고관사	1	1							2
	금강사	4								4
	금룡사	1								1
	금봉사		1							1
	덕림사	1								1
	본원사				1					1
	월성사	2	1							3
	월영사	1								1
	월인사		1							1
소계	10	11	4	0	1	0	0	0	0	16

제주도의 사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가운데 문화재의 가치정도를 심의하여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국가지정 1건, 제주도 유형문화재 4건, 제주도 기념물 2건, 문화재자료 3건 등이다. 사찰소장 문화재의 수량에 비해서는 지정문화재 수량이 적은 편인데, 이것은 근현대기에 초·중창된 제주도 사찰의 상황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이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되어있고, 각 사찰에 봉안되어있는 조선시대 후기의 불상과 경전류 등이 제주시 문화재로 지정되어있다.(<표 7> 제주도의 불교문화재 지정현황 참조) 불상은 사찰에서 경배의 대상으로 가장 중요시되며, 우리나라 불상들은 제작시기와 제작자 등에 따라 개성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불교미술의 양식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의 불교미술은 탑파와 불상 작품을 중심으로 그 개별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⁶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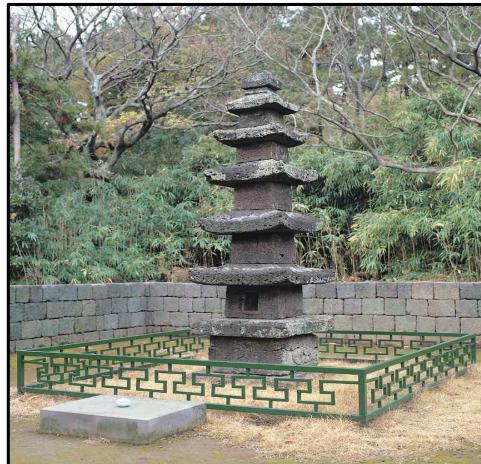
68) 제주시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되어있는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불좌상은 최근 문화재적 가치판단에 의문이 제기된 언론보도가 있었던 바, 본고에서는 불상작품의 특징에 서 다루지 않고자 한다.

<표 7> 제주도의 불교문화재 지정 현황(2014년 9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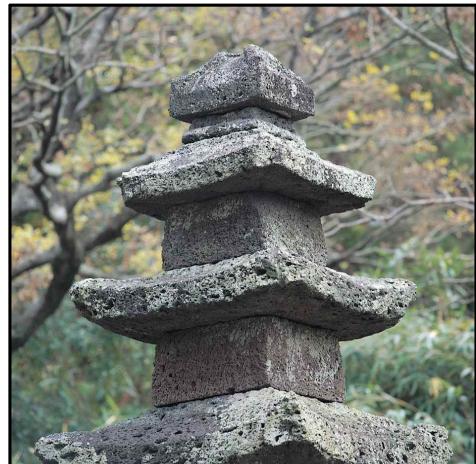
종목	지정	명칭	수량	소재지	시대
보물	1187호	제주불탑사오층석탑	1기	불탑사	고려
유형	16호	관음사목조관음보살좌상	1기	관음사	조선
	17호	존자암지세존사리탑	1기	존자암지	고려
	18호	보림사목조관음보살좌상	1기	보림사	조선
	19-1호	선덕사소장 대자암판묘법연화경 권3~4	1책	선덕사	조선
	19-2호	선덕사소장 화암사판묘법연화경 권4~7	1책	영원사	조선
	19-3호	선덕사소장 갑인자복각묘법연화경 권1~2	1책	선덕사	조선
	20호	서산사소장 목조보살좌상및복장일괄	1기	서산사	조선
	21호	선광사소장 목판본류 등 불경전적일괄	전적59종164책	선광사	조선
	22호	남국선원소장 목판본류불경전적	4종4책	남국선원	조선
	23호	정방사소장 석조여래좌상및복장유물일괄	일괄	정방사	조선
	24호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1기	월계사	조선
	25호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1기	삼광사	조선
	26호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기	용문사	조선
	31호	쌍계암 묘법연화경	7권7책	쌍계암	조선
문화재	4호	월정사소장 불상(이조여래좌상)	1기	월정사	조선
	4-2호	월정사소장 불상(목조보살입상)	1기	월정사	조선
	6호	월영사소장 목조여래좌상	1기	월영사	조선
	7호	보덕사소장 목조여래좌상	1기	보덕사	조선
	8호	선덕사 대적광전	1동	선덕사	현대
	9호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1기	원명선원	조선
	11호	선운정사 석조약사여래불좌상	1기	선운정사	미상
기념물	13호	법화사지	일원	법화사지	고려
	43호	존자암지	일원	존자암지	조선

2. 탑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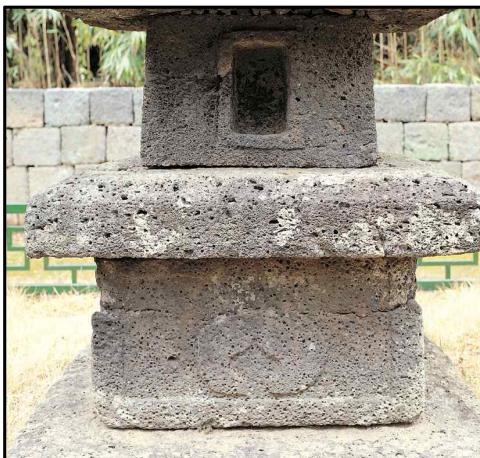
1)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濟州 佛塔寺 五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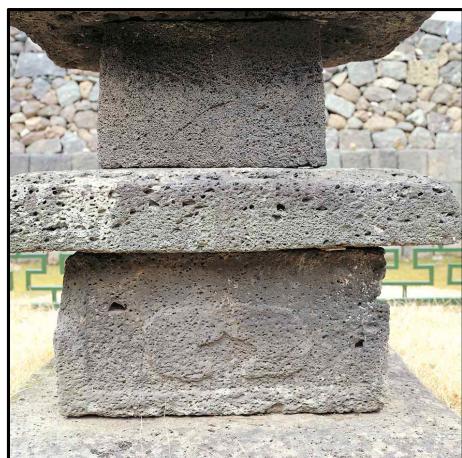
[圖 8]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圖 9] 제주 불탑사 탑신상륜부



[圖 10]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탑신부



[圖 11] 감실 및 기단 면석 문양

원당사의 옛 터⁶⁹⁾에 세워져 있는 석탑이다. 원당사는 조선 중기에 폐지되었고, 1950년대 이후 절터에 새로이 지어진 불탑사가 대신 자리 잡고 있다. 탑은 1단의 기단(基壇) 위로 5층의 탑신(塔身)을 두고, 머리장식을 얹어 마무리한 모습이다. 탑 주변에는 돌담이 둘려져 있다. 기단은 뒷면을 뺀 세 면에 안상(眼象)을 얇게 새겼는데, 무늬의 바닥선이 꽃무늬처럼 솟

69) 원당사(元堂寺)는 제주시 삼양1동 696번지에 있었던 사찰이다. 창건연대와 훼철연대는 알 길이 없으나 1653년(효종4)에 쓴 이원진의 『耽羅志』에 ‘在州東二十里’라고 기록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까지는 훼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당사는 연구 1300년(충렬왕26)에 창건되었으며, 원나라에 의해 창건되었다. 법화사, 수정사와 같이 『朝鮮王朝實錄』에는 보이지 않고 『耽羅志』·『耽羅紀年』에서도 원찰(元刹)이라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창건의 동기가 원나라 기황후의 지시에 의하였다는 내용의 전승과 원당(元堂)이라는 사찰의 이름도 원나라와 모종의 관련이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현재의 원당사지에는 원당 불탑사라는 조계종파의 근대사찰이 들어서 있다. 불탑사는 1914년 안봉려관 스님과 안도월 스님에 의해 창건된 후 4·3사건으로 폐허된 것을 1953년 이경호 스님이 재건한 절이다. 현재 법당과 요사 및 기타 4동의 건물이 지어져 있다.

원당사지에 대한 조사는 1988년과 2004년에 이루어졌다. 1988년 조사는 지표조사의 성격으로 사역 내의 일부 구역에 국한하여 트렌치조사를 실시하였다. 트렌치조사에서는 명확한 유구의 확인은 없었으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상당량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특징적 유물은 8엽연화문수막새, 14엽연화문수막새, 일휘문암막새, 명문기 와류, 기타 도자기류 등이 확인되었다. 이 조사를 통해 정확한 가람배치나 절의 규모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하고, 단지 주춧돌을 비롯한 석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사역이 많이 훼손되었으며, 유물이 분포하는 정황으로 봐서는 과거의 사역과 현재 사찰의 사역이 상당부분 중첩되지 않았을까 하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법화사, 존자암, 수정사 등 일련의 사지 발굴조사를 통해 정비계획에 의한 복원과 잠재적인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원당사지의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3년의 발굴조사는 원당사지의 사역을 확인함과 동시에 탑지 주변에 대한 발굴을 통해 사찰의 중심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이를 위해 현 원당불탑사의 북쪽 능선상의 사면과 오층석탑 주변, 오층석탑 동편 경작지에 대한 발굴을 실시하였다. 발굴 조사 결과 과거 원당사 사역의 동쪽 경계석으로 짐작되는 담장이 확인되었고, 담장 안쪽으로는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내부의 적십축조수법으로 보아 3차에 걸쳐 중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연구의 와편과 청자, 조선시대의 도자기류 등이다. 『전통사찰총서21-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pp.457~459.

아나도록 조각하였다. 탑신의 1층 몸돌 남쪽면에는 감실(龕室:불상을 모셔두는 방)을 만들어 놓았다. 지붕돌은 윗면의 경사가 그리 크지 않지만, 네 귀퉁이에서 뚜렷하게 치켜 올려져 있다. 꼭대기에 올려진 머리장식은 아래의 돌과 그 재료가 달라서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전체적인 탑의 모양이 조형성이 적고 무거워 보이는 점으로 보아 지방색이 강했던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⁷⁰⁾

불탑사는 원래 원당사라는 연구 절터에 세워진 절이다. 불탑사 오층석탑은 ‘원당사터 오층석탑’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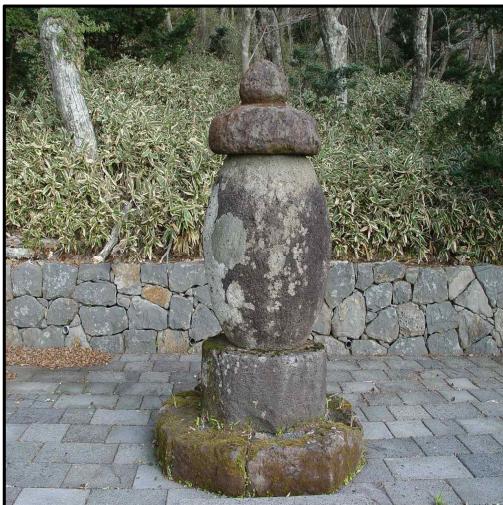
전형적인 고려시대 오층석탑으로 한눈에 보기에도 훤칠한 인상을 줄 정도로 좁고 가늘게 올라갔다. 기단부가 좁고 5층의 탑신이 심하게 좁아져서 아주 가냘픈 인상을 주며 지붕돌의 네 귀퉁이 끝이 살짝 들려 경쾌한 느낌을 더한다. 기단은 뒷면을 뺀 세 면을 안상을 얇게 새겼는데, 무늬의 바닥선이 꽃무늬처럼 솟아나도록 조각했다. 탑신의 1층 몸돌 남쪽 면에는 불상을 모시는 감실을 만들었고 특별한 장식을 두지 않은 간략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통일신라가 삼층석탑의 시대였다면 고려시대는 다층탑으로 변한 것이 특색인데 그 중 많은 것이 오층석탑이다. 부여 무량사 오층석탑처럼 중량감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서산 보원사 오층석탑처럼 정연한 차례줄임이 멋스러운 것도 있는데 이 불탑사 오층석탑은 진도 개골산의 오층석탑과 비슷한 인상으로 좁은 체형에 큰 키의 훤칠한 몸맵씨를 자랑하고 있다.

전해지기로 원당사는 원나라 순제의 기황후가 발원한 절이라고 한다. 원나라 원(元)자를 써서 원당사(元堂寺)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게 사실이라면 소원할 때 원자를 써서 원당사(願堂寺)라고 해야 맞다.

70) 보물 제1187호(1993.11.19.지정), 문화재청 @ 문화유산정보.

원당사는 세 번의 화재로 소실되었다고 한다. 조선 효종 4년(1653)까지는 존속했지만 숙종 28년(1702)에는 마침내 훼철되고 석탑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그 후 1714년에 다시 중건되었는데 그때 이름을 불탑사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 이름은 뭔가 잘못 지은 것 같다. 탑은 곧 불탑이라고 절마다 불탑이 있는데 왜 이런 원론적인 이름을 지었을까. 아마도 권위 있는 절이라는 점을 내세웠던 것이 아닌가 싶다. 주변에 당이 많으니까 불탑을 강조한 점, 아니면 고려시대 불탑을 모시고 있는 절쯤으로 좋게 해석해줄 수도 있겠다. 이후 4·3사건을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다가 근래에 와서 중창을 보게 된 것이 오늘의 절이다. 현재의 불탑사는 조계종 사찰인데 그 앞에는 원당사라는 태고종 사찰이 들어서 있어서 초행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2) 존자암지 세존사리탑(尊者庵址世尊舍利塔)



[圖 12] 존자암지 세존사리탑



[圖 13] 존자암지 사리탑 발굴 사진

존자암지 세존사리탑은 존자암지⁷¹⁾의 경내에 있다. 이 세존사리탑은 제주현무암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지대를 단단히 다진 후 8각형 기단을 구축하여 그 위에 괴임돌을 놓고 탑신을 얹어 옥개석을 동일석으로 만들었다. 탑신석은 석종형(石鐘形)에 속하나 장구형(長球形)으로 상·하를 평평하게 다듬었으며 중앙부로부터 상·하단에 이르면서 유여한 곡선미를 보이고 있다. 옥개석 형태는 하면은 평평하나 낙수면이 제주 초가지붕 형태로 부드러운 곡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위에 조성된 보주 또한 세련된 조각미를 연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옥개석과 보주를 같은 돌로 다듬은 예가 없을 만큼 그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팔각으로 이뤄진 하대석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팔각원당형(八角圓堂形) 사리탑의 기본양식을 계승하고 있으며 괴임돌에 사리공을 마련하고 장구형 탑신석 위에 옥개석을 덮어 정상에 보주를 장엄한 양식 등 각부의 다듬은 모양과 건조수법으로 보아 건조연대는 고려말 조선초로 추정된다.⁷²⁾

71) 존자암은 『동국여지승람』과 『탐라지』 등의 문헌에 나한을 모셨던 절로 기록되어 있는 절터이다. 1993년과 1994년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의 면적은 동서 40m, 남북 80m이다. 건물지는 모두 5동이 확인되었으며, 시기적으로는 두 번에 걸쳐 존속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이 자리한 지형은 원래 심한 경사면이어서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크게 4단의 석축단을 쌓고 그 대지 위로 사찰이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지 외에도 부도, 탑지추정지, 국성재단, 석축시설, 敷石시설, 積石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二月修正禪師大夫金仲光’, ‘萬戶兼牧使奉翊大夫’, ‘天丑開啓’ 명 기와 및 각종 기와류, 청자류, 분청사기, 명문백자 등이다. 청동제신장상과 청동개(青銅蓋)도 출토되었는데, 청동제신장상은 오른쪽에 칼을 들고 왼손을 허리를 짚고 있는 형태이다. 하반신 아래는 남아있지않아 정확한 도상을 알 수 없으나 사리장엄구의 표면장식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사찰총서21-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pp.462~463.

이 절을 세운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건물지 북쪽에 있는 부도가 남아있다. 존자암지(尊者庵址)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하원동 산1-1 일원이며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43호(1995.7.13.)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으며, 최근 존자암지에는 금당과 요사 및 부동 등이 신축되거나 복원되어 스님이 상주하며 법맥을 이어가고 있다.

72) 2003년 봄에 정비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7호(2000.11.1.), 문화재청@문화유산정보.

존자암의 창건 연대를 살펴보면 “존자암은 高·梁·夫 三姓이 처음 일어났을 때 비로소 세워졌다”고 충암 김정은 존자암중수기(--夫尊者之爲庵 肇造於三姓初起之時 而久傳於三邑鼎峙之後--)에서 밝히고 있다. 세존 사리탑에 관한 자료는 1650년(효종2년)에 안핵어사로 왔던 李慶億의 詩에 “千年孤塔在 천년을 지나온 탑 외로이 서 있는데”라고 사리탑을 敬畏하였다.

존자암에 대한 문헌기록은 『新增東國輿地勝覽』에 처음 나타난다.
「在漢拏山西嶺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謬傳修行洞」⁷³⁾이라고 전한다. 즉 존자암은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그 곳 동굴에 마치 스님이 도를 닦는 모습과 같은 돌이 있어 세상에 수행하는 동굴[修行洞]이라 전해졌다는 것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은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자리서로 원래는 조선 성종12년(1481)에 편찬한 『東國輿地勝覽』을 중종25년(1530)에 증보하고 책명에 ‘新增’이란 두 글자를 첨가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리고 『東國輿地勝覽』 이후에 증보된 내용은 반드시 ‘新增’이라 하여 그 증보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존자암의 항목에는 ‘新增’이란 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東國輿地勝覽』 편찬 당시의 기록임을 알 수가 있다.

李元鎮의 『耽羅志』에는 존자암에 대한 기록이 두 곳에 나타나고 있다.
濟州牧 佛宇條의 尊者庵 夾注에는
「舊在漢拏山瀛室 其洞有石如僧行道狀 謬傳修行洞 今移西麓外十里許 卽大靜境也」

大靜縣 佛宇條의 尊者庵 夾注에는
「在漢拏山西麓 縣東六十里 寺東有泉 湧出流至百步許 伏流地中」이라 하였다.

73) 濟州牧, 佛宇條, 尊者庵, 來注.

즉 제주목조에서는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을 부연하여 존자암의 애초의 위치를瀛室이라 하였는가 하면, 지금은 서쪽 기슭에서 밖으로 10리쯤 뛰었는데 곧大靜 지경이라 하였다. 그리고 대정현조에서는 “한라산 서쪽 기슭에 있는데 대정현에서 동쪽으로 60리 거리이다. 암자 동쪽에는 샘이 있어 물이 솟는데 백보쯤 흘러 땅속으로 스며든다.”고 하였다. 이 기록을 보면 전자는 원래의 위치와 뛰긴 장소를 기록한 것이고 후자는 뛰긴 이후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이원진이 제주 절제사로 부임하여 재직했던 시기는 『觀風案』 등에 의하면, 효종2년(1651) 7월에서 효종4년(1653) 10월까지로 되어있고, 그가 『耽羅志』를 간행한 연도는 申纘의 발문에 ‘癸丑季秋上瀚’이라 하여癸丑年(효종4, 1653) 9월 上旬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존자암은 효종대 이전, 그 어느 시기에 그 위치가 영실(瀛室)에서 대정(大靜)으로 뛰겨진 것이 된다. 그리고 李源祚의 『耽羅志草本』濟州牧 古蹟條에는 제주도 내에 있었던 사찰이 지금은 모두 철폐되었다고 전제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찰들에 대한 종전의 기록들을 인용하여 고적조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발굴조사와 관련된 지역은 효종대 이전, 즉 17세기 중반 이전의 존자암의 터전인 샘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바로 효종2년에 安覈覈御使로 왔던 李慶億의 다음과 같은 시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尊者知名寺 荒涼半舊墟 千年孤塔在 一室數椽餘 海客經過少 蟻僧禮法疏
秋宵望南極 塵慮已全除」

“존자암이 이름난 절로 알았더니 황량한 반조각의 옛 터일세. 천년 묵은 탑은 외로이 서있는데 한 방은 두어 개 서까래만 남아있다. 海客이 지나가는 일 적으니 미개한 스님은 예법도 서툴다. 가을밤에 남극을 바라보니 속세의 걱정이 어느새 사라졌네.”

즉 “천년 묵은 탑은 외로이 서 있는데, 한 방은 두어 개 서까래만 남아

있다.” 고 하여 폐허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숙종28년(1702)에 제주 절제사로 부임했던 李衡祥의 『南宦博物』에서도

「(前略) 上有修行洞 洞有七星臺 坐禪巖云 是古僧八定之墟 其曰尊者菴」이라 하여 “위에는 수행동이 있고 동굴에는 칠성대가 있어 이를 좌선암이라 하는데, 이는 옛날 스님의 八定之墟로 이를 존자암이라 한다.” 고 하였다.

존자암이 언제 누구에 의해 건립된 암자인지에 대한 문헌기록은 없다. 다만 대장경 法主記의 제6존자 跋陀羅(Bhadra)가 9백명이나 되는 阿羅漢(나한)과 함께 나누어 살았다는 耽沒羅州를 제주도에 비정하여 마치 존자암이 跋陀羅 존자에 유래된 것 같이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跋陀羅가 범어 ‘Bhadra’의 음사[한역]인 이상 ‘耽沒羅州’도 범어의 음사일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이것부터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그 시기가 기원전의 이야기이므로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당시 인도 원시불교사의 충분한 문헌적 고증이나 고고학적 뒷받침이 없이는 위험한 발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당나라 현장(600~664)이譯出했다는 이 법주기는 불멸 후 800년에 이르는 사이에 獅子國(지금의 스리랑카, 錫蘭·錫崙 등으로 음역된다)의 大阿羅漢 難提蜜多羅 尊者에 의해 꾸며졌다. 즉 정법을 수호하려고 맹서한 16인의 아라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16인의 아라한은 넓은 의미로는 ‘영원히 이 세상에 머물면서 중생을 제도하는[정법을 지키는] 부처님의 제자들’이라는 뜻이다. 16아라한의 名字와 住處는 법주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서두에 「尊者告曰 汝等諦廳 如來先已說法住經 今當爲汝粗更宜說」이라 하여 “존자가 가르쳐 말하기를 너희들은 자세히 들으라. 석가여래께서는 앞서 이미 法主經[涅槃經]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간략히 다시 말하리라.”라고 하여 불설을 아라한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계속하여 「佛薄迦梵般辣涅槃時 以無上法 附屬十六大阿羅漢 幷眷屬

等 令其護持使不滅沒」이라 하여,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16아라한에게 불멸후의 불교호지를 부속하였다.”고 하였으며 부처님의 진리가 잘 지켜지는 정법기에는 불교를 지키고, 불교의 이상과 실현이 없는 말법기에는 「及勅其身與諸施主作眞福田 令彼施者得大果報」라 하여, “불교인들의 복전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열반과 과보를 얻게 한다.”는 것이다. 이 16나한에 대한 신앙은 중국·한국·일본 등지에서 7~8세기 이후 크게 성행하였다.

한편 冲庵 金淨의 『尊者庵記』(金尙憲의 『南槎錄』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夫尊者之爲庵 肇造三姓初起之時 而久傳三邑鼎峙之後」라 하여 “존자암은 高·良·夫 三姓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비로소 세워졌는데, 삼읍이 정립된 후에까지 오래도록 전해졌다.”고 하였다. 또 “암자의 面勢는 相地書[地理書]에 들어맞는 것이 많다. 그 터로 말하면 주봉은 넓고 크며 둑굴게 넘어가고 높으면서도 점점 낮아져 마치 봉황새가 날개를 펼치듯 하고, 아래로 웅크려 사랑스럽게 그 병아리를 보는 것과 같은데, 이는 玄武의 奇이다. 참 샘의 근원이 깊으며 옥소리를 내며 맑은 물을 쏟아내는데, 향기로운 물줄기가 이른바 ‘月德이 그 방위에 있다.’고 하겠으며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것은 朱雀의 異이다. 비스듬히 가다가 용처럼 꿈틀꿈틀 기어가고 허리에는 마치 원쪽 팔의 묶인 끈을 풀고자 하는 모습과 같은 것은 青龍의 勝이다. 꼬리를 끌고 행두를 돌이키며 바른손으로 그의 무릎을 쓰다듬는 것과 같은 것은 白虎의 美이다. 이는 땅의 이치가 갖추어진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선조11년(1578) 2월에 한라산을 등반했던 林悌의 『南溟小乘』에는 「十日 (中略) 艱尋尊者庵 日將夕矣 紗子清涼出迎 曾與相逢 (缺)陽之雪路者也」라 하여, “간신히 존자암을 찾았으나 날은 이미 저물었다. 청량스님이 나와서 맞이했는데 전에 눈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존자암의 규모와 그 위치에 대해서는 『南槎錄』에서
「尊者庵舍九間 盖與壁皆以板代瓦土 間之僧輩 山中土脈 無粘液且多沙石
不宜塗墻 瓦則貿於隆地 故力所難致也 中間屢經興廢 癸巳年間 有康津居僧
代父入防 防罷仍化財重修云」이라 하여, 존자암의 암사는 아홉칸인데 지
붕과 벽은 기와와 흙 대신에 판자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또 그 까닭을
스님들에게 물었더니, “산중의 土脈은 점액이 없고 또 모래와 돌이 많아
서 벽을 바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와는 반드시 육지에서 사와야
하기 때문에 재력이 그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여러 번 일으켜 세
웠다 폐했다 하다가 계사년(선조26, 1593)에 강진에 사는 스님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방호를 서기 위해 제주에 들어왔다가 임무를 마치자 곧 재물을
내어 중수하였습니다.” 하고 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南槎錄』에 계
속하여 「到尊者庵少憩 (中略) 自山根至尊者庵 可三十餘里 自尊者庵至靈
谷 亦三十餘里 (中略) 又過修行窟 窟中可容二十餘人 古有高僧休糧 入棲之
處也」이라 하여, 존자암에 도착하여 조금 쉬었는데 산 밑에서 존자암까지
30여리가 되고 존자암에서 영곡까지 역시 30여리이다. 또 수행굴을 지
났는데 굴 속에는 넉넉히 20여명은 들어갈 만하며, 옛적에는 고승 休糧이
들어가 살던 곳이라고 하였다. 산 밑에서 존자암까지의 거리 및 수행동의
규모까지 기록해 두고 있다.

또 광해군 초기 제주 판관을 지낸 金緻의 「遊漢拏山記」에 의하면,
「踰獐嶽入三長洞 由三長越浦涯嶽 迤邇而南到一精舍 高在烟霞 下壓滄溟
卽尊者庵也 板屋八九間 盖以草茅 不侈不陋 有一胡僧 出拜於門外 迎入禪堂
問其名則修淨也 (中略) 使修淨前導 重罔複嶺 路甚危險 或騎或步 互相先後
度密穿深 漸入佳境 行六七里 抵瀛室洞府頗寬敞 此亦古尊者庵基也 仟尋蒼
壁 環擁如屏 上有怪石 狀如羅漢 五百有餘 (中略) 洞之東南 山腰有一石窟
名曰修行 昔有道僧棲於其中 廢塹室今猶在」

라 하여, “獐岳을 거쳐서 上長洞에 이르고 三長에서 浦涯嶽을 넘어 멀리 남쪽으로 精舍에 이르렀는데, 높이 구름 속에 있어 푸른 바다를 누르고 있으니, 이것이 곧 존자암이다. 판자집은 8~9칸으로 띠로 지붕을 덮었는데 사치스럽지도 않고 추하지도 않았다. 한 늙은 스님이 문 밖에 나와 절하며 맞이하여 선당으로 안내하기에 그 이름을 물으니, 修淨이라고 하였다. … 날이 밝자 수정에게 길을 안내하게 하니, 겹친 언덕과 포개진 산 등성이에 길이 매우 위험하였다. 말을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여 숲이 빽빽한 곳을 지나 깊숙이 들어가니 경치가 점점 더 아름다워졌다. 6~7리를 가서瀛室에 다다르니 골짜기가 자못 넓고 앞이 확 트였다. 여기가 바로 옛날 존자암터이다. 친길 푸른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 있으며 위에는 이상스럽게 생긴 바위가 있는데 모양이 나한과 같은 것이 5백개가 넘었다. … 골짜기 동남쪽 산허리에 한 석굴이 있는데 이름을 修行이라고 하였다. 옛날 어느 도승이 그 속에서 살았었다고 하는데 무너져 내린 굴뚝이 아직도 남아있었다.”고 하였다.

이로써 존자암은 그 규모가 판자집 8~9칸 정도, 수행동굴은 20명을 수용할 만한 크기였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곳에서 국성재를 올렸던 것으로 되어있다. 즉 『南槎錄』에 「又云 首夏之月 卜得吉日 差三邑邀頭中一員齋浴行祀於是庵 謂之國聖齋 今其廢也 纔八九年」 <竝出冲庵記> 이라 하여 “4월에 점을 쳐서 좋은 날을 택하고 삼음의 邀頭[守令] 중 한 사람을 보내어 목욕재계하고 이 암자에서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를 국성재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폐한 지 8~9년이 된다.”고 하였다. 김상현이 제주에 按撫御使로 온 것이 선조34년(1601)이므로 그로부터 8~9년 전이라면 바로 임진왜란이 선조25년(1592)이거나 그 이듬해가 된다. 결국 국성재가 임진왜란으로 해서 중단된 셈이 되는 것이다.⁷⁴⁾

74) 『尊者庵址』, 제주대학교박물관·제주도, 1996, pp.31~36.

3. 불상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서산사소장 목조보살좌상은 중종 29년(1534) 봄에 조성된 보살상으로 당시 증명법사는 처인(處仁), 불상 조상승(造像僧)은 향엄(香嚴)이다. 보살상의 규격은 전체 높이 58cm, 상호 높이 11.5cm, 어깨너비 25cm, 무릎 너비 33.5cm 등이다. 이 보살상 머리에는 청동제 보관을 쓰고 있으며 상호는 원만하다. 이마 중앙에 백호가 있으며, 코는 크고 콧날은 넓으며 인중은 길고 뚜렷하다. 입은 두툼하며 귀 또한 크고 두툼한 편으로 귓불은 둉툭하다. 눈썹과 눈은 멱선으로 그렸고 입술에는 붉은 칠을 하였다. 목은 짧으며 삼도를 나타내었고, 법의는 통견이다. 수인은 설법인이며 자세는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로 걸친 항마좌(降魔坐)이다. 복장에서는 발원문과 사리 3과, 오방경 2개, 팔엽대홍련 1개, 백옥제 보탑 1개, 호박 6개, 수정 2개, 약초 봉지 13개 등과 함께 금강수보살 주문이 발견되었으며, 1926년과 1939년에 개금하였다. 이 보살상은 조선조 전기의 불상 양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수작으로서 복장 유물이 남아 있는 등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높다.⁷⁵⁾



[圖 14]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75)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0호(2004.9.9),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제주특별자치

얼굴은 원만상에 가까우며, 보발이 귱불의 중앙 하단에 1줄로 통과하여 형식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가 있는데 아주 작게 표현하였다. 눈은 반개하여 일자형이나 꼬리부분이 약간 올라가 있다. 코는 상호의 각 부분과 비교해 볼 때 큰 편이며 콧날이 넓어 원통형에 가깝다. 인중은 길고 뚜렷하며 입은 두툼한 편이다. 눈썹과 눈은 먹선으로 그렸고, 입은 붉은 칠을 하였다. 콧수염은 옆으로 세줄을 그었고 입술 밑에도 먹선을 그렸다. 턱 밑에는 한 줄의 음각선을 넣어 양감있게 처리하고, 귀는 크고 두툼하며 귱불이 뭉퉁하다. 목은 짧으며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아주 두툼하게 처리하였다. 양어깨에서 흘러내린 법의자락은 일직선으로 흘러 복부 아래에서 U자형을 이루고 있다. 가슴 부위까지 올라와있는 군의는 일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띠매듭은 없다. 왼쪽 어깨로 넘어간 법의자락은 왼쪽 어깨로 넘어간 법의자락은 왼쪽 등을 타고 큰 주름 하나를 형성하여 엉덩이 부분까지 늘어지고 있다. 오른쪽 발목에서 흘러내린 법의자락은 상체의 옷주름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은 무릎 이하가 많은 손상을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가능한한 한글용어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끼웠으며, 손에 아무런 지물도 없다. 오른손은 옆으로 들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려고 하고 있으며, 왼손 역시 오른 발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으며 엄지와 중지를 맞대려 하고 있다. 이러한 수인은 석가여래의 설법인과 같은 모습이다. 무릎은 넓고 높은 편이어서 안정감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손상을 많이 입어서 흙과 마포 등으로 싸여있어서 이 보살상의 재료가 지불인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불상의 바닥은 가로 14cm, 세로 13cm의 사각형의 복장공이 뚫려있는데,

도 제주시 대정읍 동일리 3159 서산사. 1534년, 나무, 높이 58cm, 무릎너비 33.5cm, 어깨너비 25cm.

그 안에서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복장물의 내용은 발원문을 비롯한 기문류 6장, 진언문 2장 그리고 복장 내용물 등이다. 그런데 복장물을 싸고 있는 황초복자나 그 안에 있을 후령통은 유실되고 복장의 내용물 가운데 일부만 남아있다.

발원문은 연결되어있지 않고 4장이 각각 낱장으로 흩어져 있다. 장방형 한지에 행서로 묵서하였다.⁷⁶⁾ 첫 장은 이 보살상의 발원문으로 조성연대와 참여자의 명단만 나와 있을 뿐 보살상의 명칭과 봉안처가 기록되어있지 않으며 그 내용과 다음과 같다.

[발원문①] (가로 59.5cm, 세로 19.7cm)

「嘉靖十三年甲午春 (佛紀二千五百十六一年也至二千九百五十三年丙寅三百九十三年四月初一日改金) 造成同發願文 佛像真空無像宗 古今非有亦非空妙體如如流法界 月輪赫赫大千中 主上殿下 王肥殿下 世子低下 觀察使南世雄 牧使奉嗣宗 都事朴世昀 判事趙崇禮 座首金建 別監柳洽 生員羅益文 佛像大施主羅崇義兩主 上金大施主梁益淮兩主」

이 발원문의 첫 행과 둘째 행 사이에 ‘佛紀二千五百十六一年也(下略)’ 이란 2행의 글을 후대에 써 넣고 있다. ‘嘉靖十三年甲午’는 ‘佛紀二千五百十六一年’에 해당하며 1534년(중종29)이다. 즉 1534년에 이 보살상을 조성하였으며, 1926년 4월 1일에 개금하였다.

발원문에 시주사로 나오는 인물 가운데 관찰사 남세옹과 목사 봉사종은 『朝鮮王朝實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세옹은 중종29년(1534) 2월 6일에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고, 중종30년(1535) 6월 27일에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⁷⁷⁾ 봉사종은 총 5회에 걸쳐 실록에 기재되어있는데 중종7

76) 김창화, 「朝鮮時代 濟州道 佛像 研究-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51~59.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의 발원문 인용.

77) 『中宗實錄』 29年, 30年條.

년(1512)에 禮曹佐郎, 중종19년(1524)에 安岳郡守, 중종31년(1536)에 羅州牧使 등을 지내고 있었으며 1537년에 사망한 것으로 나온다.⁷⁸⁾ 그러므로 봉사종의 정확한 나주목사 재임기간은 알 수 없으나 1534년 봄부터 1536년 4월 4일까지는 재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발원문에서는 어느 사찰에서 조성하여 봉안하였는지 밝히지 않아 그 봉안처를 알 수 없다. 다만 시주자로 기록된 인물이 당시 전라도와 나주 지역의 관찰사와 목사인 점으로 보아, 이 보살상은 나주지역이거나 전라도의 어느 사찰에서 조성되었고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⁷⁹⁾

[발원문②] (가로 63.3cm, 세로 20cm)

「供養大施主 梁笠同兩主 施主 尹末乙兩主 宋淸山兩主 夢金伊兩主 金夫兩主 月分保体 六月伊兩主 郭道里孫兩主 儀文比丘 伐乙道兩主 眞柒施主金壽丁兩主 爰弘信兩主 羅番其兩主 今尹 小邊 尹末乙金兩主 善孫兩主 鄭仁夫兩主 鄭春孫兩主 朱成生乙兩主 周世熙兩主 白貴孫兩主 李同月兩主 李崇智兩主 陳得林兩主 吾使郎兩主 鄭瑞兩主 林千石兩主 千非保体 朴莫同兩主 仲山兩主 西元生兩主 金君世兩主 宋莊平兩主 羅漢永 長守兩主 丁尹兩主 孫順年兩主 思才兩主州」

78) 『中宗實錄』7年, 19年, 31年, 32年條.

79) 전남 목포 달성사 반가좌상이 서선사 목조보살좌상과 동일한 조각승인 향엄에 의해 조성되었다. 서산사 목조보살좌상의 발원문에 보면 조성한 지역의 관찰사와 목사가 나주지역인 점으로 미루어 원소장처가 나주 운흥사가 아닌가 조심스레 추정해 본다. 운흥사는 덕룡산 자락에 위치한 고찰로서 신라 효공왕 때 연기조사가 창건하였다. 사적기에 의하면 응점사-응치사-운흥사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찰에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사찰이름인 ‘熊’자 아래에 불을 상징하는 점 4개가 있는 탓으로 하여 ‘雲’으로 바꿨다는 내용이 보이고 있다. 최근 나주 운흥사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사찰이었음이 여러 문헌 및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정영호 교수 교시) 김창화, 「朝鮮時代 濟州道 佛像研究-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53. 주112)

두 번째 장은 供養과 眞柒 시주자의 명단 38명(兩主라고 하여 대부분 부부가 참여하고 있으므로 거의 2배수에 해당함)이 보일 뿐이다. 그런데 이 기문의 중앙과 좌측 상단 사이에 다른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 써 넣고 있는 부분이 있다.

「京畿道 楊洲郡 水落山 鶴林庵」

이 부분은 글씨체와 글자의 크기가 달라 후대에 써 놓은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한 때 이 보살상을 경기도 양주 수락산 학림암에서 봉안한 사실이 아닌가 한다.

[발원문③] (가로 69.5cm, 세로 20.4cm)

「金致敏兩主 朴奉伊兩主 羅儀孫兩主 金小才兩主 萬從兩主 龍山兩主 孫住山兩主 金春孫兩主 朴□□兩主 朗□ 徐孫兩主 孫□兩主 證明 處仁 持殿性修 畵員 香嚴 倚奉七伊 智軒 別座 修仁 熙願 崇笠 供養主 印崇 持寺佛像大化主性一 化主 淡熙 丹青化主 信行 盖瓦化主 學澄 願堂大施主 金江兩主 梁笠同兩主 金夫兩主 文山兩主 羅外山兩主 岱伊智 □千石兩主 金世貞兩主 丹青大施主儀孫 孔住山兩主 姜春儀」

[발원문④] (가로 45.5cm, 세로 21cm)

네 번째 장은 중앙에서 좌측 부분이 유실되어 5~6명의 명단을 알 수 없으며 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甲子同兩主 李五奇兩主 鄭仁孫兩主 尹夫仇知兩主 姜小山兩主 申學文兩主 鄭自丁兩主 鄭□忠 金斤平 金從孫 陳氏 申萬松兩主 申光文兩主 龍非黃仲延兩主 金忘金兩主 (… … … …) □□□保体 今今保体 鳩非保体 □□之 岱伊智保体 訥非」

이 부분 역시 시주자의 명단으로 인명만 나열되어있는데 성씨도 없는

천민까지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佛像腹藏儀’ 라 하여 위의 기문과 다른 글씨체로 쓰여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佛像腹藏儀 主上殿下 王妃殿下 世子低下 觀察使南世雄 都使朴世恂 牧使奉嗣宗 判官趙崇禮 座首金健 別監柳洽 李璣 生員羅益文」

이 부분은 비록 글씨체가 다르지만 발원문 첫째 장고 같은 내용인 점으로 보아 조성 당시에 쓰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발원문은 고려시대 서산 문수사 불상에서 발견된 것이 있다. 하나의 불상에서 두 종류의 발원문이 나와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一般發願文, 彌陀腹藏發願文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발원문이 아닌가 추정된다.⁸⁰⁾

다음으로 개금한 사실을 기록한 기문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佛紀二千五百六十一年에 造成이고 至二千九百六十六年己卯八月初九日改金佛事面回向갓지年代가四百五年耳 畵師比丘 河龜峰 監院比丘 尹奉天 化主處士 徐性集 持殿童子 高斗旭 證師比丘 崔慧峰」

불상의 조성연대는 불기2561년(1534)이며, 불기2966년(1939) 을묘8월8일에 개금하였다.

마지막으로 개금불사를 하였던 내용의 기문인데 3행으로 아주 짧다.

「改金佛事 佛紀二千五百二十三年 西山寺住持文星彬」⁸¹⁾

80)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p.34.

81) 개금불사에 불기2523년 서산사 주지 문성빈으로 기록되어있는데, 1534년 조성연대보다도 빠른 불기가 기록되어있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발원문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원문의 오기인지, 논문의 오기인지 알 수 없다.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圖 15]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圖 16]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유물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다. 1671년 조선후기의 조각장인 응혜·계찬스님에 의해 아미타삼존불의 협시보살로 조성된 삼광사 목조불상은 17세기 불상연구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며, 용문사 불상의 경우 시주자와 조성자가 밝혀져 조선후기 불상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⁸²⁾

82)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4호(2007.7.25),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 4 월계사 소재(태고종). 조선후기, 나무, 높이 37cm, 무릎너비 26cm, 어깨너비 26cm. 이하 동일하게 수정하세요

①발원문

월계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복장발원문은 백지묵서이며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크기는 가로 55.8cm, 세로 84.7cm이며 획으로 쓰여 있다.

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時維」 頤文」 順治十八年歲次辛酉孟秋日鴨城白羊山藥師庵新造佛像兼畫
佛既已畢功安於寶座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皆共成佛道」 奉爲
」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下壽千秋」 干戈息靜國
民安 天下太平法輪轉 道內監兵壽命長 城主兩位厄消除 四事施主增福壽十
方施主厄消滅」 施主秩」 主佛大施主貴介兩主 鄭訥(叱)山兩主 申戒宗兩
主」 補處施主金哲伊兩主 梁厚承兩主 莫介兩主」 補處施主金士立兩主 裴
正義兩主 玄羅云兩主」 休木施主金夢得單身 李珏兩主 金大得兩主」 (中
略) 本寺」 住持 自璿」 持寺 覺軒」 三綱 敬如」 緣化秩」 證明 天敏」
持殿 靈珠」 畫員 雲惠 尚全」 來往 性元」 供養主 得文」 別座 法明」
幹善道人 崇信」

불상의 내부복장에서 나온 백지묵서의 발원문에는 제작시기와 봉안처, 그
리고 조각승의 이름까지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1661년에 백양산 약사암에
서 조성하였으며 조각승은 운혜와 상전이라고 나와 있다. 백양산 약사암에
서 불상과 불화를 조성하여 백양사의 약사암에 봉안하였다고 되어있다.

백양산은 현재 백양사가 위치한 白巖山으로 추정되는데 백암산 내에 약사
암이 있다.⁸³⁾

83) 백양사는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백암산에 있는 사찰이다. 정도전(1337~1398)이 『白巖山淨土寺橋樓記』의 일부 내용을 보면 ‘오직 이 산은 장성군 북쪽 30리에 있는데 그 이름을 백암이라 하였으며 암석이 모두 흰 색깔이라서 그렇게 이름하였다.’고 한다. 백암사 석벽은 깎아지를 듯 험하고 산봉우리는 중첩하여 맑고 기이하며 웅장한 모습이 실로 이 지역이 명승지가 될 만하므로 신라 때의 어떤 異僧이 처음으로 절을 짓고 살았다고 하기도 하고 백제 무왕 때 세어졌다고 전하기도 한다. 본래 이름은 백암사였고, 1034년 중연선사가 크게 중창 보수한 뒤 정토사로 불려졌다. 약사암은 백양

② 후령통

불상 내부의 복장공 안에서는 불상 발원문을 비롯하여 황초폭자(黃綃幅子에 싸인 후령통과 원각경, 주사로 적은 두 종류의 다라니 복장물 목록과 오보경, 오방경, 수정 등이 발견되었다.

사 뒤 백학봉 아래에 있는데 현재 석조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있다. 약사암과 백양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어 두 절의 밀접한 관계를 알 수 있다. 하나는 조선 선조 때 환양선사가 영천참에서 금강경을 설법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고 한다. 법회가 3일째 되는 날 하얀 양이 내려와 스님의 설법을 들었고 7일간 계속되는 법회가 끝난 날 밤 스님의 꿈에 흰양이 죽어있었으며 그 이후 절이름을 백양사라고 고쳐 불렀다. 다른 하나는 어느날 팔영선사가 약사암에서 불경을 읽고 있던 중 백학봉에서 양 한 마리가 내려와 법화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돌아갔는데 이런 인연으로 정토사에서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한다. 발원문의 鴨城은 장성의 별칭으로 추정되나 여타 지리서나 역사서에서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김창화, 앞의 논문, pp.64~65.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圖 17]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상⁸⁶⁾의 복장 막음판에도 같은 필체의 글자가 다른 내용으로 적혀 있다.

84) 삼광사는 1992년에 창건되었으며 목조보살좌상은 임덕희 보살이 원불로 모시고 있다가 삼광사로 봉안한 것이다. 사찰 경내에는 서옹종정의 범어비가 있다.

85)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5호(2007.7.25),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1198 삼광사 소재(조계종). 조선후기 1671년, 나무, 높이 43cm, 슬록 25cm, 견폭 18cm. 문화재청

86) 제주도 삼광사 목조보살좌상과 같이 제작된 불상이 전남 신안군 일심사에서 발견되었다. 일심사는 전남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140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로 등록증에 창립일이 1920년 4월 20일로 되어있다. 이 사찰의 주지실에 높이 42cm밖에 되지 않은 소형의 목조보살좌상이 있는데 최근에 이 보살상에 복장물이 발견되었다. 복장물 가운데

삼광사⁸⁴⁾ 소장 목조보살좌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1671년 (현종 12년, 순치 28년) 조선 후기 조각장인 응혜(應慧)와 계찬(戒贊)에 의해 아미타삼본불의 협시보살로 조성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17세기 불상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⁸⁵⁾

불상의 대좌의 밑면은 1매의 판자로 만들었다. 몸체와 무릎 부분은 내부를 보면 1개의 원목으로 만들었고 앞의 자국은 나무가 벌어져 철못 2개를 연결하여 놓았다. 복장공의 막음목판에는 연필로 쓴 한글이 빽빽이 적혀 있는데 신안 일심사에 봉안된 목조보살좌

① 발원문

발원문은 백지목서이며 가로 80cm, 세로 20.5cm이고 횡서이며 자경은 1.8cm이다. 모두 8겹으로 접혀져 있고 전후면에 글씨가 쓰여있다. 이 조상기문은 조성연대, 불보살 명칭, 봉안처, 조성동기, 시주질, 산중질, 화원, 연화질 순으로 쓰여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時維」 康熙十年辛亥五月一白羊山」 아彌陀佛觀音勢至三位畢功」 安于清心臺」 願以此功德 我等與衆生」 普及於一切」 皆共成佛道」 發願以故命

데 한지에 목서된 발원문이 발견되어 이 보살상의 조성연대, 불보살 명칭, 조상 동기, 시주질 등을 알 수 있다. 즉 康熙10년(1671, 조선 현종12) 辛亥5월에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3위를 응혜와 계찬비구가 조성하여 백양산 청심대에 봉안하였다는 것이다. 복장에서 나온 발원문에 의하면 ‘阿彌陀佛觀音勢至三位’를 조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이 상은 제주 삼광사와 같이 관음보살상 아니면 대세지보살상이다. 이 또한 상의 보관에는 현재 화불이나 정병이 유실되고 구멍만 남아잇는 상태로 일심사 목조보살좌상의 존명을 정확히 밝히기란 어렵다. 이 보살상의 크기는 전체 높이 42cm, 어깨너비 20cm, 무릎너비 25.7cm, 무릎높이 5cm로 제주 삼광사와 거의 동일한 크기이다. 발원문은 한지목서이며 가로 80cm, 세로 20.5cm이고 횡서이며 자경은 1.8cm이다. 모두 8겹으로 접혀져 있고 전후면에 글씨가 쓰여있다. 이 조상기문은 조성연대, 불보살 명칭, 봉안처, 조성동기, 시주질, 산중질, 화원, 연화질의 순으로 적혀있으며 제주 삼광사 발원문과 같은 필체여서 동일인으로 보인다. 이 불상을 조성한 조각승은 응혜와 계찬으로 이들은 17세기 전반에 크게 활동하였던 청현과 승일 밑에서 조각을 수련한 후에 17세기 후반에 전라도와 경남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응혜의 작품 도상 특징은 양손을 모두 무릎에 닿을 정도로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중품하생일을 선호하고 있는데 일심사 보살상 역시 같은 도상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응혜의 작품으로 보살상이 3점 있는데 모두 통견이며, 군의 상단인 가슴 부위에 연화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넓은 일자형 띠로 처리하였고, 법의가 대좌를 덮은 상현좌를 취하고 있는 점 또한 특징이다. 조각승 응혜는 최근에 백양사 성보박물관과 신안 일심사에서 그의 작품이 봉안되고 있는 점이 확인되면서 17세기 후반에 한 유파를 형성하였던 조각가로 주목받게 되었다. 응혜는 청현과 승일에게서 수련을 받은 조각승이였으며, 印戒, 海機, 雷侃, 戒贊 등과 함께 17세기 후반에 활약하였던 장인이다. 인계 비구는 응혜의 차화원으로 1689년에 만들어진 전남 여수 흥국사 불조전 53불좌상의 수화원이다. 뇌각은 인계의 보조화원이고 양식적으로 응혜의 조각풍을 계승하고 있다. 최인선, 「전남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상과 복장물」, 『호남문화연구』 42호, 전남대학교, 2008.

禮三寶」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年」 世子低下壽千秋」 施主秩」 佛像供養兼大施主金慶生 兩主」 烏金大施主車得祥 兩主」 施主准眼比丘」 (中略) 山中秩」 大禪師善河 比丘」 大德贊宥 比丘」 大士 雷建比丘」 一圭(?) 比丘」 義均 比丘」 惠能 比丘」 住持 自禪 比丘」 住持戒英 比丘」 三綱懶訓 比丘」 證明惠還 比丘」 持殿双衍 比丘」 畫員」 應慧 比丘」 戒贊 比丘」 緣化秩」 供養主 坦祐比丘」 明善比丘」 往來 就彬 比丘」 別座 戒行 比丘」 化土 海澄 比丘」 治匠居士金自明」

발원문에서 이 불상은 강희10년(1671, 조선 현종 12) 신해 5월에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등 3위를 조성하여 백양산 청심대에 봉안하였다. 백양산은 전남 장성군에 있는 산으로 일명 백암산(白巖山) 한글(한자) 통일!! 이하 동일 혹은 한자만으로 기술하던지, 아무튼 통일해주어야 합니다. 이라고도 하였다. 백양산은 逍遙太能(1562~1649)⁸⁷⁾이 13세 때 백양산에 놀러갔다가 物外庵의 선경을 보고 느낀 바 출가하였고⁸⁸⁾, 蓮潭有一이 1745년 봄 백양산 물외암에서 10일간의 불공을 수행하였으며⁸⁹⁾, 涵溟台現(1844~1902)⁹⁰⁾이 14세 때인 1851년에 장성 백양산으로 출가한 사료⁹⁰⁾에서 볼 때 장성에 있는 정토사 오늘날 백양사가 있는 산을 가리키고 있음이 확실하다. 이 불상을 봉안하였던 清心臺 즉 清心庵은 백양산에 있다고 하

87) 太能(1562~1649)은 성이 오씨이며, 전남 담양출신으로 逍遙는 그의 호이다. 1574년 13세에 장성 백양사에서 眞에게 출가하였다. 浮休善修에게 대장경을 배워 선수 휘하의 수백명 제자 가운데 稚谷冲徽, 松月應祥과 함께 법문삼걸이라 불렸다. 다시 묘향산 清虛休靜의 문하에 들어가 20여년 동안 공부하고 법화를 펼쳤고 만년에 지리산의 연곡사에 머물며 교화하다가 입적하였다. 효종이 慧鑑禪師라 시호했다. 휴정의 제자 중에서 그는 鞭羊彥機와 함께 선의 양대 고승으로 주앙되었으며 그를 따랐던 수백명의 문하가 일파를 이루어 소요파라고 불렸다. 문하의 枕肱懸辯은 그의 선을, 海運敬悅은 그의 교를 각각이었고, 傳法제자만도 30여명에 이른다.(東師列傳, 海東佛祖源流)

88) 梵海撰·金倫世譯, 『東師列傳』, 逍遙宗師, p.164

89) 「蓮潭大師自譜行業 蓮潭大師林下錄」卷四, 『韓國佛教全書』제10책, pp.283~286.

90) 「涵溟講佰」, 『東師列傳』, p.447.

였는데 현재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백양사에는 雲門庵, 淸流庵, 藥師庵, 物外庵, 靈泉庵, 天眞庵, 西陽庵, 金剛庵 등 여덟 개의 암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6·25 한국전쟁 중에 모두 불에 타버리고 없어졌지만 그 후에 대부분 복원되었다.⁹¹⁾

이 불상을 조성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였는데 시주질 21명, 산중질 11명, 화원 2명, 연화질 6명 등 모두 40명의 인명이 등장하고 있다. 발원문에 보이는 인명 가운데 화원을 제외하고 다른 자료에서도 보이는 인명은 다음과 같은 스님이 있다.

시주자 가운데 元惠比丘는 비슷한 시기에 활동하였던 원혜의 자료는 1652년에 深源寺에 세워진 취운당대사비⁹²⁾의 비문 本寺流에 前住持元惠가 있고, 1657년에 조성된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불좌상의 복장발원문 대시주질에도 나온다. 시주자 覺軒비구는 逍遙太能의 법맥을 이어받은 松筠克敏의 문인으로 법명은 晦跡이며, 도반으로 寒谷性玄, 松梅法熙 등이 있다. 각현은 제주시 월계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백양산 약사암의 持寺직을 1661년에 맡고 있었다. 약사암은 백양사의 8암자

91) 8암자에 妙蓮庵, 白蓮庵, 地藏庵, 清涼院 등을 더하여 백양사 12암자라고도 하는데 묘련암은 아직 복원되지 않았고 나머지 3암자는 복원되었다고 한다.(이계표, 「백양사의 역사」, 『불교문화연구』 제6집, 남도불교문화연구회, p.30.) 이처럼 12암자에도 청심대는 등장하지 않아 발원문에 등장한 청심대는 백양사와 관련없는 백양산 내에 위치한 단독의 암자로만 추정된다.

92) 한국학문현연구소 편, 榆帖寺本末寺誌, 深源寺 寶蓋山深源寺翠雲堂大師碑銘并序, pp. 633~635. 취운당은 비문에 의하면 성은 孫씨이며 강화인이고 이름이 學璘이며 호는 翠雲이다. 1575년 12월 9일에 출생하였으며 15세에 印淨에게 출가하였고 서산의 若弟子인 清連에게서 10여년간 수학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竹修窟에서 9년간 면벽수행하였고, 雲達山에서 5년간 수행하였다. 그 후 명산을 편력하다가 寶蓋山에 들어가 16년 머무르다가 1659년 9월 9일에 입적하였다. 제자 性元 등이 奉骨수편을 정성껏 써어 사리를 찾아 高弟 印祐와 동지들이 협력하여 부도를 1650년 11월 8일 심원사에 세웠다. 비문은 통정대부홍문교리 鄭斗卿이 짓고 산중명필 廣惠가 썼서 1652년 심원사에 세웠다. 그의 자는 法惠, 六行, 惠珪, 雲玄 등 40여인이다.

가운데 하나이므로 각현은 17세기 중엽경에 백양산에 있었던 약사암과 청심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전라도 스님으로 파악된다.

1671년 당시 청심대에 주석하고 있었던 대선사 善河는 道遙太能의 제자로서 법명이 影月이며 태능의 문인이었던 선암사 승려 枕肱懸辯⁹³⁾과 같은 시기에 활동하였던 스님이다. 선하에 대한 또 다른 자료가 여수 흥국사 무사전 지장보살상 등의 발원문에 畵員 印均, 尚儀, 慈敬, 灵侃, 智玄, 善河, 淳玉, 淳一, 清學, 明淡, 德軒, 頂峰 등으로 나오는데 인균은 17세기 중엽에 활동하였던 유명한 조각가였으며 선하는 인균을 수장으로 하는 인균파의 조각가 가운데 1인이다. 조각가 善河와 대선사 善河를 동일인으로 보아야할지 아니면 다른 인물로 보아야 할지는 단정할 수 없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점으로 보아 동일인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선하 스님에 대한 행장은 현재 찾을 수 없어 그가 조각승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다만 선하보다 후대에 활동하였던 雪岩秋鵬⁹⁴⁾의 행적을 보

93) 枕肱懸辯(1616~1684), 성은 윤씨이며 나주인으로 어머니는 최씨이고, 자는 而訥이다. 9 세 때에 천풍산의 處遇에게 출가하였고 뒤에 방장산 태능의 법을 이어받고 선암사의 주지가 되었다. 송광사, 연곡사 등 호남의 큰 절에 두루 머물고, 만년에 금화산 징광사에 있다가 입적하였다. 저술로 침굉집이 있다. 海東佛祖源流???

94) 雪岩秋鵬은 1651년에 평남 강동에서 태어나 원주 법홍사의 宗眼에게 출가하였으며, 묘향산 보현사 月渚道安에게서 10여년 동안 공부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그는 선교 양종에 통달하고 시문을 잘했으며, 해남 대둔사 13대 종사 가운데 5대 종사로 추앙받았다. 이와 같은 큰 선승이 宗匠으로 활동하였다는 문헌과 그 조각작품이 남아있다. 추봉의 스승이었던 道安은 그를 ‘西山의 嫣派요 유명한 宗匠’(白谷集 外, 한글대장경 동국역경원, 1994, p.492.)이라 하였으며, 실제로 추봉의 조각작품이 현존하고 있다. 추봉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초엽에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하였던 色難이란 巨匠과 함께 활동(1693년 구례 천은사 응진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나한상, 1694년 화순 쌍봉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과 목조아미타불좌상, 1698년 해남 성도암 나한상(제주 관음사 봉안), 1700년 해남 성도암 나한상(미국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영암 축성암 소장)하였으며 단독작품으로 1703년 구례 화엄사 각황전 관음사를 조각하였다. 대둔사 4대종사인 도안의 제자 추봉이 이처럼 대선사로 활약하면서도 조각승으로 활동하여 여러 작품을 남기고 있는 점으로 보아 대선사 선하 역시 추봉처럼 큰 스님으로 활약하면서 조각도 병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오진희, 「조각승 색난파와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大師 義均에 관한 자료는 1636년에 구례 화엄사의 중건이 완료되면서 山中大德으로 나오며, 1641년에 조성된 완주 송광사 불상(보물 제1274호)의 발원문에 등장한다.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의균은 17세기 중엽에 화엄사, 완주 송광사, 백양사 등장에서 활동하였던 스님으로 추정된다. 大師 惠能은 군산 동국사 법당의 본존불 발원문 시주질에 등장한다. 동국사 삼존불은 김제 금산사에서 이운된 불상으로 최근에 그 복장물이 공개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이 불상은 순치7년(1650)에 ‘畫員 應梅 寬海 天明 性律 魯元 思俊 雷忍’ 등이 조성하였다.

持寺 戒英은 1657년에 작성된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발원문⁹⁵⁾ 시주질 명단에 등장하며, 1686년에 기록된 金剛山百川橋重創記⁹⁶⁾에 助役의 일원으로 나오고, 1683년에 조성된 곡성 도림사 패불⁹⁷⁾의 三綱 靈悟比丘 明善比丘 戒英比丘로 나온다. 別座 戒行 역시 앞 두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證明 惠還비구는 1678년에 세워진 송광사 사적비⁹⁸⁾의 배면에 시주자로 등장한 점으로 보아 전남지역에서 활동하였던 큰 스님으로 추정된다. 그밖에 공양주 坦祐와 明善도 간략하게나마 다른 기록에 보이고 있는데, 명선은 지사 계영과 함께 곡선 도림사 패불을 조성할 때 삼강으로 참여하였고, 1663년에 세워진 화엄사 碧巖國一都大禪師碑의 隱記에 등장한다.

別座 戒行은 1657년에 조성된 함양 법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발원문

『강좌 미술사』 26-1집, 2006.)

95) 송은석, 「17세기 조선왕조의 조각승과 불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pp.514~516.

96) 한국학문현연구소 편, 『金剛大本山 榆岐寺本末寺誌』, 아세아문화사, 1997, pp.72~74.

97) 『패불-조사보고서Ⅱ』, 국립문화재연구소, 2000.

98) 문화재청·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료집, 2006, p.223.

의 대시주질에 나오며, 1686년에 기록된 금강산백천교중창기의 본사질에 나와 당시 유점사에 주석하고 있었다. 그리고 1690년에 조성된 홍성 용봉사 패불의 화기의 본사질에 나온다.

화사 海澄은 1654년에 조성된 고창 문수사 평등대왕상 복장발원문⁹⁹⁾의 대덕질 다음에 해징비구가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이 식에 문수사에 주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진언문

보살상에서는 대략 50여장의 진언문이 복장품으로 발견되었다.. 가로 45.7cm, 세로 18.5cm이며 「全身舍利寶齒眞言」 등의 제목없이 횡서로 19 행의 주서된 범어만 가득하다. 이 진언문은 「寶篋印陀羅尼經」 혹은 「寶篋印心呪經」이라고도 하며 具名으로는 「一切心如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이며 唐의 不空譯이다. 그 내용은 40구로 된 보협인다라니의 공덕을 설하고 있으며, 이呪를 誦讀하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극락에 가게되고, 병자는 쾌유하여 수명을 연장하게 하고 빙궁한 사람은 무량의 복덕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¹⁰⁰⁾

③후령통

후령통은 황색비단인 黃綃幅子에 싸여있다. 이 黃綃幅子의 표면에 ‘封’ 자와 ‘南’ 자를 주서하였고, 감싼 매듭이 너무 단단히 조여 있어 내용물은 알 수 없다.¹⁰¹⁾

99) 문화재청 · 대한불교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 · 제주도』자료집, 2003, p.125. 송은석, 앞의 논문, pp.516~517.

100) 김창화, 앞의 논문, pp.71~72.

101) 김창화, 앞의 논문, p.72.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圖 18]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圖19]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좌측면

제주 관음사에 봉안된 목조보살좌상은 내부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하여 1698년에 전라남도 해남 성도암에서 色難 등이 개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보살상은 개금 후 대홍사로 옮겨졌다가 1908년 제주 관음사를 재건한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현 위치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현재 관음사에 봉안된 보살상은 최근 조성한 것이다. 목조보살좌상의 전체 높이는 75cm로 전체적인 형태와 대의 표현에서 1685년 고흥 능가사 불상이나 1693년 천온사 보살상과 동일하여 色難이 1680년대 후반에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머리에 쓴 보관은 17세기 후반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최근에 제작된 것이다.¹⁰²⁾

1700년에 색난 등이 제작했던 나한상이 현재 남아있어,¹⁰³⁾ 이 무렵 목조보살좌상이 원래 봉안되었던 전남 해남 성도암에서 목조보살좌상과 함께 나한상 등 여러 구의 불상이 제작된 불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 색난이 수하승으로 주도하여 여러 조각승이 동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觀音尊影佛施主改金”과 “觀世音菩薩改金願文” 기록이 남아있는데, “觀音尊影佛施主改金”에서 ‘康熙三十七年 戊寅九月二十二日點眼 靈岩郡成道庵改金 海南郡大興寺南庵奉安’과 같은 내용이 있어 불상 개금연대가 1698년임을 알 수 있다.¹⁰⁴⁾

102) 조계종에서 조사한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에도 새로 제작된 불상을 활용하여 놓았다.(p.499 도57)-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102~103, 도54.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에는 새로 조성된 불상사진도 함께 첨부되어있는데 사찰전각에 새로 조성한 불상을 봉안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103) 전라남도 영암 축성암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된 나한상에서 다음과 같은 발원문이 공개되었다. “康熙三十九年庚辰三月二十九日造成 一代教主釋迦如來尊像迦葉 阿難尊者等像又十六大阿羅漢等像奉安于靈岩郡南面頭輪山成道庵 …… 緣化 善 □良工 色蘭 一機 慕賢 秋鵬 秋平 …” 이 발원문을 통해 나한상은 1700년 해남 성도암에 모셨던 상으로 양공 색난, 일기, 모현, 추봉, 추평이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밝혀진 2구의 나한상은迦葉존자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那畔존자가 영암 축성암에 봉안되어있다. 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 소장된 가섭존자상은 전체 높이가 56cm, 대좌지름 23cm이다. 가섭존자는 색난이 이전에 제작한 1685년 고흥 능가사와 1694년 쌍봉사 가섭존자와 비교해 보면, 얼굴과 이목구비, 가사와 장삼의 처리 등이 동일하다. 단지 깍지를 낀 양손이 위를 향하여 세운 각도만이 차이가 있을 뿐이다. 축성암 소장 나반존자상은 16나한상 가운데 제1존자로 전체높이 46cm인 좌상이다. 나반존자는 양손을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고, 머리를 약간 숙여 선정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두 손이 신체에 비해 크게 강조되었다. 그러나 색난이 제작한 나한상 가운데 선정한 자세를 취한 나한상이 1684년 강진 정수사 나한전, 1685년 고흥 능가사 팔상전, 1693년 구례 천은사 응진전에 봉안된 예가 있어 1690년대 후반 나한상의 자세가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최선일,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pp.103~104. 김리나,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섭존자상」, 『미술자료』 33, 1982, pp.59~65.

104) 김창화, 「朝鮮時代 濟州道 佛像研究-紀年名 佛像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觀世音菩薩改金願文”에서 ‘(上略) 假安釋迦尊相가 全 八月 二十四日
에 海南郡 大興寺로서 觀音尊像을 入島奉安하니 二百二十七年前 改金호
文徵이 現矣라. (中略) 世尊應化 二千九百五十二年 乙丑 陰十月初一日 (下
略)’¹⁰⁵⁾이라는 내용에서 해남군 대흥사의 관음상을 제주도로 이운하여 봉
안하며 1925년 음력 10월 1일에 개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925년 개금당시에서 227년 앞서 1698년에 개금되었다는 사실도 함께 밝히
고 있다. 이후 개금불사에 참여한 많은 수의 연화질과 시주질을 소개하고
있다.

관음보살좌상은 1698년 제작되어 전남 영암 성도암에서 개금(改金),
해남 대흥사에 봉안되다가 1908년 제주관음사를 재창건한 안봉여관스님
이 1925년 대흥사의 말사인 제주 관음사로 옮겨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체높이 75cm, 얼굴높이 14cm, 어깨너비 34cm, 무릎높이 13cm, 무릎너비
47cm이다. 17세기말의 전형적인 불상 양식을 갖춘 이 불상은 등신대의
단아한 상으로 삼산보관(三山寶冠)을 따로 쓰고 있다. 보관 정면에 커다란
꽃무늬 8송이가 배치되어 있고 좌우로 장식이 있는 전형적인 조선후기 보
관이다. 양감있고 눈, 코, 입의 단아한 얼굴 표현, 유연한 옷주름은 당대
수작으로 평가된다.¹⁰⁶⁾

목조관음보살좌상을 개금한 영암군 성도암은 『大屯寺志』에 ‘임해령
바깥 3리에 있으며 석벽에 쇠줄로 사다리를 놓았다. 항상 선객 5~6인이 살
며 소나무잎을 먹고 지낸다’¹⁰⁷⁾, 梵海의 『東師列傳』 서문에는 ‘성도암

석사학위논문, 2009, p.75. 발원문 가운데에서 원봉안처, 조성시기 등의 주요내용만을
인용하고 발원문의 전문은 다른 논문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105) 김창화, 위의 논문, p.73(『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 재인용)
106) 1698년, 나무, 높이 75cm, 견폭 28cm, 대웅전, 제투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1동 387
관음사.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6호(1999.10.6.),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107) 대둔사지간행위원회 · 강진문화연구회, 『大屯寺志』, 1997.

은 두륜산 남쪽 외산에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범해가 머물렀던 암자라고 적혀있다. 이 성도암의 위치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全羅左道靈岩郡梨津鎮地圖』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지도에는 성도암을 두륜산 옆 주봉 밑에 그렸는데, 이진진에서 15리 떨어진 것으로 표기하였다. 강진 도암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해남 남창이 나오는데, 성도암은 바로 남창 가기 전에 위치한 곳이라 여겨진다.¹⁰⁸⁾

이 불상을 개금 후 봉안했던 대홍사는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응진전 앞에 있는 삼층석탑의 제작연대가 통일신라 말기로 추정되고 있어 창건연대는 늦어도 통일신라 말기 이전으로 볼 수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홍사는 근대 이전에 대둔사와 대홍사로 불리었다가 근대 이후 대홍사로 정착되었다. 해남 두륜산을 배경으로 자리한 대홍사는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해지면서 조선불교의 중심도량이 되었다. 목조보살좌상은 1698년 이전에 제작되어 1698년 영암군 성도암에서 색난 등이 개금하여 해남군 대홍사 남암에 봉안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908년 제주 관음사를 창건한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1925년에 제주도 제주불교포교당으로 이운하였던 것이다. 당시 제주 관음사가 대홍사의 말사로 안봉려관¹⁰⁹⁾ 스님과 대홍사의 인연으로 인해 제

108) 최선일, 「조선후기 전라도 조각승 색난과 그 계보」, 『미술사연구』 제14호, pp.47~48.

109) 제주의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18세기 초 이래 20세기 초까지 약 200여년 간 제주 불교는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야 했다. 이러한 흔박아래 제주 불교가 마침내 새로운 중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1908년 해월굴에서 터를 잡은 봉려관(蓬廬觀, 1865~1938) 스님에 의해 관음사가 창건되면서부터이다. 근대 제주 불교의 개산조로 불리는 봉려관 스님은 관음사 창건을 시작으로 제주도 내 다수의 사찰창건과 불교중흥에 일생을 바쳐 제주사회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이다. 스님은 1865년 2월 14일 제주시 화북에서 아버지 안치복과 어머니 평산 신씨 사이의 차녀로 태어났다. 본관은 순흥(順興)이고, 속명은 려관(廬觀), 법명은 봉려관(蓬廬觀)이다. 출가 훨씬 전인 1882년 화북마을의 현시와 결혼하여 1남 4녀를 두기도 했다. 민간신앙에 심취하여 살아오던 중 1889년 탁발을 나온 한 고승에게서 기도하라며 건네준 관음보살상을 얻은 것이 불교와

주도의 이운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5) 월정사 소조여래좌상

월정사에 소장된 소조여래좌상은 전체높이 59cm, 무릎너비 36cm, 어깨너비 24.5cm이다.¹¹⁰⁾ 머리에는 나발이 촘촘하고, 육계가 솟아있고 머리와 육계 사이에는 중간계주가 있다. 상호는 방형으로 이마 중앙에는 작은 백

인연이 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탁발승으로부터 얻은 관음보살상을 모셔 놓고 밤낮으로 예배하고 염불을 계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뜻한 바가 있어 출가삭발을 결심하고 1907년에 전라남도 해남군 대홍사에서 유장(有藏)스님을 은사로, 청봉(淸峰)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계를 받았다. 불맥이 끊겼던 제주에서 안봉려관 스님이 어떻게 출가하게 되었는지 그 수수께끼를 풀어줄 실마리가 여러 기록에 있다. 스님의 비문과 『회명문집』외에도 김형식(金澄植, 1886~1927)이 1917년에 쓴 「遊觀音寺記」, 『매일신보』의 「제주도 아미산 봉려관의 기적」(1918년 3월2일과 3일자 기사), 시인 이은상의 『탐라기행』(1937년) 「봉려관의 관음사」, 진원일 스님의 『제주도지』 「고대사찰과 아라리 관음사」(1969년 7월 제39호, 12월 제42호 기고) 등이다. 이들 문헌을 통해 출가와 관련한 행적을 알 수 있다. 1908년 1월 5일 제주로 귀향한 봉려관 스님은 대홍사 주지스님이 희사해준 시주금을 토대로 본격적인 불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출발부터 순탄치 않았다. 주민들은 오랜 배불정책의 영향으로 불사에 대하여 막연한 반발감이 심했던 것이다. 결국 마을에서 쫓겨나 다시피 하여 부득이 한라산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 제주 땅에 대작불사를 실행하기에 봉려관 스님은 제약이 너무 많았다. 여성의 몸으로 보수적인 전통사회에서 많은 대중들을 설득하고 움직이게 하거나, 낯선 불교를 홍포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봉려관 스님은 관음사 불사를 시작으로 입적 직전까지 도내 전역의 사찰창건과 불사에 주력했다. 김석윤 스님 외에도 안도월, 오이화, 이회명 스님과 같은 선지식들이 불사를 더욱 원만히 성취할 수 있게 큰 힘을 보태며 이끌어주었다. 제주읍 성내 이도리 1362번지에 관음사포교당 뿐만 아니라, 한라산 법정사, 삼양 불탑사, 서귀포 법화사, 고산 월성사 등 부처님의 도량을 일궈나갔다. 스님의 이런 노력과 헌신은 날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었고, 1936년 영림서(營林署)에 근무하던 애월 사람 김영희로부터 아라리 산66번지 일대의 약 5만평을 관음사에 희사받기도 했다. 1938년 5월 29일, 속령 74세, 법령 32세의 일기를 끝으로 입적하셨다. 『전통사찰총서21-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pp.385~390.

11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4호(2000.12.27),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제주시 오라 2동 652-2번지.



[圖 20] 월정사 소조여래좌상,
59cm, 조선후기

수인은 왼손을 들어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무릎 위에서 손등을 위로해서 올려놓았다. 왼손은 따로 만들어 끼워놓았다.
불상 밑바닥은 나무판으로 막아놓았는데, 복장물은 도난당하여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¹¹¹⁾

호를 표현하였고, 인중이 길고 입꼬리에는 양감을 주어 미소를 띠고 있다. 귓불은 두툼하고 길게 늘어져 있으며, 삼도를 표현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작은 크기의 불상에 넓은 어깨와 넓은 무릎에 양감이 적은 불신은 신체비례가 좋지 않다.

법의는 양어깨를 넓게 덮어 통견식의 대의를 입었는데, 오른쪽 어깨 아래로 가슴을 가리는 편삼을 입었다. 가슴에는 군의와 군의를 묶은 띠의 표현이 보이고, 뒷면은 목 부분을 두텁게 접어 입은 대의자락과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옷 주름이 확인된다.

111) 『제주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2008, p66.

6)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圖 21] 보덕사 목조여래좌상,
66cm, 조선후기

보덕사 목조여래좌상¹¹²⁾은 전체높이 66cm의 비교적 큰 불상이다. 전체 높이 66cm, 두고(頭高) 24cm, 어깨 폭 28.5cm의 규모이다. 최근의 개금 불사 때 복장물을 도난당한 것이 확인되었다.¹¹³⁾ 머리에는 나발이 크고 삑삑하게 표현되어있으며 육계는 유난히 높고 크다. 중간계주는 없고 정상계주가 표현되어있다. 상호는 방형에 가까우며 원만하다. 눈, 코, 입이 정제되어있고 입은 유난히 크다. 이마에는 최근에 개금불사하면서 보완된 수정으로 만든 백호가 있다.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있으며 법의는 두껍고 양어깨를 덮은 통견식의 대의를 입었다.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옷자락은 수직으로 주름져 있

고 군의는 띠매듭 없이 수평으로 표현되었다. 양손은 따로 만들어 불신에 끼웠으며 손에는 아무런 지물이 없다. 수인은 아미타정인을 취하고 있다.

불상 바닥에 복장공이 있으나 유실되어 조성시기를 알 수 없지만 전체적인 양식으로 보아 조선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¹¹⁴⁾

11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7호(2004.9.9),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제주시 도남동 80-2.

113)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7)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圖 22]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圖 23]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저부

정방사는 서귀포시 정방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찰이다. 1931년 서귀포시 영천동 현재의 선돌선원 위치에서 창건되었으며, 당시 사찰명은 쌍계사였다. 현재 공양용 불구에 ‘濟州道雙溪寺’(1932년 조성)란 명문이 음각되어 있는 유물이 남아있다.¹¹⁵⁾ 정방사의 연혁을 기록한 비석(1988년)에 따르면 1932년(소화7)에 창건되었는데 원래 정방사는 頭陀寺터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연혁비에는 “漢拏山跋陀羅寺 … 寺初創於始上曰雙溪末久移於烘

114) 위의 책, p.27.

115) 그 후 1934년 서홍동 지장샘 부근으로 사찰을 옮겼다고 하며, 1935년에 현 위치로 사찰을 다시 옮겨 대웅전을 짓고 공덕비를 조성하였으며, 장성 백양사의 포교당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연혁비에 의하면 김남하 스님이 대웅전을 1935년 3월에 기공하여 동년 7월에 완공하여倉寺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爐 …”라고 쓰여 있다. 이는 김상현의 『南槎錄』에 보이는 “向頭陀寺行
巡多 … 寺在兩溪之間寺之名雙溪庵 …” 쌍계암이 쌍계사로 추정된다.¹¹⁶⁾

불상은 소형불상으로 沸石(한자는 끓을 불이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佛
石이 끓은 줄 알았으나. 최근 석질전공자에 의해면 앞의 한자가 맞다고
합니다) 佛石(제오라이트)으로 만들어졌고, 내부를 끌로 파내어 복장물을
넣은 후에 한단의 턱을 두고 반타원형의 목판으로 막아놓았다. 머리는 나
발이 촘촘하고 머리와 거의 구분이 없는 육계는 둥글다. 머리 중앙에는
반원형의 중간계주가 넓게 자리잡고 있으며, 정상에는 아주 낮은 원통형
의 정상계주가 있다. 양 미간 사이에는 백호가 양각되어 있다. 상호는 머
리와 턱 부분이 호형을 이루고 있는 장방형에 가까운 모습이다. 사각형
의 얼굴에 반쯤 뜬 눈은 눈꼬리가 거의 수평을 이루어 일직선형이다. 코
는 콧날이 곧게 뻗었으며 콧볼의 표시만 양쪽으로 간략히 등그렇게 음각
하였다. 인중은 넓고 낮은 편이고, 입은 굳게 다물고 작게 표현하였으나
양 입가를 눌러서 살짝 미소를 머금고 있다. 이마는 넓고 양 미간 중앙에
백호를 크게 돋을새김하였다. 목에는 삼도를 새겼으나 한 줄만 형식적으
로 표현하였다. 신체는 어깨가 거의 각을 이루어 움츠러든 모습이며 법의
의 선은 매우 유려한 편이다. 법의는 통견이며 U자형으로 길게 트여있다.
오른쪽 어깨의 의문은 두 줄로 로 음각된 마치 넓은 띠문양과 같은 큰 대
가 호형을 그려 반달과 같은 문양이나, 오른쪽 팔꿈의 하단까지 길게 늘
어져 S자형을 이루고 있다. 왼쪽 어깨에서 내려온 의문은 3조선으로 수직
처리하였다. 왼쪽 팔꿈치 부분에서 훌러내린 옷주름은 가부좌한 왼쪽 무
릎 아래로 나뭇잎 형태로 드리워져 있다. 군의는 일자형을 이루고 있는데
밑에 두 줄의 평행문이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선처리하였다. 결가

116) 김창화, 『제주의 폐사지』, 제주도, 2004, p.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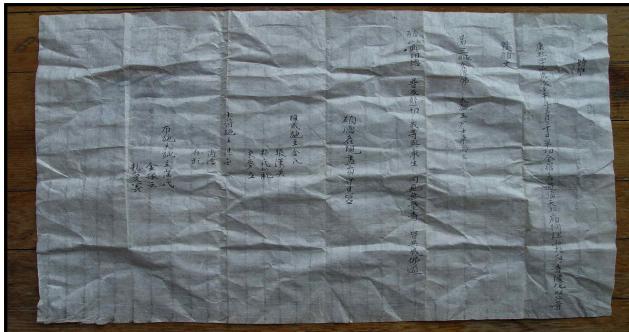
부좌한 무릎 위로는 군의자락이 중앙에서 모아졌다가 부채살 모양으로 넓게 펼쳐있다. 등 뒤에는 왼쪽 어깨 뒤로 넘긴 옷자락이 길게 한 자락만 드리워져 유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 팔꿈치의 측면문양은 Ω 형의 문양이 변형되어 삼각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인은 오른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이 위를 향하면서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왼손 역시 엄지와 중지를 맞대면서 구부려 손바닥이 무릎 위를 향하여 옷자락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러한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므로 아미타여래의 중품중생 혹은 중품하생과 같은 형식이나 아미타여래의 중품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형에서 벗어난 형식이다. 이 불상은 아래에서 살펴볼 복장발원문에 의하면 과거칠불 가운데 3번째의 毘舍浮佛이다. 이러한 불상의 수인이 정확히 어여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경전은 없다. 아미타구품인 수인과 비슷하게 처리한 까닭은 비사부불 자체가 수명연장 사상과 관련이 있고 발원문에 무량수불을 친견하고자 하는 원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체적인 비례를 볼 때 무릎은 넓은 편이어서 안정감을 주고 왼쪽무릎 위에 이 시기의 특징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인 옷주름 한 자락이 접혀져 있다. 불상의 복장에서는 발원문과 다라니, 후령통 등이 출토되었다.

①발원문

발원문은 장방형 한지에 행서로 묵서하였으며, 가로 55cm, 세로 42cm이다. 앞면에는 ‘時維’로 시작되는 첫 행부터 끝 행의 ‘朴愛善’ 까지 16행이 횡으로 쓰여있다. 뒷면에는 ‘七併三’ 이란 2자만 횡으로 간략히 쓰여있고 나머지 면은 글자가 없다. 이 발원문은 둘째 행에 조상연대와 봉안처가 나와 있고, 4행에 불상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다. 5행에 불상을 조성하게 된 동기와 6행에 불상을 조성하였던 장인이 한 사람 나온다. 그

뒤로는 시주자 명단이 나열되어 있는데 9명이 보인다. 발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圖 24]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복장출토 발원문

「時維 康熙四十一歲次壬午年五月二十日畢功全羅左道 順天北嶺 桐裡山大興寺緣化比丘等發願文 第三毗舍浮佛 大施主 尹士奉 兩主 願以此功德 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 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碩德 名現 畫員 守日 比丘 腹藏施主 金氏 張漢英 朴氏以礼 宋蔓立 末醬施主 青金 尚德 粉礼 布施大施主 崔氏 金振云 朴愛善」(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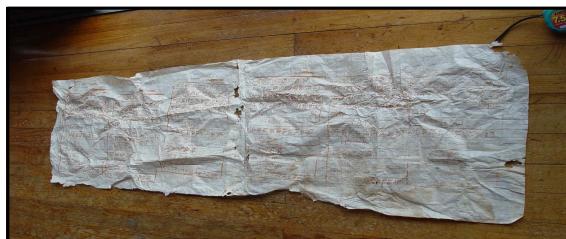
「七侖三」(뒷면)

정방사 석조여래좌상의 처음 봉안처는 전남 순천의 북쪽에 있는 동리산 대홍사¹¹⁷⁾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방사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조성된 석

117) 대홍사는 순천 월등면 월룡리 장척마을의 북쪽 절골에 그 터가 남아있다. 100여년 까지 있었던 대홍사는 큰 규모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처음에 龍臺庵이라고 사명을 한 점으로 보아 조그마한 암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1530년 이후에 ‘龍臺庵’ 이란 암자로 출발하여 17세기에 사명을 ‘大興寺’로 개명하면서 대규모의 사찰로 변하였던 것 같다. 1669년에 寶輦을 새로 만들고 請堂을 지었다. 1702년에는 석조의 과거칠불을 조성하여 봉안하였고, 1707년 3월에 寒山殿이 기울어가고 주위가 다 허물어져가자 이를 중수하였으며, 19세기 후반경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홍사지는 현재의 봉두산 끝자락 아주 협소한 곳에 자리잡은 것으로 보아 이 한산전이 주된 법당일 가능성이 많

조구류손불좌상이 2006년 전남 별교 용연사에서 발견되었다. 석조구류손 불좌상은 용연사의 대웅전 본존불로 봉안되어 있다. 발원문에 의하면 용연사에는 ‘七侶五’로 ‘第五拘留孫佛’로 되어 있고¹¹⁸⁾ 서귀포시 정방사의 불상은 ‘七侶三’으로 ‘第三毗舍浮佛’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 석불 또한 정방사 석조여래좌상과 함께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연사 불상은 높이 57.5cm, 무릎너비 42cm, 무릎높이 12.5cm이며 불상의 재료는 한자수정(제오라이트)으로 불상 내부는 끌로 파내어 깊고 복장물을 넣은 후에 한단의 턱을 두고 반타원형의 목판으로 막아놓았는데 크기, 재료, 복장마감 등 정방사 석조여래좌상과 동일하다.

②다라니경



[圖 25]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복장출토 다라니경

다고 느껴진다. 사지에는 8각 석재 1점, 몇 개의 초석, 치석된 석재로 이루어진 축대 등의 석물이 있으며, 조선후기에 해당하는 기와편, 백자편, 토기편 등이 수습되고 있다. 대홍사는 興地圖書에 定惠寺, 松廣寺, 大光寺, 仙巖寺, 興國寺에 이어서 등장한 것으로 보아 18세기 순천의 대표적인 사찰 가운데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창화, 「조선시대 제주도 불상 연구-기념명 불상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9, p.86.

118) 「時維 康熙四十一歲次壬午年五月二十日畢功全羅左道順天府北嶺桐裡山大興寺 緣化比丘等 發願文 第五拘留孫佛 大施主鏡旭比丘 腹藏施主 金氏 張漢英 朴氏以礼 宋蔓立 畫員 守日 比丘 各各比丘等 塵醬施主 靑金 尚德 粉礼 布施大施主 金振云 朴愛善 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 我等與衆生同見無量壽 皆共成佛道 願我世世生生常面佛法僧 五月二十日 畢功也」(앞면) 「七侶五」 용연사 석조불상 발원문.최인선, 「별교 용연사 석조구류손 불조상에 대한 고찰」, 순천대학교, 2006. 페이지

이 다라니경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31.8cm이며 12행의 목판본이다. 목판을 이용하여 붉은 색으로 찍어낸 것으로 모두 동일한 「大佛頂首楞嚴神呪」이다. 첫 행은 「大佛頂首楞嚴神呪」 라 하여 다라니의 제목에 해당하며, 2~5행은 범어, 6행은 「寶齒真言」, 7행은 범어, 8행은 「五輪種子」, 9행은 범어, 10행은 「真心種子」, 11행은 범어, 12행의 처음은 「六字大明王真言」이 있고 그 밑으로 범어 6자가 있다. 이 주문은 능엄경 가운데 佛說大陀羅尼이며, 선문에서 아침 일과로 독송한다고 한다. 용연사의 다라니경 크기는 가로 47cm, 세로 37cm이며 12행의 목판본이며, 『妙法蓮華經』 卷第二, 『楞嚴經』 卷五, 『地裝菩薩本願經』 등 3권의 경전도 함께 출토되었다.

③ 후령통

정방사의 후령통은 황색비단인 黃綃幅子에 싸여 있다. 이 黃綃幅子의 표면에 「封」 자와 「南」 자를 朱書하였다. 후령통을 감싸고 있는 黃綃幅子의 매듭이 너무 단단히 조여 있어 풀 수가 없어 후령통의 내용물을 조사할 수 없었다. 후령통은 청동제의 원통형이며 크기는 높이 6.5cm, 지름 3cm이다. 용연사의 후령통은 소잡이 부분이 黃綃幅子에 종이로 감았는데 곁에 「封」 자를 朱書하였다. 五色絲와 五方鏡이 있으며 五寶瓶은 천으로 되어있다. 후령통은 청동제의 원통형이며 크기는 높이 5.5cm, 지름 2.8cm이다.¹¹⁹⁾

8)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용문사 소장 목조석가여래좌상은 17세기 말~18세기 전반에 진설(進悅)

119) 김창화, 앞의 논문, pp.84~88.

이 조성한 불상으로 불상의 존명을 비롯해 시주자와 조각승이 확실하게 밝혀져 조선후기 불상 양식을 고찰하는데 귀중한 편년이 되는 등 문화재적 가치가 높이 평가된다.¹²⁰⁾



[圖 26] 용문사 목조석가여래
좌상, 43.5cm, 조선후기

으로 신체에 비하여 머리가 큰 편이다. 머리는 뾰족한 형태의 나발이며 육계는 머리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머리의 중앙부분에는 반구형의 중앙계주가 있으며 정수리부분에는 나지막하게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120)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26호(2007.7.25.)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2 소재. 조선후기, 나무, 높이 43.5cm, 슬폭 26cm, 견폭 18cm.

이 불상은 조선후기에 조성된 목조석가여래좌상으로서 현재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용문사에 소장되어 있다. 이 불상은 원래 전남 해남 은적사에 봉안되어 있었으나 1949년 목포 삼학사 창건시 그곳으로 이안되었다가 1972년 현 주지(수민)에 의하여 제주도 용문사로 옮겨져 봉안되었다고 한다. 삼학사로 이안될 즈음에 개금을 하였다고 전하는데, 현재 불상의 상태는 부분적으로 개금이 박락된 것과 무릎부분의 나무 이음새 부분이 약간 갈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이 불상은 전체높이가 42cm의 작은 규모의 목조불상으로서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이고 있는데 전체적

얼굴은 방형에 가깝지만 턱 아래부분을 둥글게 처리하여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데, 이마 중앙에는 백호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었으며 이목구비가 큼직하게 표현되었다. 두 눈은 가늘고 긴 편이며, 코는 크고 넓적하고 콧날이 곧게 솟았으며, 입은 양쪽 가장자리를 약간 올려 표현하여 미소를 짓고 있다. 귀 역시 큼직하며 목에는 삼도가 도드라지게 표현되었다.

법의는 통견으로 양쪽 팔에 걸쳐 흘러내린 옷자락이 무릎 아래까지 유려하게 흘러내리고 있으며, 시원하게 트인 가슴 아래에는 군의를 받쳐 입고 있다. 왼쪽 어깨를 감싼 옷자락은 목에서 한번 접혀 오른쪽 어깨에서 대의자락 일부가 길게 가슴까지 늘어져 있으며 나머지 대의자락은 어깨일부를 감싸고 팔꿈치 뒤쪽에서 복부쪽으로 가서 왼쪽에서 수직으로 내려온 옷자락 속을 끼워져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아래로 흘러내린 옷자락은 양쪽 무릎을 덮고 결가부좌한 오른쪽 다리 위에서 마치 부채살처럼 넓게 펴져내리고 있다. 군의는 3줄의 평행선으로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이 불상에 보이는 착의법은 곡성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1706년), 고양 노적사 아미타삼존불(1713년) 및 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되는 태백 장명사 목조여래좌상, 호림박물관 목조불상 본존상 등 18세기 전반 불상에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이 불상의 조성연대를 추측케 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왼손은 별조하여 끼웠는데 왼쪽 무릎 위에 놓아 손바닥을 위로 향하여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있으며, 오른손은 다섯손가락을 나란히 하여 오른쪽 무릎 위에 대고 있는 촉지인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이 불상의 내부에서는 발원문을 비롯하여 후령통, 경전, 다라니 등이 발견되었고 바닥에는 복장공(두께 2~3cm)이 있는데 그곳에 “平生至願爲父母願」 佛施主 嘉善大夫 性還伏爲」 亡父 通政大夫 李武生 靈駕」 亡母 安氏 景德”이라는 묵서명과 8자의 朱書梵字가 적혀있다. 발원문 및 바닥의 묵서명에 의하면 이 불상은 瞞山敎主인 석가모니불로서 대시주인

性還비구가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것이며, 화원인 進悅이 조성하였다고 한다.

①발원문

발원문은 1장이며, 윗부분만 좀이 먹어서 약간 훼손되었을 뿐 완형으로 잘 남아있다. 크기는 가로 49cm, 세로 34cm이며 세로 24행이고, 각 행의 간격은 1.8~2.0cm 정도이다.

「靈山敎主釋迦牟尼佛前謹獻發願文

稽首歸依釋迦佛 及諸十方諸如來 哀憫攝受長齊運 願垂悲智滅作罪 承斯妙利
功德製 賴此良緣命福享 無明煩惱所迷惑 願不心與相續起 邪魔惡神並災厄 如
許罪垢悉皆消 一切有願畢圓滿 多般所欲盡成就 直往西方見彌陀 (中略)
大施主嘉善大夫性還比丘伏爲 亡父通政大夫李武生 亡母 安氏景德 兩主
緣化秩 證師道性 佛遵守悟 畵員進悅 供養主明學 別座懷俊 化主居士德澄」

위 발원문은 통상의 발원문과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체로 발원문은 불상의 존명, 조성시기, 봉안장소, 발원동기, 제작에 참여한 시주자 순으로 기록되는데 이 발원문은 불상의 조성연대와 봉안처가 없다. 발원문의 내용은 불상의 존명은 석가모니불이며, 가선대부 성환이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조성하였고 화원은 進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상의 발원자 性還是 1656년 완주 송광사 오백나한상을 無染과 같이 제작한 승려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성환에 대한 자료는 1657년 법인사 목조 아미타불좌상, 1661년 범어사 목조석가삼존불상, 1743~1744년 보림사 중창기에 기록이 나온다.(<표 8> 性還의 불상 작품 참조)

<표 8> 性還의 불상 작품

	명칭	조각승(畫員)	조성	사찰
1	송광사 오백나한상	無染, 性還	1656년	전북 완주 송광사
2	법인사 목조아미타불좌상	大施主秩 (上略) 性還	1657년	경남 함양 법인사
3	범어사 목조석가삼존불좌상	寺中秩 (上略) 性還	1661년	부산 범어사
4	보림사 중창기	片手 (上略) 性還	1743년	전남 장흥 보림사
5	보림사 중창기(법당중건)	片手 (上略) 性還	1744년	전남 장흥 보림사

그리고 발원문에 기록된 증사인 都性은 보림사 중창기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다.(표 도성 관련자료 참조)

<표 9> 道性 관련 자료

	명칭	조각승(畫員)	조성	사찰
1	보림사 중창기(관음전)	住持 道性	1706년	전남 장흥 보림사
2	보림사 중창기 (불자각, 향로전)	住持 道性	1721년	전남 장흥 보림사

발원문에 기록된 공양주 明學은 1684년 송광사 불조전 불상 제작에 시주자로 등장하며, 1680년 송광암 극락전 본존불의 발원문에도 시주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 불상을 조성한 進悅은 1690년 말부터 1722년까지 활동한 조각승으로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18세기 전반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1695년 백련사 나한상을 비롯하여 1706년 곡성 관음사 대은암 관음보살좌상, 1713년

고양 노적사 아미타삼존불상, 1722년 부산 범어사 관음보살좌상 등을 조성하고 1719년에 남평 운흥사 지장보살상 및 시왕, 1722년에 범어사 비로자나불을 개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10> 進悅의 불상작품 참조)

<표 10> 進悅의 불상작품

	명칭	조각승(畫員)	조성	지역
1	서고사 목조아난가첩나한상	性沈, 体遠, 敏性, 性印, 進悅	1695년	전북 전주
2	서산사 목조관음보살좌상	進悅, 太元	1706년	전남 곡성
3	달성사 지장보살상및시왕상	進悅, 太元, 玉楚, 守英…	1719년 (개금, 개채)	전남 목포
4	만연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進悅, 太元, 日成…	1720년	전남 화순
5	상운사 목조아미타삼존불좌상	進悅, 靈熙, 太元, 處林…	1713년	경기도 고양
6	도솔암 목조관음보살좌상	進悅, 戒楚, 信衍, 太應, 清輝	1707년	경남 함양
7	통도사 소조사천왕상	進悅, 靈熙, 戒敏, 一性…	1718년	경남 통도사
8	범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進悅, 清愚, 清微, 貫性, 玉撝	1722년	부산 범어사
9	범어사 비로전 삼존불	進悅, 寬性, 玉聰, 清愚, 清微	1722년 (중수)	부산 범어사
10	범어사 적조암 목조보살좌상	進悅, 清愚, 清微, 貫性, 玉聰	1722년	부산 범어사

진열의 불상 특징은 상반신은 방형을 기본으로 양감없이 빛나며 등근작은 얼굴에 등근 코 등의 모습이다. 보살상의 경우 초반기 불상은 두상이 매우 높고, 보개도 두 가닥으로 갈라놓은 모양이 특징적이다. 오른쪽 어깨에는 넓은 옷주름 1개가 길게 내려와 있고, 도드라진 굵은 군의 띠는 희장의 범어사 불상과 닮았다. 진열은 하반신 옷주름을 여러 가지 모양으

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진열은 오른쪽 어깨의 옷주름, 군의 띠 등 희장의 불상 특징을 계승하고 있는데 진령의 계보 조각승 태원은 이후 18세기 후반 조각승 상정에게 영향을 주었다. 태원은 곡성 서산사 보살상,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의 개금.개체(1719년), 화순 만연사 불상(1720년), 고양 상운사 불상(1713년) 조성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후 상정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며, 유일한 작품으로 춘천 청평사 불상(1728년)이 알려져 있다.¹²¹⁾

②복장유물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에서는 발원문과 함께 경전, 다라니, 후령통 등이 발견되었다. 경전은 몇 권 분량으로 大方廣佛華嚴經의 내용이며, 제본이 흐트러져 간기도 없다. 다라니경은 목판본으로 총 9장이며, 간기 없이 주서된 범어로만 찍혀있다.

청동제 후령통은 황초복자에 싸여있으며, 황초복자의 모서리부분에 ‘南’ 자가 주서되어있다. 청동제 후령통의 곁에는 오방경이 있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이다.

9)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제주시 보림사에 모셔져 있는 나무로 만든 관음보살좌상으로, 꽃 문양과 불꽃 문양으로 이루어진 화려한 보관(寶冠)을 쓰고 결가부좌한 불상이다. 얼굴은 원만하며, 눈·입·코 등이 단정하고, 양쪽 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는 세 개의 주름인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어 인자하면서도 근엄함을 느낄 수 있다. 손 모양은 왼쪽 손을 들어 손바닥을 밖으로 향하여 엄지와 중지를 잡고 있으며,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아 손바닥을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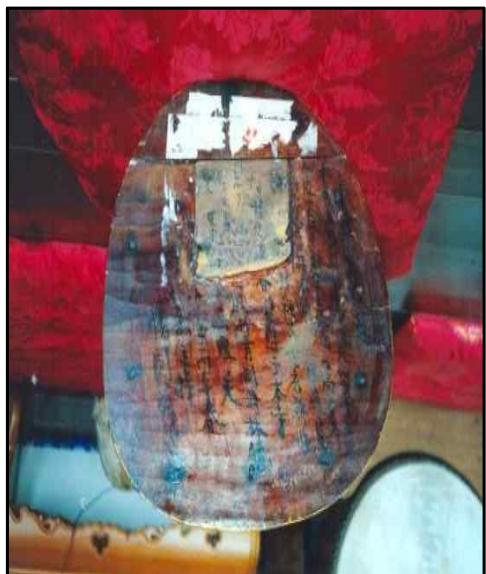
121) 이희정, 『조선후기 경상도지역 불교조각 연구』, 세종출판사, 2013, pp.251~254.

로 향하여 엄지와 중지를 잡고 보병(寶瓶)을 받들고 있다. 이 불상은 전체적으로 화려한 보관과 균형 잡힌 몸체, 두텁고 아름다운 옷주름 등의 표현수법으로 보아 조선 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은 목불로는 우수한 조각이며 역사적·예술적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¹²²⁾

현재 보림사 법당에 봉안하고 있는데 삼존불 가운데 목재로 조성된 관음보살좌상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본래 전라남도 순천의 선암사에 봉안하였던 것을 오래전에 이곳으로 모셔왔다고 한다. 좌상의 바닥에 복장을 막음한 목판에는 墨記로 이러한 내용을 적었다.



[圖 27]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圖28] 보림사목조관음보살좌상 저부

122)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 제18호(2002.5.15),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388번지 보림사 소재. 조선후기, 나무, 높이 75cm, 슬폭 41.5cm, 견폭 36cm.

이 불상은 머리 위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결가부좌하였는데 보관은 꽃문양과 화염문양으로 이루어졌다. 관대 밑으로는 검은 보발이 보인다. 상호는 원만하며 백호와 양 어깨와 눈, 코와 입 등이 정제되었다. 양쪽 귀는 짧은 편이나 목에 삼도가 돌려있어 인자하면서도 근엄함을 느낄 수 있다. 양쪽 귀를 휘감고 어깨 위에 내려진 보발은 가늘게 표현되었고 양어깨에 걸친 통견 법의는 길게 흘러 배 하단부 앞에서 곡선을 이루었으며 양쪽 팔에 걸친 옷주름은 유려하게 옆으로 흘렀다. 가슴 밑으로는 군의대가 조각되었고 양쪽 무릎을 덮은 옷주름(이하 마찬가지입니다. 의문→옷주름)도 유려하게 흘러 앞자락에 많은 의문을 보이고 있다. 뒷면은 목 부분에 널찍한 의대가 돌려지고 왼쪽 편과 오른쪽 팔에 의문이 보인다. 수인은 왼쪽 손을 들어드렁?? 손바닥을 밖으로하여 엄지와 중지를 잡고 있으며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놓아 엄지와 중지를 잡고 보병을 받들고 있다. 밑면은 널찍한 나무판으로 막음하였는데 이 좌상의 내력과 여러 寺名 등의 묵기가 있어 주목된다. 전체적으로 보아 옷주름이 두터워 조선시대 조성되었음을 곧 알 수 있는데 화려한 보관과 정제된 동체, 유려한 옷주름 등은 조선후기 목불로는 우수한 조상임을 느끼게 한다. 불상 밑에는 묵서명도 있다.¹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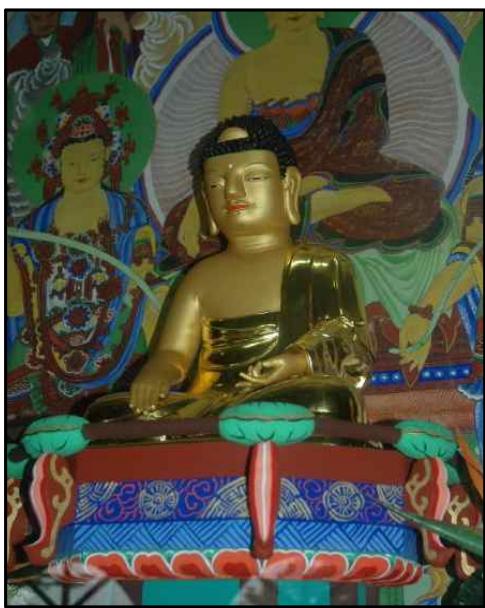
10)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월영사 목조여래좌상¹²⁴⁾은 1950년경 정용하가 남선사를 창건하면서 백양사에서 모셔와 봉안한 것이다. 이후 남선사가 폐사되면서 월령사의 전 주

1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2008, p28.

12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6호(2004.9.14), 문화재청@ 문화유산정보.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329.

지인 설우가 월령사를 창건하면서 모셔왔다.¹²⁵⁾ 전체 높이 51cm, 어깨 너비 22.5cm이다. 머리에 큼직한 육계가 있으며 반원형의 중간계주, 정상에는 타원형의 정상계주가 표현되어 있다.



[圖 29]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51cm, 조선후기

상호는 원만하며 약간 숙인 자세이고 이목구미가 분명하며 미소를 띠고 있다. 이마 중앙의 백호는 매우 작고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범의는 편단우견(이하 동일 수정, 우견편단은 잘못된 표현으로 최근 편단우견으로 바뀌었습니다)식의 대의를 입었고 왼쪽에 걸친 대의와 무릎 아래로 늘어진 대의는 양쪽 무릎을 덮었으며 옷자락이 양쪽 무릎 사이로 내려와 있다. 뒷면에는 왼쪽 어깨에서 넘어온 두꺼운 옷주름이 길게 표현되었다. 군의는 띠매듭 없이 수평으로 표현되어 있다.

가부좌한 양쪽 무릎 위에는 양발이 노출되어 있으며 발가락도 표현되어 있다. 양손은 따로 만들었고 오른손은 후대에 보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인은 왼손은 왼쪽 무릎에 놓고 오른손은 엄지와 중지를 맞대고 위를 향하고 왼발 위에 들고 있다.

바닥은 1매의 목재로 막음질하였는데 복장물은 이미 도난당했다고 한다.¹²⁶⁾

125)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126) 위의 책, 소문자.64.

11)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은 불석으로 조성된 조선후기의 불상이다. 전체적으로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큰 편이며, 머리는 나발이 촘촘하고 반달형의 중간계주와 원통형의 정상계주가 장식되어 있다. 상호는 방형에 가깝고 고개를 약간 숙이고 등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나 당당하다. 이마의 중앙에는 백호가 있고 방형의 얼굴에 이목구비가 아담하다.



[圖 30]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조선후기

이 19.5cm 크기의 사각형 복장공이 남아있으나 복장물은 남아있지 않다. 복장공 주변에 개금불사할때 한지를 붙였던 흔적이 보이며 마지막 불사 당시 복장물을 넣고 다라니경을 붙였던 흔적이 있다.¹²⁷⁾

어깨는 좁고 쳐진 모습이고 짧은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법의는 통견으로 두툼하여 신체의 굴곡이 거의 드러나지 않고, 양어깨에서 흘러내린 옷자락은 배 아래에서 넓은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양 무릎 앞으로 펼쳐진 옷자락은 넓은 부채꼴 모양으로 주름져 있다. 등 뒤에는 원쪽어깨에서 넘어온 옷자락이 나뭇잎 모양으로 길게 내려와 허리까지 닿는다. 수인은 두손 모두 손가락을 나란히 펴서 무릎 위에 얹은 형태이다.

대좌는 유실되어 없고 대좌 밑면에 가로 8.5cm, 세로 6.5cm, 깊

12) 월정사 목조보살입상



[圖 31] 월정사 목조보살입상,
78.5cm, 조선후기

월정사 목조보살입상¹²⁸⁾은 향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양손에는 연꽃줄기를 쥐고 있다.

높이 78.5cm, 어깨 너비는 20.5cm이다. 상호는 원만하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표현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인자하면서도 근엄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머리에는 화려한 금속제 보관(寶冠)을 썼으며, 관대는 길게 양쪽 귀 밑까지 장식되어 있다. 머리카락은 이마 위에서 흘러 양쪽 귀를 감아 어깨 위까지 내려졌다.

상호는 원만하며 뺨과 턱 주위로 살찐 둥근 편이며, 미소를 띠고 있다. 귀는 짧은 편이며 목에는 삼도가 표현되어 있다. 천의는 왼쪽 어깨

를 걸쳐있고 배 부분에 표현된 띠매듭으로부터 옷주름이 원호를 그리면서 양쪽 발등까지 길게 흘렀는데 무릎 부분의 옷주름과 왼쪽 팔에 걸친 옷주름이 유려하다. 뒷면은 왼쪽 어깨로부터 사선을 그리면서 오른쪽 허리부분까지 옷주름이 내려와 있다. 가슴에는 굵은 영락장식이 있고 오른쪽 어

127) 위의 책, p.58.

12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자료 제4-2호(2000.12.27), 문화재청@문화유산정보. 제주시 오라2동 652-2번지.

깨에서 훌러내린 영락이 길게 내려와 있고, 양쪽 손목에도 영락장식이 길게 드리워져 있다.

수인은 왼손을 위쪽을 향해 수평으로 들었고 오른손은 약간 내려 위로 향하였으며, 양손으로 연줄기를 받들 듯 쥐고 있다. 연봉오리는 피기 전의 연잎 몇 개를 표현하였다. 밑부분은 발바닥 부분이 편평하여 직립한 자세로 곧게 서있다.¹²⁹⁾

129) 『제주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2008, p67.

<표 11> 시대별 · 전 소재지별 불상

	명칭	시대	사찰명	전 소재지
1	서산사 목조보살좌상	1534년	서산사(서귀포시 대정읍)	전남 나주
2	월계사 목조아미타불	1661년	월계사(제주시 한림읍)	전남 백양사
3	삼광사 목조보살좌상	1671년	삼광사(제주시 월평동)	전남 신안군 일심사
4	관음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680년대	관음사(제주시 산록북로)	전남 해남 대흥사
5	월정사 이조여래좌상	17C	월정사(제주시 아연로)	제주 법화사
6	보덕사목조여래좌상	17C	보덕사(제주시 진남로)	전남 해남 대흥사
7	정방사 석조여래좌상	1702년	정방사(서귀포시 동부로)	전남 해남 대흥사
8	용문사 목조석가여래좌상	1722년	용문사(제주시 구좌읍)	전남 해남 은적암
9	보림사 목조관음보살좌상	17~18C	보림사(제주시 사라봉동)	전남 순천 선암사
10	월영사 목조여래좌상	17~18C	월영사(제주시 애월읍)	전남 백양사
11	원명선원 석조여래좌상	18C	원명선원(제주시 원두길)	미상
12	월정사 목조여래입상	조선후기	월정사(제주시 아연로)	개인 소장

<표 12> 시대별 · 전 소재지별 불상 통계

	시대별			전 소재지별			
	조선전기	조선후기	계	제주	전라남도	기타	계
건수	1	11	12	1	9	2	12
%	8.0	92.0	100	8.0	75.0	17.0	100

IV. 제주도 불교와 불교미술의 특징

제주도의 불교를 살펴볼 때, 조선시대에 당시 억불승유의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헌기록상 효종조까지 존재하였던 사찰이 20여개 소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왕조가 표면상으로는 유학을 숭상하고 불교를 억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재임했던 역대 왕에 따라 불교정책에 많은 혼선이 있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조선시대 제주도내 사찰의 존재를 기술한 문헌기록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유교 이외의 것은 모두 미신으로 규정하여 억압하기에 힘쳤다. 제주도에 왔던 홍유손이나 김정과 같은 대유학자이자 관리로서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중수를 권하는 글을 썼다. 이들은 제주도민들의 정서와 신앙특성상 불교에 대한 억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는 변명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당시 민간에 깊숙이 뿌리내린 제주불교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고려 때의 불교와 무격신앙과 습합된 산천 성황(城隍)신앙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유교 제례로 정비되어 국가제사로 모셔졌다. 특히 잣은 해난사고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도서지역 주민들은 내륙지역 주민에 비해 신을 섬기는 제사를 자주 행하였으며 국가도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바다와 섬의 신을 섬기는 장소를 사묘로 지정해 그 제사를 주도했었다. 유교 제례 이외의 신앙양상은 음사로 규정되어 금지령이 내려지는 일도 있었으나 조선시대 내내 일반인은 물론 왕실과 양반 지배층에서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조선의 유학자들은 유교라는 통치이념 아래 유교의례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무격신

양과 불교를 계속 신앙하였다. 조선중기 제주불교도 김정의 묘사처럼 음사와 함께 부처를 섬기던 모습이다.

이처럼 밀교적 성향이 강한 특성을 보이는 제주불교는 조선시대 유림들이 모두 놀라 지적하고 있는 승려의 결혼생활 등에서 짐작해 볼 수 있듯이 고려말 원나라의 100년 동안의 지배에서 오는 영향이 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조선시대 제주불교 탄압의 좋은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본토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지형과 기후 때문에 육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사면이 바다로 바람이 많고, 태풍과 큰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전지전능한 신이나 조상에게 의지하고자 비는 것이 생활의 방편이었다. 제주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영등신을 모셔왔는데, 영등신은 매년 2월 초하루 와서 미역이나 전복 등 해녀들이 채취하는 해산물의 씨를 뿌려 중식시켜 주고 보름날에 돌아간다고 한다. 예전에 한림면 수원리에 살던 사람이 풍랑에 표류하여 외눈백이섬[일목인도(一目人島)]에 떠밀려 도착했는데, 외눈백이들이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때 오래전에 표류해 갔던 동향인을 실려 보내고 대신 죽어서 영등신이 되었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도 아득하게 먼 바다에 있는 외눈백이섬은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巨人)의 나라이며, 도착하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나라라고 한다.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복리(福利)를 주는 신이 되어 1년에 한 번씩 제주도에 와서 인간에게 복과 재물을 주고 돌아간다고 믿은 것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영등신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들을 모시고 살았다.¹³⁰⁾

‘풍습으로는 귀신 위하기를 몹시 승상하여 박수무당이 심히 많다. 그들은 사람을 미신으로 놀라게 하면서 재물을 마구 뺏아낸다. 명절·초하루·보름·삼칠일, 즉 초7일·17일·27일에는 반드시 짐승을 잡고 신당에

130) 한금순,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 『정토학연구』 11호, 한국정토학회, 2008.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신당수가 무려 삼백여 개나 된다. 이것이 해마다 더하고 달마다 늘어가는 형편으로 때로는 괴상한 말이 떠돌아다닌다. 사람들은 병이 나도 귀신이 노여워한다고 약 먹기를 심히 꺼리면서 죽기 전까지 자기의 미신을 깨닫지 못한다. 풍속에 따라 어찌나 뱌을 꺼리는지 뱌을 신으로 받들기 때문에 뱌을 보기만 하면 곧 술을 놓고 축원할 뿐 감히 죽이는 일이 없다.

내가 멀리서 보고 기어이 쫓아가서 죽였더니 이 지방 사람들은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그러다가 여러 번 보고는 “저 사람은 우리 고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뱌을 죽이고도 능히 무사한 것이다”고 하며 뱌을 없애야 함을 끝내 깨닫지 못하니 미신에 젖은 그들이 심히 가소롭다.

나는 일찍이 이 지방에서는 뱌이 많아 비가 오려면 뱌들이 여기저기로 대가리를 내밀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이는 거짓말이다. 다만 내륙지방보다 뱌이 많을 뿐이며 또 이곳 사람들이 뱌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다를 뿐이다.’ 김정의 『제주풍토록』에 실린 글이다.

김정보다 훨씬 뒤인 효종 2년 1650년에 제주목사로 부임했던 이형상(李衡祥)도 이곳 제주에 와서 그러한 사실을 목격하고서 『남한박물(南宦博物)』에서 ‘숲이나 내, 뜻, 언덕, 무덤에 난 나무 같은 것을 모두 섬겨, 신당을 만들어서 해마다 정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무당들을 앞세워 채물들을 던지며 제사를 지낸다.’

무당들의 폐해를 기록한 글인데, 김정도 그때 목격한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다. ‘대개 저들(목사나 고을의 관리들을 이름)의 마음이 사리사욕에만 사로잡혀 다른 것은 모르기 때문에 청렴하고 어질면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이를 덮어 놓고 싫어한다. 저들을 깨워 주는 방법의 하나로는 말 잘하는 고승(高僧)이 있어 천당과 지옥 이야기로 그들을 설복한다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 고장 중들이 또한 다 마을에 처를 얻어 두고

호화스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목석과 같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더 구나 무당 같은 것들은 사람을 귀신으로 놀라게 하면서 음식과 술을 빼앗아 먹을 뿐이다. 결국 사리를 도모하는 대로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이다.’

백성들을 편하게 살게 하려고 보낸 관리들이 사리사욕에만 급급한 사이에 백성들이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김정의 글이 말하는 바가 크다. 제주 사람들은 특히 풍수지리에 대한 믿음이 지극하다. 그런 연유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명당자리에 묘를 쓰고자 했다. 그러다 보니 무덤을 여러 차례 옮기는 바람에 재산을 모두 날린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든 무덤들에 돌로 담을 쌓았는데,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인력과 돈이 들어가는 일이었다.

고려불교의 전통인 연등회¹³¹⁾는 영등굿¹³²⁾으로 제주도에 남아 민간신앙

131) 연등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2012.4.6.)로 지정되었다. 팔관회와 더불어 신라 진 흥왕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국가적 행사로 자리잡힌 불교 법회이다. 이 두 행사는 고려 태조가 《훈요십조》의 제 6조에서 후대왕들에게 계속 잘 받들어 시행할 것을 당부한 사항이기도 하다. 태조는 여기서 연등회를 '불(佛)을 섬기는' 행사를 말하였다. 본래 연등은 등에 불을 켜 놓음으로써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어두운 세계를 밝게 비춰주는 부처의 공덕을 기려 선업(善業)을 쌓고자 하는 공양의 한 방법이었다. 이것이 인도로부터 중국에 전래되어 연중 행사화하고, 또 신에 대한 제사를 함께 지내는 등의 성격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런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고려에서는 처음에 매년 1월 15일, 즉 상원일(上元日)에 행사를 가지던 것을 성종대에는 최승로(崔承老)의 전의에 의해서 폐지했다가 1011년(현종 2)에 재개하였는데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폐 난길에 올랐다가 돌아오던 중 청주(淸州)의 별궁에서 2월 15일에 열었으므로 이후부터는 이 날짜로 바뀌었다. 이 후에는 나라의 형편에 따라 1월 15일, 혹은 2월 15일에 열렸다. 1038년(정종(靖宗) 4)의 연등회 때 왕이 태조의 원당인 봉은사(奉恩寺)에 나아가 그 사당을 배알한 이후부터 으레껏 이 대회는 건국자에 대해 배례를 행하는 국가적·정치적 의의를 지닌 날로 지켜졌다. 아울러 이 날에는 대궐에 많은 등롱을 밝히고 술과 다과를 마련한 가운데 음악과 춤 및 연극을 베풀어 군신이 함께 즐기는 한편으로 부처와 천지신명을 또한 즐겁게 하여 국가와 왕실의 태평을 빌었다. 이런 행사는 나아가 개경 뿐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거행되었고, 정규적 행사 이외에도 4월 초파일의 석가탄신일이나 불사(佛寺)의 낙성과 사탑의 건립 등을 경축하는 행사가 있을 시에도 설치되어 고려의 일반화된 국속의 하나가 되었다.

132)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중요무형문화재 제71호(1980년)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과 절충되어 신앙하게 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기도 하였다. 제주도에서는 음력 2월에 새봄을 맞는 세시풍속으로 한해의 풍요를 기원하는 영등굿이 행해진다. 고려시대 연등회는 고대로부터 있어온 정월 상원의 제천기농제의 성격에 불교적 특징인 연등을 접목한 축제였다. 제주도 영등굿은 바로 이러한 연등회의 특징을 이어받아 풍농과 아울러 제주도의 생활상에 맞게 풍어를 기원한다는 성격을 지닌 채 연등절 풍속으로 변모하여 민간의 풍습으로 자리 잡았다. 연등회가 연등절 풍속으로 그리고 영등굿으로 변모하며 형태가 갖춰지면서 점차 불교 행사의 의미는 사라져갔다. 그러나 연등회의 풍농기원의 성격이 이어져 계승될 뿐 아니라 영등굿의 서사 속에는 생불, 전륜대왕, 지장 등 불교의 보살들이 여러 신들과 함께 기원의 대상으로 자리하고 영등대왕과 관음보살, 지장아기씨의 불공, 미륵에게 고해 올리는 영등송별대제, 무당의 바리춤 등으로 불교적 요소는 그대로 남아 영등굿의 기원이 연등회였음을 말해주고 있다.¹³³⁾

조선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여 불교를 유교로 바꾸려는 노력을 끊임 없이 기울였으나 유교의례는 18세기에 와서야 비로소 일반백성들에게 정

(2009년)에 등재되어있다.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本鄉堂)인 칠머리당에서 하는 굿이다. 건입동은 제주도의 작은 어촌으로 주민들은 물고기와 조개를 잡거나 해녀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마을 수호신인 도원수감찰지방관(都元帥監察地方官)과 요왕해신부인(龍王海神夫人) 두 부부에게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비는 굿을 했다. 부부수호신과 함께 영등신을 맞이하여 소중히 위하는 굿을 했는데, 영등신은 외눈백이섬 또는 강남천자국에서 2월 1일에 제주도에 들어와서 어부와 해녀들에게 풍요를 주고 2월 15일에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내방신(來訪神)이다. 당굿은 매년 음력 2월 1일과 2월 14일하는데, 영등신이 들어오는 음력 2월 1일에는 영등환영제를, 영등신을 떠나보내기 전날인 2월 14일에는 영등송별제를 지낸다. 주민들은 영등신이 환영제보다 성대한 송별제를 받고 이튿날인 15일에 구좌읍 우도(牛島)에서 다시 송별제를 받은 뒤 떠난다고 믿는다. 따라서 환영제 때는 배의 주인이나 신앙심이 깊은 이들만 모여서 간소하게 굿을 하고, 송별제는 어업관계자와 해녀, 그 밖의 신앙민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하루종일 큰굿을 한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영등신에 대한 제주도 특유의 해녀신앙과 민속신앙이 담겨져 있는 굿이며, 우리나라 유일의 해녀의 굿이라는 점에서 그 특이성과 학술적 가치가 있다.

133) 한금순,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 『정토학연구』 11호, 한국정토학회, 2008.

착되어갔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며 신분제가 붕괴되어 매관매직이 성행하게 되자 새로 편입된 양반들이 기존 양반의 흉내를 내면서 유교의례도 널리 정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형상은 이러한 일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받은 백성들이 스스로 한 일이라고 기록하여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임금이 치세를 찬양하는 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강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덕으로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유교국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치의 방식이었음을 생각할 때 이형상의 이러한 기록이 의미하는 바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형상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제주도민의 정서는 권력의 남용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과 저항의식을 나타내는 줄거리로 구전되는 설화에 남아있다.

결국 이형상의 강압에 제주의 승려와 무속인들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활동을 자제하고 개인적 신앙형태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불교와 무교는 더욱 습합되는 현상을 띠게 되었던 것 같다. 이형상 자신의 기록으로도 사찰은 두 곳만을 철폐하였다고 했으나 절도 당도 구전으로는 500씩 철폐한 것으로 전래된다. 신당과 불교의 융합은 미륵당으로 나타나 구원을 약속하는 불교의 미륵불이 민간의 신당으로 내려가 마을과 민중의 수호신으로 함께 존재하며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보다 가까이에서 어루만져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유독 많은 신당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제주도 사람들이 신령하게 여겼던 신당과 절을 모조리 파괴한 사람이 제주목사였던 이형상이었다. 그는 제주에 와서 목격한 폐단을 장계로 올렸는데, 다음과 같다.

‘무격의 무리가 혹세무민하는 벼룩은 본디 예로부터 있어 온 병폐입니다. 그러나 이 섬에 이르러서는 더욱 별납니다. (중략) 무뢰한 놈들이

당놈(堂漢)이라고 일컬으며 상호 계(契)를 맺었으니 그 수가 천 명이 넘습니다. 혹은 마을에서 털어 먹기도 하고, 혹은 신당에서 소를 잡아먹습니다. 촌백성들이 보관하여 둔 면포와 비단이 있으면 처음에는 귀신의 재앙으로 두렵게 합니다. 만약 내놓지 않으면 귀신의 차사(差使)라고 일컬으며 당놈들을 보내어 결박하고 약탈합니다. 심지어 우마도 약탈하는데, 그 수가 백 필에 가깝습니다.

또 그 논밭을 약탈하기에 이르면 각자 나누어 먹으며 혹 위전(位田)이라고 일컫거나 혹 사시(捨施)라고 일컫습니다. 밭은 이어져 밭둑길까지 닫고 당에는 주폐(珠貝)가 쌓입니다. 무릇 배를 탈 때는 그저 신의 재앙이 있는 것만 알지 관령(官令)이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진상하는 배도 바람을 기다릴 때는 역시 신당에 하직을 합니다. 이와 같은 풍습은 다른 고을에는 없습니다. (하략)

섬의 풍속이 어리석고 성화(聖化)에 젖지 못하여 동성(同姓)과 근족(近族)이 서로 혼인하고, 혼인할 때 교배의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남자는 혼인 때 여자 쪽에 찬(饌)을 보내고, 여자의 몸을 가리지 아니하고, 또 처 있는 자가 처를 취하고, 남편이 있는 자가 개부(改夫)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지금부터는 서로 금하겠습니다. 그 음사 같은 것은 각각 헐어서 치워버려 그 은혜를 머금고 그 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략)

다음날에는 각자가 세 읍에 있는 신당 129개를 소각하고, 또 사가(史家)에서 신에 기도하는 물건이나 길가 총림에 있는 것과 무격배(巫覥輩)의 신옷[신의(神衣)]과 신궤[신철(神鐵)] 일체를 다 불태웠습니다. 심지어 나무뿌리를 파고 불상을 헐어 없애니 지금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다고 세 읍의 수령들이 연이어 첨보했습니다. 또 다음날에는 무남(巫南) 수백 명이 일제히 와서 호소하기를, “이는 백성들이 즐거이 하는 일입니다. 관용(官用)의

면포를 전적으로 무격에 책임을 지우니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갖추어 납부할 수 없어서 서로 굿에 뛰어든 것이 전전하여 풍속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미 없애 버렸으니 이 폐단은 영구히 없어질 것입니다. 무안(巫案)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을 또한 제거해 주시면 대대로 서로 금하고 사람마다 각자가 면려하여 영원히 무명을 폐하여 범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략)

또 들으니 백성들 사이에서 모두 이전에 송상하고 받들어 치성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질풍(疾風)과 괴우(怪雨)가 매양 화곡(禾穀)을 해쳤고, 또 배도 많이 전복시켰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소각하고 없앤지 반년이 되었지만 이익이 있고 해가 없으니 전에 속았음을 알게 되어 극히 분한 일로 여깁니다. 남녀노소가 만나면 서로 축하하고, 무격을 원수보듯 하며 그들과 더불어 무리를 지었던 것을 부끄러워합니다.¹³⁴⁾’

이형상은 무당들의 폐해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세 곳의 읍(邑)을 돌아다니면서 당과 절을 찾아가 신령이 있으면 보이라고 했다. 보이지 않으면 그 즉시 불태우거나 도끼로 찍어서 넘겼다. 무당에게 굿을 치게 한 다음, 눕힌 왕대가 일어나면 신령이 있다고 여겼으며 일어나지 않으면 신령이 없는 것으로 여겼다. 신령이 약하여 왕대가 덜덜 떨면서 일어나다가 다시 쓰러져 파괴를 당한 할망당이 50군데가 넘었다고 한다. 이형상에게 변을 당한 당신들은 이형상에게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결과 그의 어린 두 아들의 팔을 새끼 고듯 배배 꼬아 곰배팔이로 만들었다고 한다. 또 군졸들을 데리고 김녕사 굴의 이무기를 죽인 판관 서연(徐憐)은 혈우(血雨)를 맞고 말에서 떨어져 시름시름 앓다가 10여 일 뒤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한다. 이렇게 미신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수많은 당집과 불교 사원을 부쉈다는 데도 제주도에서 무당들과 굿은 사라지지 않고 여기저기 수없이 남아 400여 개에 이른다.

134) 이형상, 『남한박물』 출판사, 출판연도, 페이지

본토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제주도는 육지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지형과 기후 때문에 육지와는 전혀 다른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사면이 바다로 바람이 많고, 태풍과 큰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전지전능한 신이나 조상에게 의지하고자 비는 것이 생활의 방편이었다. 제주도의 불교 의식은 부처님께 드리는 음성공양과 재(齋)공양의 측면에서 육지부의 지역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특히 음성공양인 범음(梵音) 곧 범파(梵唄)는 불교의식 중에서 재를 올리기 위해 부처님께 바치는 음악으로, 인간의 염원을 부처님께 전달하는데 사용된 현재까지 전하는 의식요(儀式謠)이다.

제주불교의식은 제주에 불교가 유입, 전승되면서 제주의 전통문화와 연계되어 육지 지방과는 차별되는 특징이 있다. 즉 제주불교 세시의례 중 칠성제와 산신제가 육지지방에 비해 성대히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의 무속의례 중 산신제와 칠성제가 불교의례와 연계되어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 육지지방에 비해 제주도의 불교의식은 사자천도의례가 중시되어 더욱 장엄하게 진행되고 있고, 천도재인 49재시에도 육지지방에서 소멸된 시왕각배를 시왕각청으로 순당하고 있고, 생전예수재의 경우에도 욕불(관불)의식이 전승되고 있다. 불교의식 음악인 안채비 소리는 태정, 목탁, 북을 치면서 염불하는데, 육지지방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며, 제주지방의 토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화청(회심곡)도 불교의 회심곡을 변이시켜 육지지방에서 부르는 소리와는 다른 제주적인 토리로 불리고 있다.¹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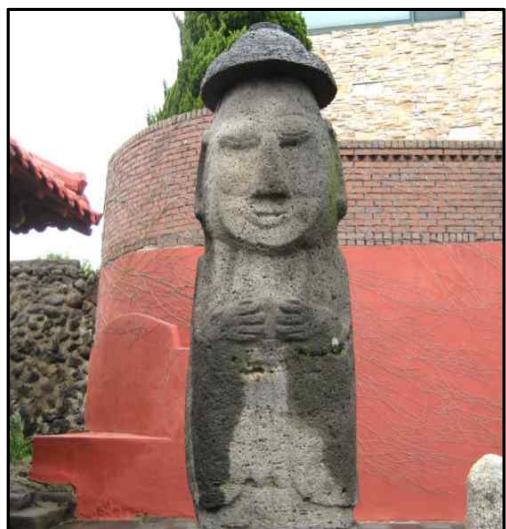
제주도의 불교는 예부터 “제주에는 절 오백, 당 오백이 있다.” 는 말처럼 토착 민간신앙이 불교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한반도의 어느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강한 민간신앙과의 융합된 불교를 형성했다고 생각된다. 그 예로 동자복과 서자복상이 있

135) 제주불교의식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5호(2002.5.8.지정)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에서는 중요한 의식이다.

다. 옛 제주성 바깥 동쪽과 서쪽에 한 쌍의 석상이 성을 지키듯 서 있다. 제주사람들은 이를 ‘복신(福神)미륵’, ‘자복(資福)미륵’이라 부르며 대개 동자복·서자복이라고 한다. 복을 가져오는 복신으로 여기서 미륵은 불교적 의미보다 민속적 의미가 강하여 신통력 있는 석상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이 한 쌍의 복신미륵은 일찍이 제주도 민속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다.



[圖 32] 동자복 미륵



[圖 33] 서자복 미륵

동자복 미륵은 건입동 주민센터 길 건너편 주택가 입구에 있고<도 32>, 서자복 미륵은 용담1동 용화사 경내에 있다.<도 33>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다고 보이는 높이 2.7m의 이 두 미륵상은 생김새와 크기가 아주 비슷하다. 서자복은 달걀형의 온화한 얼굴에 병거지를 썼고 코를 크게 새긴 점이 특이하며 두 손을 가슴부분에 가볍게 얹었다. 동자복은 차양이

빙 둘러진 모자를 썼고, 커다란 귀, 우뚝한 코, 지그시 다문 입, 인자하게 내려다보는 눈매 등 자비로운 모습이 일품이다. 몸에는 예복을 걸쳤고, 두 손은 가슴에 정중히 모았는데, 그 소맷자락이 유난히 선명하다.

상당한 거리에 따로 떨어져 있지만 동서에 마주 보며 있으니 분명히 한 쌍으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동기로 이렇게 세워졌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서자복 미륵은 속칭 동한두기의 해륜사, 일명 서자복사(현 용화사) 자리에 있고 건물은 조선 숙종20년(1694)에 불타 없어졌다.

동자복 미륵이 있는 동네는 예전에 ‘미륵방’이라는 밭이었는데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만수사(萬壽寺)는 일명 동자복이다.”라고 했다. 또 『南宦博物』 136)에서는 “성안에 원래 승려가 없어 사찰이 모두 철희되었는데 제주성 동쪽에 만수사가 있고, 서쪽에 해륜사가 있어 각각 불상은 있지만 항상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마을에서 한 사람을 지키게 했다.”고 했다.

제주의 불상들이 모두 그러하듯이 절이 없어지면서 이 미륵은 민간에서 복신으로 둔갑해 계속 승배되어왔으며 용왕신앙과 뒤섞여 해상 어업의 안

136) 『남환박물』은 이형상이 제주목사(숙종 28년(1702) 6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를 지내면서 재임기간에 제주의 모든 사정을 기록한 것이다. 이형상(李衡祥, 1653~1733)의 자는 중옥(仲玉), 호는 병와(瓶窩)라 했고 여러 벼슬을 거쳐 한성부윤에 이르렀으며 뒤에 청백리에 오른 분이다. 그가 제주목사에 부임한 대는 숙종 28년(1702) 6월이었다. 원래 목사의 임기는 3년이었으나 제주로 유배 온 오시복의 편의를 봐줬다가 이듬해 6월 물러났다. 이형상은 실학적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관직을 수행한 뛰어난 행정 관료였다. 역대의 지방관 중에서 이형상처럼 자신이 책임 맡은 관내의 물산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기록하고 그것을 행정에 반영한 이는 역대 제주목사 총287면 중 유일하고, 또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도 다시 찾아보기 힘들다. 남환이란 ‘남쪽 벼슬아치’ 이란 뜻으로 제주목사를 일컫는 말이니 ‘제주목사가 본 제주 박물지’란 뜻이다. 그는 직접 제주 곳곳을 다니며 수집한 내용과 기존 기록을 참고하며 제주의 모든 정황을 입체적으로 구성해놓았다. 37항목에 걸쳐 제주의 역사·지리·물산·자연생태·봉수·풍습 등 백과사전식 내용이 상세하다. 특히 섬의 특성을 잘 살려 일반 읍지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기후 특성과 동식물의 현황까지도 기록했다. 당시 제주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생생하게 되살려놓은 최고의 그리고 최초의 제주 민속 인문자리서이다.

전과 풍어, 출타 가족의 행운을 지켜준다고 믿으면서 자복미륵이 되었다.

복신 옆에는 높이 약 70센티미터의 동자미륵이 있는데 그 형태가 꼭 남자 성기 모양이고 여기에 걸터앉아 치성을 드리면 아들을 얻는다는 생식 신으로 전해진다. 전하기로 이 동자미륵은 본래 경질의 까만 현무암으로 여인네들이 하도 여기에 걸터앉자 비비대며 치성을 드려 동자 머리에 해당하는 남근석이 반질반질하게 윤이 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를 훔쳐가는 바람에 지금은 새 돌로 깎아놓아 효험이 없어졌다며 애석해한다.¹³⁷⁾

또한 제주도의 강한 민속신앙의 틈바구니 속에서 꽂피위온 불교는 다른 지역과는 구별되는 불교의 다양한 종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조계종¹³⁸⁾은 우리나라 불교의 최대 종파로 자리 잡았고 전국의 많은 사

137)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7-돌하르방 어디 감수광, 창비, 2012. 가능하다면 유홍준선생의 책과 같은 대중서는 각주나 참고문헌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위논문이니까요....바꿀 수 있다면 바꾸면 좋겠습니다.

138) 현재의 조계종은 산 속에 깊이 숨어 종명에 관심이 없었던 불교계가, 도성출입금지가 풀리고 남의 나라 불교종파가 서울에 들어오는 급변한 시대를 만나 나름대로의 종명을 붙이기에 이르렀다. 그것이 1908년에 발족한 원종(圓宗)이었다. 이어서 1911년에는 임제종(臨濟宗)이 생겨났다. 그러나 1911년 6월 제정 반포된 <사찰령>에 이어 7월 8일 <사찰령시행규칙>이 발표, 실시됨으로써, 이 땅의 불교는 조선불교선교양중30본산(朝鮮佛教禪教兩宗三十本山)으로 형성되어 다시 종파이름을 잃어버렸다. 이와 같이 30본산, 곧 30개의 교구로 나누어진 일제치하의 불교계에서는 각 본사(本寺)의 유기적인 연관관계를 끼하여 30본산회의소(三十本山會議所)를 설치하였다. 1914년에 연합제규(聯合制規)를 제정하고, 각황사(覺皇寺)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 연합사무소는 이름 그대로 30본산의 연합사무만을 집행하였을 뿐 전국 사찰을 통할하고 전체승려를 통제하는 권한은 없었다. 그리하여 실질적인 중앙통제기관의 필요성에 의하여, 1921년 초 연합사무소를 종무원(宗務院)으로 고쳐 중앙통제기구의 체제를 갖추었으나 총독부에서 허가하지 않았으므로 호지부지되었다가, 신진승려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교단 내의 자각에 의하여 1922년 1월 중앙종무원(中央總務院)이 각황사에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에 가담하지 않은 본사들이 합심하여 그 해 5월에 중앙교무원(中央教務院)을 역시 각황사 안에 설치하였다. 그러다가 1925년에 양쪽이 타협하여 ‘재단법인 조선불교중앙교무원’으로 통일된 중앙통제의 종무기구를 이룩하였다. 1928년 1월 승려대회를 열고 종헌(宗憲)과 교무원원칙(教務院院則) 및 교정회법(教正會法)·종회법(宗會法) 등을 제정하였으며, 교정(教正) 7명을 선출하여 종단 최고의 원로기관으로 삼았다. 의결기관으로서의 종회

찰이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다. 현재 제주도의 사찰을 종단별로 살펴보면 조계종 소속의 사찰수보다 태고종소속 사찰이 많고, 기타 다양한 종단에 속한 사찰도 제주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전역을 살펴보면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의 권역별로 조계종 소속 사찰이 26개이고 태고종 소속 사찰이 26개이며, 기타종단이 1개로 총 53개 사찰이다.¹³⁹⁾(<표 1> 제주도 사찰 현황 참조)

이러한 점은 제주도의 불교특징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며 오랜 시간 민간 신앙이 뿌리깊게 자리한 풍토적 환경 속에서 불교가 육지에서 전래되고, 성행 발전되면서 다양한 민간신앙의 형태만큼 다양한 불교의 종단이 제주도에 정착하여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는 본사와 말사의 평의원회(評議員會)에서 뽑은 종회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사무기관으로서의 중앙교무원에는 서무부·재무부·교학부를 두었다. 이리하여 한 종단으로서의 모든 것을 거의 다 갖추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조선불교선교양종이라는 종명은 불분명한 데가 있었다. 결국 선명한 종명과 특징 있는 종지를 갖춘 종단을 지향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요청되어 근본적인 개신(改新)의 움직임이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41년 봄 태고사(太古寺 : 지금의 조계사)를 세워 총본산으로 삼고, 종단 이름을 조계종으로 결정하였다. 일본 총독부의 <사찰령> 이후 줄곧 선교양종이라는 불분명한 종명을 써오다가, 이 때 비로소 조계종이라는 종명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1941년 4월 23일 조선불교조계종총본사 태고사사법(朝鮮佛教曹溪宗總本寺太古寺寺法)의 인가를 얻었다. 새로운 조계종으로 발족한 종단에서는 제1세 종정을 중원(重遠)으로 추대하고, 그 해 6월 6일 총본사 종무원에서 종무를 시작하였다. 종정에 추대된 중원으로부터 종정취임의 승락을 받고, 8월 4일 총독부로부터 종정취임인가를 얻었다. 9월 18일 종무고문 6인과 종무총장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종무원에는 서무부·교무부·재무부의 부서를 두었다. 또, 종회법·승규법 등을 제정,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유일한 종단으로서의 종명을 가지고 새로이 출발하였던 조선불교조계종은 광복을 맞이하여 한국불교조계종으로 재정비하기에 이르렀다. 그 해 10월에 전국승려대회를 열고, 일본총독의 <사찰령>과 그 때까지의 <조계종총본사태고사사법> 등을 폐지하는 한편 새로운 교헌(教憲)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초대 교정(初代敎正)에 박한영(朴漢永)을 추대하고, 중앙총무원장에 김법린(金法麟)을 선출하여 재출발을 하게 되었다. 현재의 대한불교조계종은 이 맥을 이어 우리나라 최대 불교종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139) 한국의 사찰문화재의 통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종단별 수치는 해마다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제주도 불교의 특수성과 함께 불교미술도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불교미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을 살펴보면(표 제주도 사찰의 문화재 보유 현황 참조) 제주도의 사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조계종보다 태고종 소속의 사찰에 월등히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불교의 종단별 많고 적음의 수치와 문화재 수량 이상으로 제주도의 불교 성격을 한층 더 이해할 수 있는 점이다. 불교미술 문화재의 보유 수량은 사찰의 세력, 규모, 선호도 등 제주도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지지, 후원과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점이다. 사찰에 모셔진 불상, 불화, 경전 등 사찰에서 중요한 문화재의 보유는 그만큼 사찰을 찾는 신도들, 민중들의 믿음과 결속되며 후원 속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불교미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제주도의 지리적, 정치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일찍이 육지에서 멀리 떨어졌던 제주도는 조선시대에는 행정적으로 전라도에 속해 있었다. 1895년에는 갑오개혁으로 인해 제주도는 제주부라고 해서 전라도에서 독립된 행정구역이 되었으나 1896년에는 광무개혁으로 인해 13도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번에는 전라남도에 속하게 되었다. 일제시대 해방 후인 1946년에 와서 제주도가 별도의 도로 독립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전라도에 속한 행정지역이었던 역사적 상황에서 현재 제주도의 사찰에 소장된 불교문화재는 제주도에서 제작되거나 전래된 것보다는 원래 소재지는 전라도의 사찰에서 전래된 것이 매우 많다. 특히 현재 복장물이 전하는 조선후기 불상의 경우에는 불상의 내력을 알 수 있어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데, 전라도의 사찰에서 당시 불상을 조성하던 화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승려집단의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이와 같이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은 뿌리깊이 전해온 강한 민간신앙의 바탕에서 독자적인 성격의 불교모습을 형성해오면서 시대별 정치상황 속에서 육지에서 스님과 불교미술의 교류를 통해 지금의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을 만들어올 수 있었다.

V. 맷음말

제주도에 불교가 언제 전래되어 사찰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제주도 전역에는 250여개의 크고 작은 사찰이 존재하고 있으며 종단의 성격도 다양하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바람이 많고, 태풍과 큰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무속, 조상 등과 같은 재래신앙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던 만큼 사찰에서도 본토와는 다른 형태를 엿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제주도에 전래된 정법의 불교와 그 성행시기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꽂피어난 불교미술을 고찰하여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특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제주도에 처음 불교가 전래된 경로에 대해 문헌기록을 통해 검토하였다. 제주도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로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의 제주도 불교 모습과 발전상황을 살펴보았고, 역불정책하의 조선시대의 제주도 불교는 파견 온 목사의 역할과 육지에서 유배 온 유학자들의 제주도민과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불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조선시대 효종4년(1653)에 간행된 문헌인 이원진의 『耽羅志』에는 당시 까지 존재하고 있었던 도내 20개소의 사찰명이 기재되어있으며, 그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인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15개소의 사찰명이 기재되어있다. 이들 사찰들은 구전되는 바로 조선 숙종28년(1702) 제주목사로 부임한 이형상에 의해 모두 훼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형상목사가 혁파한 것은 堂 129개소이며, 사찰은 海輪寺와 萬壽寺 2개 소 뿐이었다. 효종조까지 20여개에 달했던 도내의 사찰은 단지 50년이 지난 후인 이형상 목사 도임 이전에 거의 사라진 것이다. 당시가 역불승유의 시대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문현기록상 효종조까지 존재하였던 사찰이 20여개 소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조선왕조가 표면상으로는 유학을 중상하고 불교를 억제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재임했던 역대 왕에 따라 불교정책에 많은 혼선이 있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와 같은 점으로 보아 조선시대 제주도내 사찰의 존재를 기술한 문현기록을 통해 당시 사회상을 이해할 수 있다. 근대의 제주도 불교는 일제하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 속에서 지역민과 함께 적극적인 호흡 속에서 보다 발전해온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도의 사찰과 불교미술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제주도의 불교와 불교미술에 대한 이해는 제주도 사회와 제주도민의 삶의 역사를 조명해 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지형·환경적인 특수한 풍토 속에서 자구책으로 발전한 모습으로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 불교사의 종합적인 이해 속에서 교리나 법식에서 정통적이지 않거나 육지와는 다른 지역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지역민과 보다 밀착된 생활로서의 불교의 한 모습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문헌사료

- 『三國史記』
- 『三國遺事』
- 『高麗史』
- 『朝鮮王朝實錄』
- 『新增東國輿地勝覽』
- 『輿地圖書』
- 『耽羅誌』
- 『東國輿地勝覽』

단행본 · 도록

- 고창석, 『제주역사연구』, 세림, 2007.
- 국립제주박물관, 『제주의 역사와 문화』, 통천문화사, 2005.
-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세림, 1987.
-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 김찬흡 편저,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 『대둔사지』, 대둔사지간행위원회 · 강진문화현연구회, 1997.
- 대한불교조계종,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제주도편』, 2004.
- 『법화사지』, 서귀포시, 2006.
- 송은석, 『조선 후기 불교조각사』, 사회평론, 2012.

- 『수정사지』,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2000.
- 이원조, 『탐라지초본(영인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9.
- 『전통사찰총서21-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 사찰문화연구원, 2006.
-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사 연구』, 문예출판사, 2004.
- 『제주의 폐사지』, 제주특별자치도, 2004.
- 『제주 불교문화재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2008.
- 『제주도지』, 제주도, 1993.
- 제주불교사연구회, 『근대제주불교사자료집』, 2002.
- 『존자암지』, 제주도·제주대학교박물관, 1996.
- 『至心歸命禮-한국의 불복장』,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5.
-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템색』,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최선일, 『17세기 조각승과 불상 연구』, (재)한국연구원, 2009.
- 『한국의 사찰문화재-전라북도·제주도』, 문화재청, 2003.
- 『한국의 사찰문화재-광주광역시·전라남도』, 문화재청, 2006.
-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출판부, 2002.
-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논문

- 강창언, 「제주도의 불적, 탐라문화 12」,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2.
- 강창화, 「제주 법화사지의 고고학적 연구」, 제조도사연구 9, 제주도사연구회, 2000.
- 김리나,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의 조선시대 가첩존자상」, 『미술자료33』, 1982.
- 김일우, 「고려후기 제주 법화사의 중창과 그 위상」, 『한국사연구회 119호』, 2002.
- 김창화, 「조선시대 제주도 불상 연구-기년명 불상을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
- 송은석, 「17세기 조선왕조의 조각승과 불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7.
- 양진건, 「제주 유배인의 개화교학활동 연구」, 『민족문화연구2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0.
- 오진희, 「조각승 색난파와 화엄사 각황전 칠존불상」, 『강좌미술사 26-1집』, 2006.
- 윤봉택, 「13세기 제주 묘련사판 금광명경문구의 사실조명-순천 송광사장 고려판 천순판불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2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이계표, 「백양사의 역사」, 『불교문화연구 제6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96.
- 정은우, 「고려후기 불교조각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1.
- 조성윤.박찬식, 「조선후기 제주지역의 지배체제와 주민의 신앙」, 『탐라문화 제1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 최선일, 「조선후기 전라도 조각승 색난파 그 계보」, 『미술사연구제14호』, 2000.
- _____, 「조선후기 조각승의 활동과 불상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06.
- 최인선, 「제주도 서산사의 목조보살좌상과 복장물」, 『순천대박물관지 제3호』, 순천대학교박물관, 2001.
- _____, 「제주도 정방사소장 순천 대홍사 석조여래좌상과 복장물」, 『문화사학 23호』, 한국문화사학회, 2005.
- _____, 「별교 용연사 석조구류손좌상에 대한 고찰」, 『순천대학교 논문집 제25집』, 순천대학교, 2006.
- _____, 「전남 신안 일심사 목조보살상과 복장물」, 『호남문화연구 42호』, 전남대학교, 2008.
- 한금순, 「제주도 영등굿의 유래-연등회에서 영등굿으로의 변천」, 『정토학연구 11』, 한국정토학회, 2008.
- 한금순, 「근대 제주불교사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